

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2년 2월호
통권 274호(매월 15일 발행)
발행·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803-56
등록·1987년 3월 23일
등록번호·(사)라-26
1988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가

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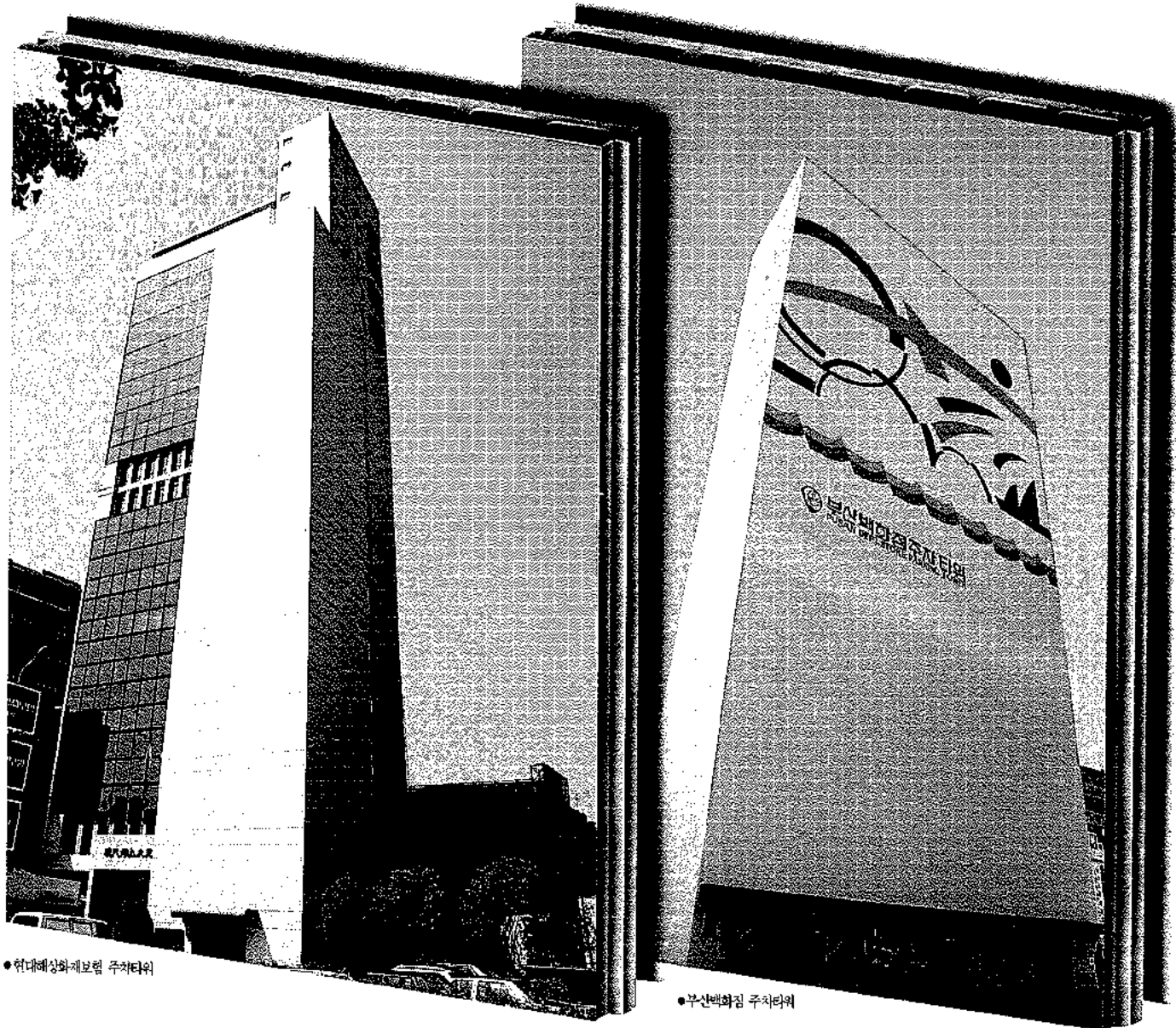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February 199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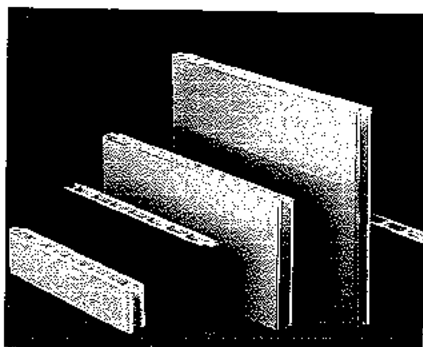
FEBRUARY



●현대백화점주식회사 주차타워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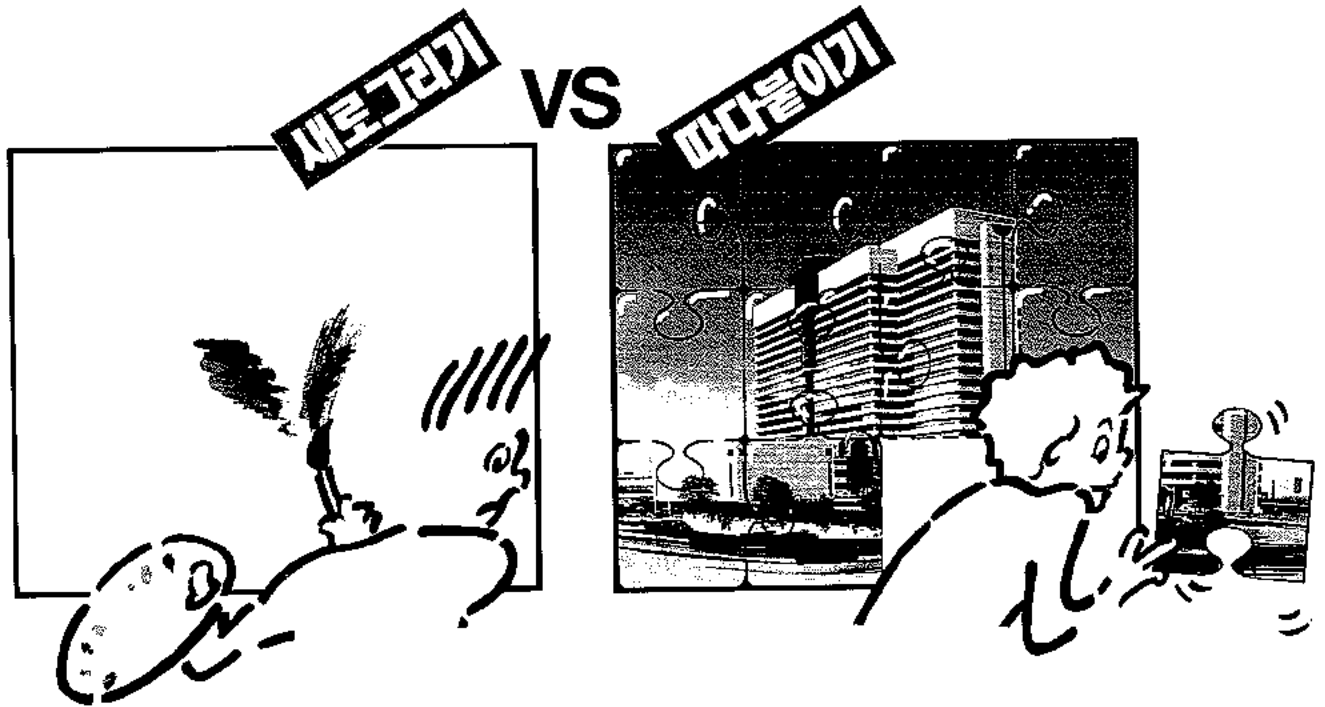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응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어느 쪽이 쉽습니까?"



Detail Library

국내 유명 건축설계사무소인 (주) 우일건축에서 활용중인 건축표준상세의 CAD Library 중 일반적이고 사용빈도가 높은 상세의 도해와 CAD Data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CAD Library Data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하여 CAD 실시도면에 활용한다면

- 1) 사용자측의 도면 Quality 향상
- 2) 표준화로 인한 회사 Q.C업무의 기준마련
- 3) 체계적인 등록 Code 제공으로 사용자가 새로운 상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자료의 회사자산화" 이룩 등 효율적인 건축설계 업무진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어지는 CAD Library

- 일반사항 : 건축 및 구조도면의 Format Sheet와 독립기초, 기둥, 음벽, 철골조의 기둥 및 보의 기본적인 집합상세 - 15개
- 실내마감 : 천장과 벽 그리고 바닥에 이르는 각 부위별 마감에 의한 상세 - 53개
- 바닥, 천정 : 바닥 및 천정에 있어서 바탕의 조건이나 마감재료에 따른 상세 - 42개
- 벽 : 벽체를 구성하는 재료 및 각종 System에 따른 상세 - 83개
- 지붕 : 지붕 구성재료 및 각종 Accessories들의 집합과 방수의 종류에 따른 상세 - 41개
- 계단, 운송설비 : 계단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른 부분별 상세 및 기타운송설비 상세 60개
- 창호 : Door 및 Window 등 각종 Opening의 재료에 따른 상세 - 48개
- 단위실, 기구 : 화장실, 주방, 욕실, 방통실 및 카운터에 관한 상세 - 27개
- 외부시설, 기타 : 건물의 외부시설물에 관한 상세 - 69개 등 총 438개의 상세 제공



Authorized Distributor

CADSPEED®

AutoLISP로 작성된 건축전용 S/W, CADSPED는 범용 CAD S/W인 AutoCAD를 건축설계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AD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Block (미리 그려진 그림을 필요할 때 불러쓰는 AutoCAD명령어의 하나)의 경우 일일이 작성할 필요없이 폭, 높이 등의 가변치수만 입력하면 지정된 그림을 그려 치수까지 기입하므로 수많은 Block들을 하나의 명령어로 대신할 수 있으며, 벽체선의 경우에는 여러 선들의 간격, 색 및 Layer만을 정해주면 한꺼번에 여러 선들의 모서리 처리까지 해가면서 그려나갈 수 있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AutoCAD 활용의 폭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S/W입니다.

CADSPEED®의 주요기능

복선제도, 복선중간부분 자르기, 복선 끝부분 늘리기 및 정리, 복선 동시 자르기 및 붙이기, 창호평면상세의 자동설계삽입, 출입로 간편그리기, 창호입면, 설계, 평면도 중심축선의 자동작도 및 치수기입, 구조단면 List, 종고도 회색계단설계, 지적도 확대, Line그림과 동시에 치수기입, 치수만의 기입, 면적계산 기입, 글씨제어기능, 지정 Color 및 Layer로의 변환, Skip Line, Point용어, 기둥평면제도, 2점간의 Array 기능, 기실정 평면계획 등 수십 종의 기능보유

* 본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프로그램등록을 필하였음

* AutoCAD는 Auto Desk사의 등록상표임

* CADSPED는 동인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상표임

가 격 혁 명 품 질 혁 명 A/S 혁 명

Turn-Key 무상A/S 15개월

서통AI사업부는 AutoCAD, ARRIS등 CAD S/W와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COBRA386, 486PC 및 모니터, 디지털타이저, 플로터 등 CAD주변기기를 Turn-KeyBase로 일괄 공급합니다.

H/W, S/W, 주변기기는 물론 A/S와 교육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는 편리한 선전구매방식과 더불어 강력한 AutoCAD 3rd Party를 활용해 보십시오.

Turn-Key Base 품목

- | | |
|----------------|--|
| ■ SYSTEM | ● COBRA 386S ● COBRA 486 |
| ■ MONITOR | ● NEC-2A(14"), 3D(14"), 4D(16"), XL(20"), 5D(20") ● HITACHI CM2085 |
| ■ GRAPHIC CARD | ● AutoPACK ● X-series 15, 256 ● Cobra Plus 3bit-HS16, 256 |
| ■ PLOTTER | ● MUTOH IP-530E, IP-530EL, F-920E, F-920ER |
| ■ DIGITIZER | ● GTCO SketchMaster 12 x 12, 12 x 18 ● Super 1 24 x 36, 36 x 48, 42 x 60 |
| ■ S/W | ● AutoCAD ● ARRIS ● AutoCAD 3rd-Party |

교육장/전시장/A/S CENTER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TEL: 514-0386

교육장: 대한건축사협회 1층 TEL: 521-7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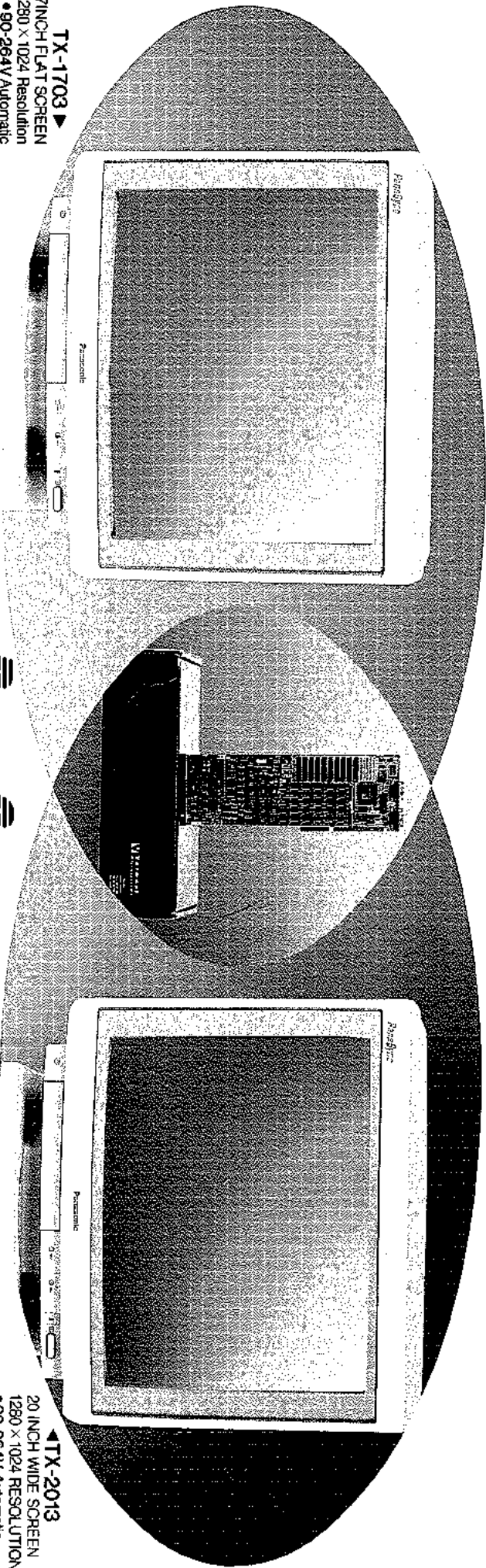
부산: 중구 중앙동 47-76-21 봉도빌딩 1층 태창캐드팩스 TEL: 464-6450

대구: 중구 동인동 3가 271-17 TEL: 421-2856



서통 AI사업부 5140-386

천연의 COLOR를 파나소닉모니터에 실현한다!



Panasonic

저 넓은 우주에 만물이 형성된 이후로...

이제까지 모든이들은 미처사다가 **Panasonic** 라는 기술력으로 **천연의 컬러**를 모니터에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 우리는 **파나소닉 브랜드**의 컬러모니터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한국내 **서릉 VLS사업부**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펼쳐가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이들이 원하는 많은 정보를 **고해상도 컬러모니터**에 담기위해

언제라도 우리는 모든이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140-386으로 문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TX-1703 ▶**
17INCH FLAT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 TX-1713 ▶**
17INCH FLAT SCREEN
1024 X 768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 TX-2013 ▶**
20 INCH WIDE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 TX-2103 ▶**
21 INCH FLAT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 C1381 ▶**
14INCH WIDE SCREEN
1024 X 768 RESOLUTION



주요 영업처 연락처

- 전문취급점 : 빌리언시스템 : 미포구 상수동 304-1 무성빌딩 1~2층 325-1023 ● 세츠빌 시스템 : 전지랜드 본관 3층 A346호 706-2457~8 세츠빌기 4층 나일 415호 274-7091~2
● 세츠빌기 2층 4층 93-94호 703-2335~6 ● 연평빌딩 : 나진빌기 17층 기 347 713-8237 ● 테호시스템 : 나진빌기 19층 3F 다20호 711-6561~2 ● 피지컬 : 신원빌기 21층 4층 93-94호 703-2335~6 ● 연평빌딩 : 나진빌기 17층 기 347 713-8237 ● 테호시스템 : 나진빌기 19층 3F 다20호 711-6561~2 ● 피지컬 : 세츠빌시스템 : 테미노빌기 2F-3F 35호 703-7763 ● 주시시스템즈 : 전지랜드 3F-B-318호 718-1103 ● 대구전시점 : 대구시 중구 동안동 371 271-17 421-2886 ● 테크네트웍스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71 76-21 동도빌딩 1층 464-0450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세종문화회관
- ◎ 국립극장
- ◎ 웨스턴위커킬
- ◎ 롯데호텔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이화여대강당
- ◎ 유관순기념관
- ◎ 충현교회 본당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 서울·제주 신라호텔
-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계동 센타 예술극장
- ◎ 육군박물관
- ◎ 대전시민회관
- ◎ 부곡하와이 등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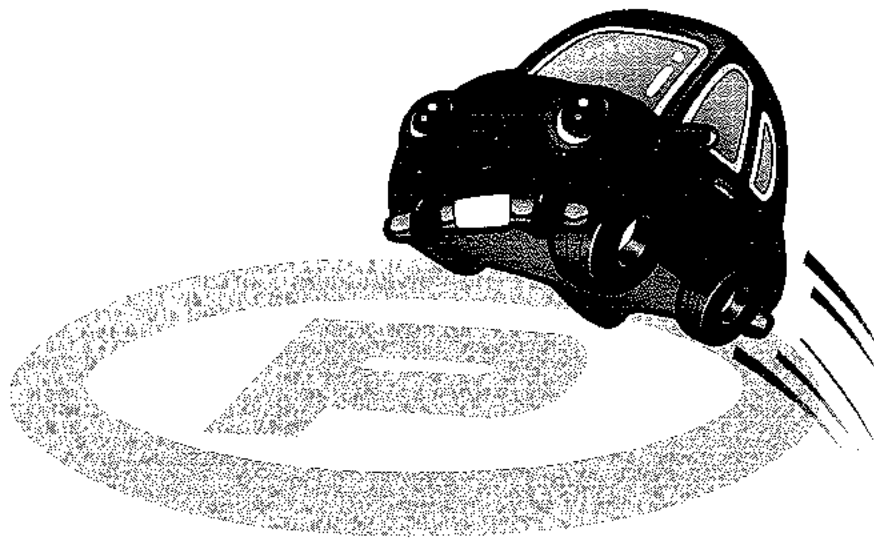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특별시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車面 山 209-1 松蔭里 山 209-1
TEL. (0341) 967-4184, (02) 632-0216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가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장치와 핸드제인의 장착으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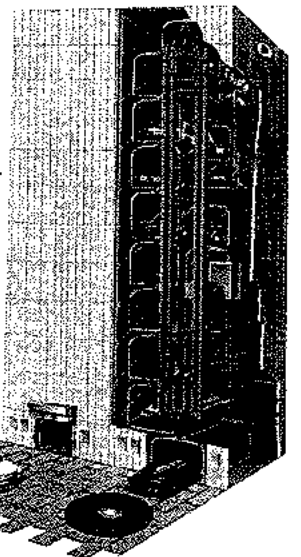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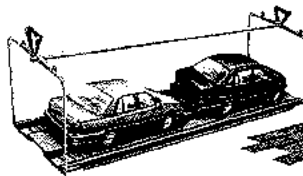
완벽 A/S 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대형제인에 차량 실을 수 있는 케이지 (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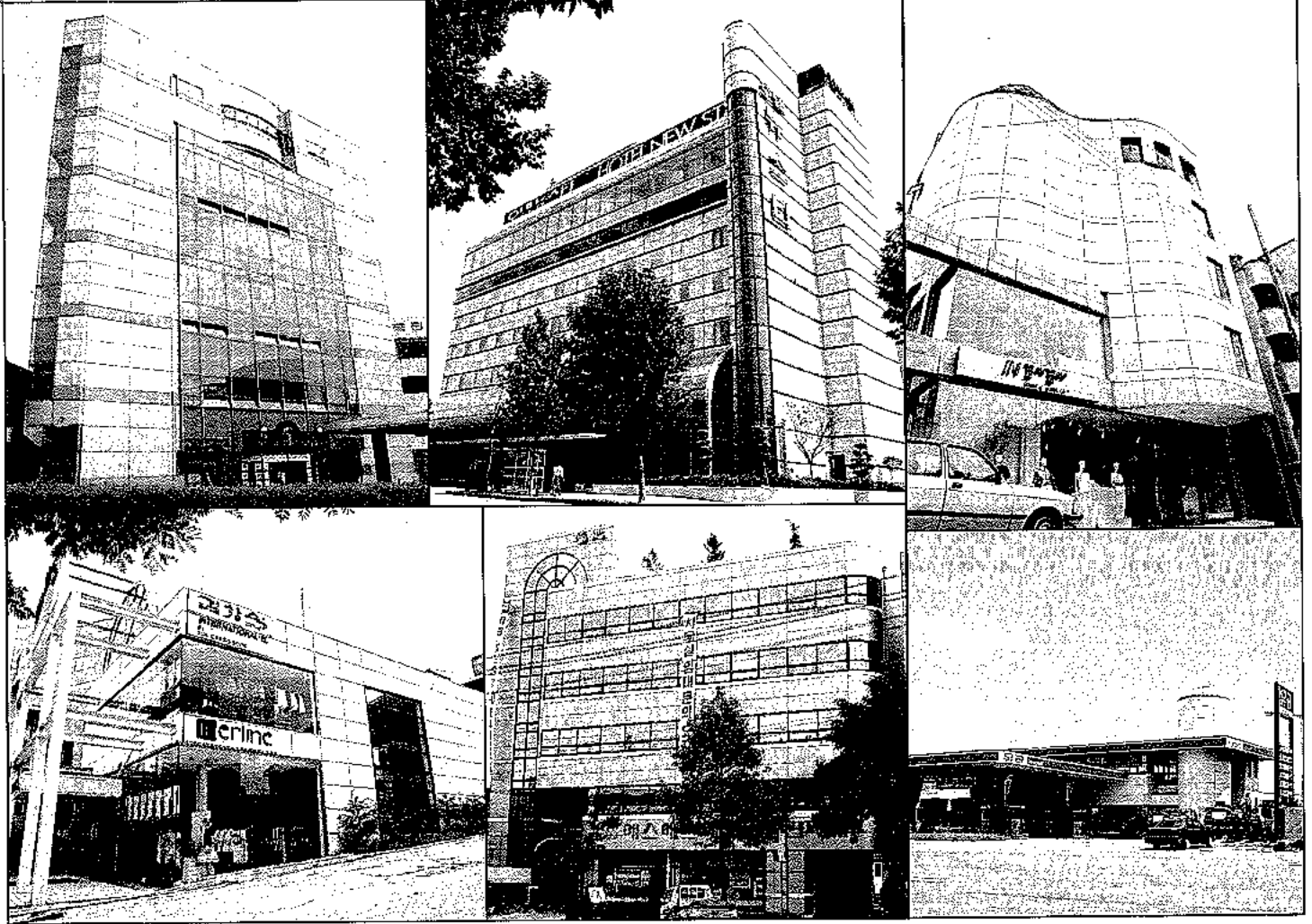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 엘리베이터에 차량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그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흥성의 꿈입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의 창조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 건축 내·외장재의 혁신

아키텍스
— ARCHITECTS(아키텍스) /

아키텍스란?

입자능판, 아연도철판, 동철판 등 각종 금속판(0.1mm~0.5mm)을 양면으로 하고 코어부의 일정 두께를 강력한 집착력과 보강력이 있는 가열경화성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로 형성하여 줌으로써 금속합판 전체의 보강은 물론 단열, 방진, 방음 및 차음의 효과를 낼 수 있고 변질이 되지 않는 특수 금속합판의 건축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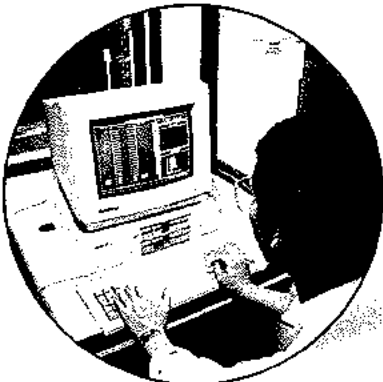


홍성판공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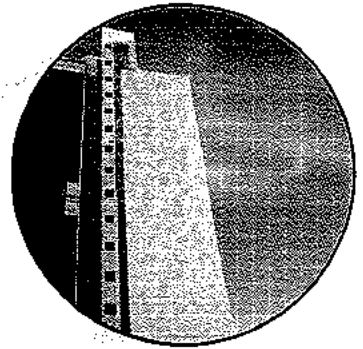
■ 서울사무소: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7-3 총화회관 1층 TEL. (02) 562-1264, 568-3474~6, FAX. (02) 566-0856
■ 본사 및 공장: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사동리 산78-2 TEL. (0336) 34-5119, 32-1903~4, FAX. (0336) 34-9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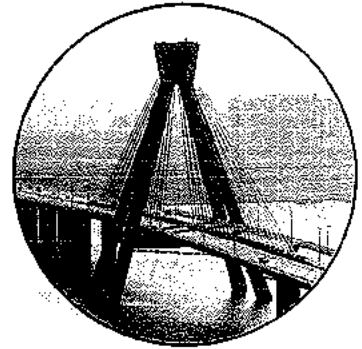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 한국일보사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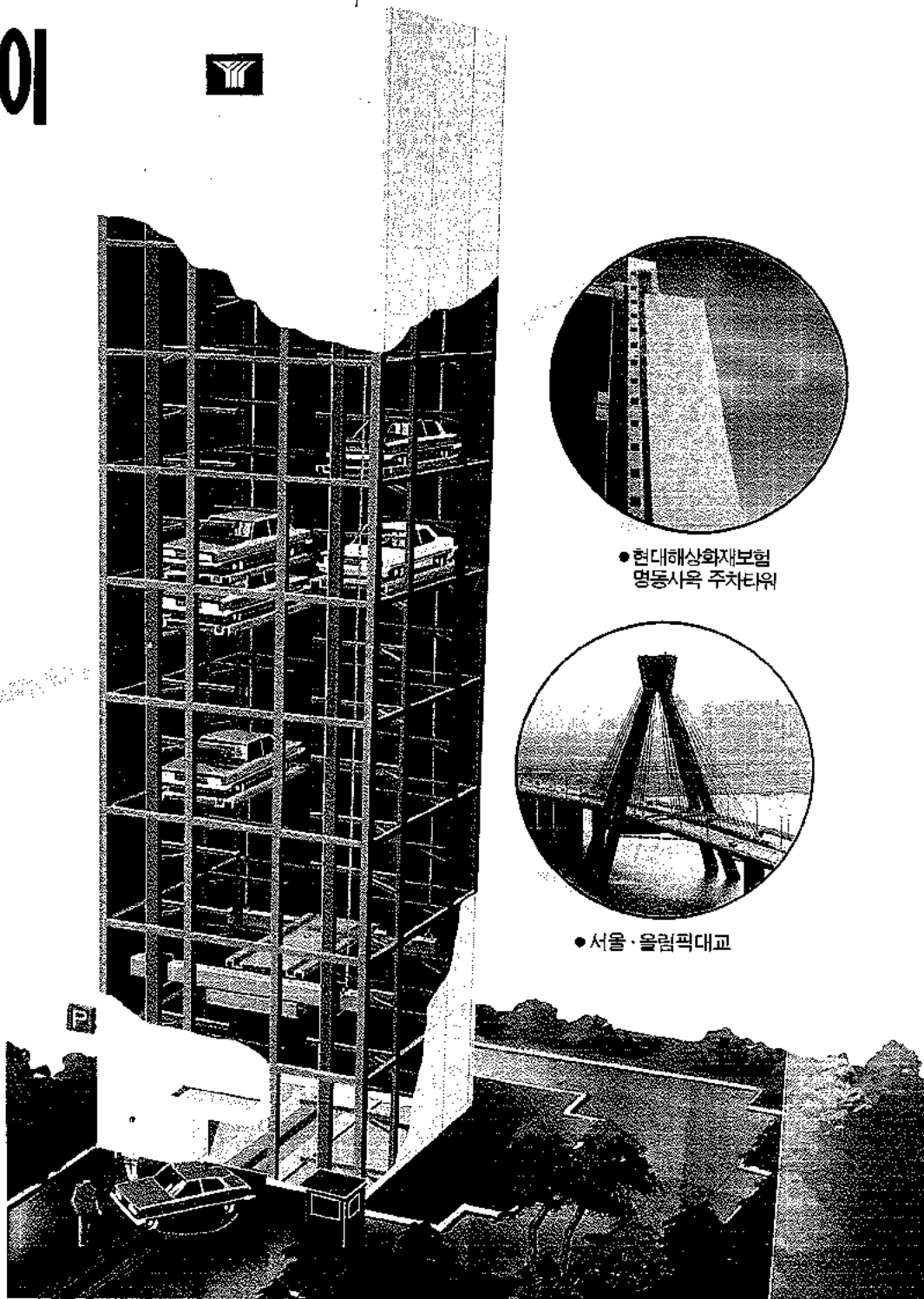


● 서울·올림픽대교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관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임으로 설치원가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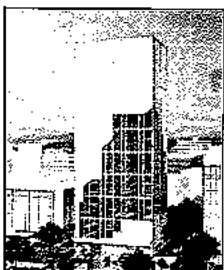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판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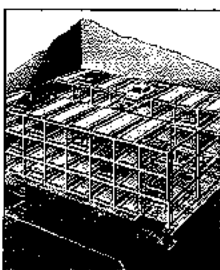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핑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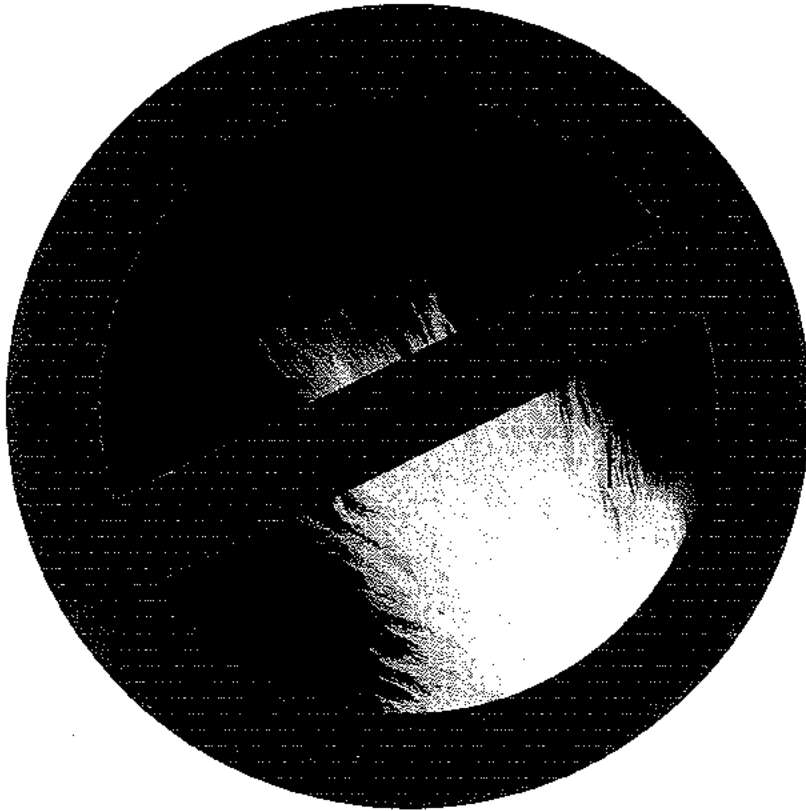
YOP-A 연립형



YOP-M형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INSU GLASS 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파넬 —
더욱 우수한 1급불연파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파넬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함은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을 극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옴의 진동을 원천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능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파넬의 3대 우수성

1. 우수한 불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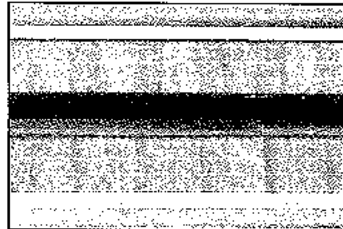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재가 KSF2271, BS476 Part4의 관련 규격에 의하여 1급 불연재로 인정받은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하므로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연파넬이며 내화 구조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명	최고사용온도
스치로폼	85℃
P. U. R	110℃
P. I. R	180℃
페놀폼	200℃
그라스울	350℃

(단열재의 화재안전도)

2. 우수한 견고성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재인 유리섬유의 결을 수직으로 세워 성형한 제품이므로 기존의 섬유결을 수평으로 성형한 제품보다 압축강도가 10배나 뛰어나 매우 견고하고 균일한 두께유지가 가능하며 박리현상을 완전방지합니다.



(인슈그라스울파넬의 단면구성)

3. 우수한 단열성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재가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로 되어 섬유결이 가늘고 균일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안전함은 물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우수하여 건물의 유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명	열 전 도 율
그라스울	0.029
스치로폼	0.0285
암면	0.053
발포 CONC.	0.15

(단열재의 열전도율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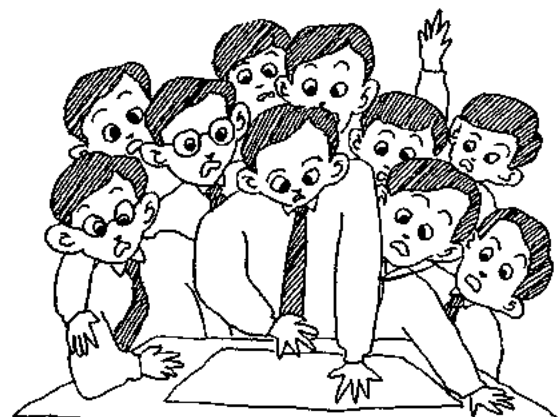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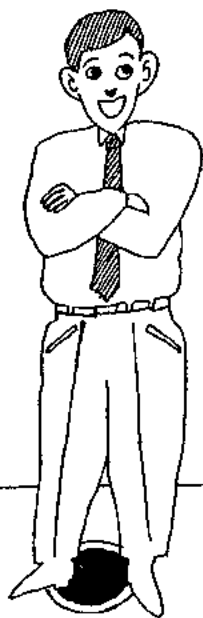
주식회사 인합인슈



본사및공장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림리 39-2
TEL : (02) 745-0687, (0336) 34-8880 FAX : (0336) 32-4243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02) 555-6891, FAX : (02) 553-1651

COST PLANNING 공사비? = 적산전문용역업체!

- 오로지 "積算"한 길로만 "성실과 자부심"으로 18년
- 향후 "積算士"제도의 정착을 위한 무단한 노력과 연구로 ENGINEERING의 축적에 역점
 - (1) 기술력 추구
 - (2) 업무의 전산화/MODULE화
 - (3) 공사비 산정에 따른 종합 CONSULTANT 관장



설계 내역서 작성

- 관공서 및 일반 건축주의 설계금액 산출과 설계변경, 공사완료시 청산작업의 써서비스

실행 예산서 작성

- 시공회사 및 건축주의 집행공사비 산출 및 DATA 써서비스 업무

JE (株) 現代 積算 엔지니어링

(本社) 서울·서초구 서초동 1503-15호
(양 우 빌딩 4층)
대표전화: 587-7 2 1 1
FAX: 587-6 8 6 5
(支社) 대구직할시 중구 산천3동 272-3
전화: (053) 751-6 7 5 4
FAX: (053) 751-6 7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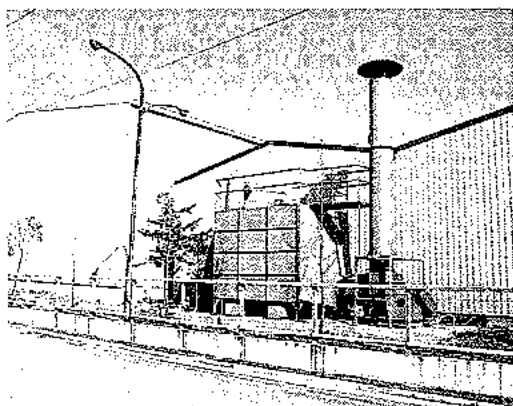
적산업무의 전산화

- 과거의 많은 인원과 시간의 소요를 전산에 의한 신속성과 정확성으로 전환

작업완료후의 A/S업무

- 관공서 및 발주처의 CHECK 업무대행 및 설계변경, 기타 청산작업의 써서비스 업무

조립식패널의 품질은 중간단열재가 결정합니다



최고급 난연·방수단열재 **아이오핑크**가 중간단열재로 사용되는 핑크월-그 명성에 걸맞는 품질로 조립식패널의 새로운 시대를 리드합니다.

핑크월은 세계 최고의 단열재 메이커인 미국 유씨 인터스트리(UCI)사의 진공 압출발포공법으로 생산하는 최고급 단열재인 아이소핑크를 중간 단열재로 사용하여 세계적 명성의 조립식패널 메이커인 네델란드 아이소월 인터내셔널 (ISOWALL INTERNATIONAL B.V.)사의 샌드위치 라미네이트 기술로 생산하는 고품질 조립식패널입니다.

핑크월의 특성

- ☐ 핑크월은 냉·난방비용을 대폭 절감해 줍니다.
- ☐ 핑크월은 견고한 구조강도에 비해 가볍습니다.
- ☐ 핑크월은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 ☐ 핑크월은 방수·방습·방음효과가 있습니다.
- ☐ 핑크월은 모든 면에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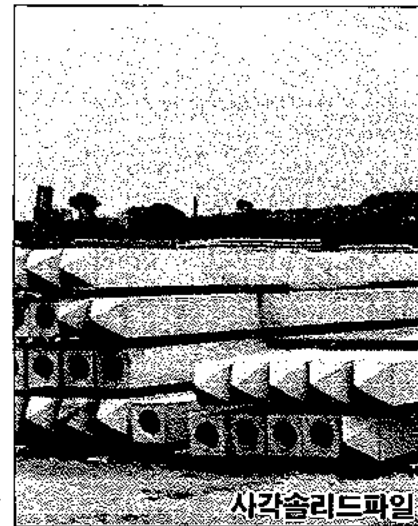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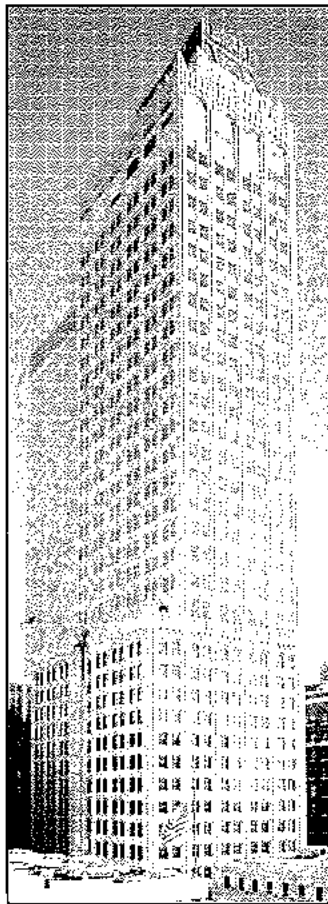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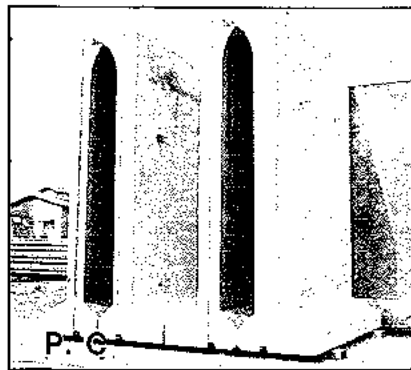


Panel System

G.R.C / P.C / 사각솔리드PILE

한국하이콘(주)는

조립식 건축자재(GRC, PC)를 생산하여 건설현장의 인력난 타개,
공기단축, 도시건축의 공간해결, 정부의 조립식 주택보급
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요생산제품

- GRC판넬
- TPC, GPC
- 조립주택 및 빌딩용판넬
- 4각 솔리드파일

한국하이콘(주)는 유럽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지력과 강도가 높은 4각 솔리드 PILE을
국내 처음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하이콘(주)는 PCI회원으로써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G.R.C 제품의 특징

- ▲ **유용성**: 파괴강도, 충격강도가 타제품의 추종을 불허하며, 표면재가 불연성 G.R.C로 내화성, 흡음성 및 방수, 방습이 완벽하여 균열이 발생치 않는 영구벽체입니다.
- ▲ **의장성**: 초경량이지만 콘크리트의 중후한 질감과 세련되고 그래픽한 미관 및 쾌적한 색채,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의장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 ▲ **시공성**: 조인트공법+조립식 Dry-Wall로 시공이 간편하여 공기의 단축, 공사비의 절감은 물론 깨끗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MEMBER

pci

PRESTRESSED
CONCRETE
INSTITUTE

韓國하이콘(株)

HILCON KOREA, LTD

☎ 02-554-9881

本社・工場: 忠南 禮山郡 鳳山面 花田里 山25-1

TEL. (0458)37-0508(代)

FAX. (0458)37-0507

☎ 02-554-9881

서울事務所: 서울 江南區 驛三洞 647 韓州빌딩 303호

TEL. (02)554-6981(代)

FAX. (02)554-9881

ARRIS

**A
R
R
I
S**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ur solutions are designed to help our customers improv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reduce their operational costs, and increase their revenue.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ur solutions are designed to help our customers improv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reduce their operational costs, and increase their reven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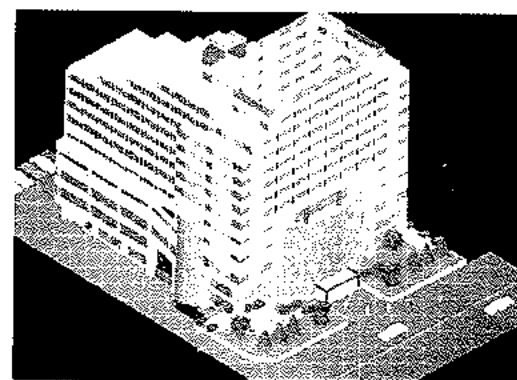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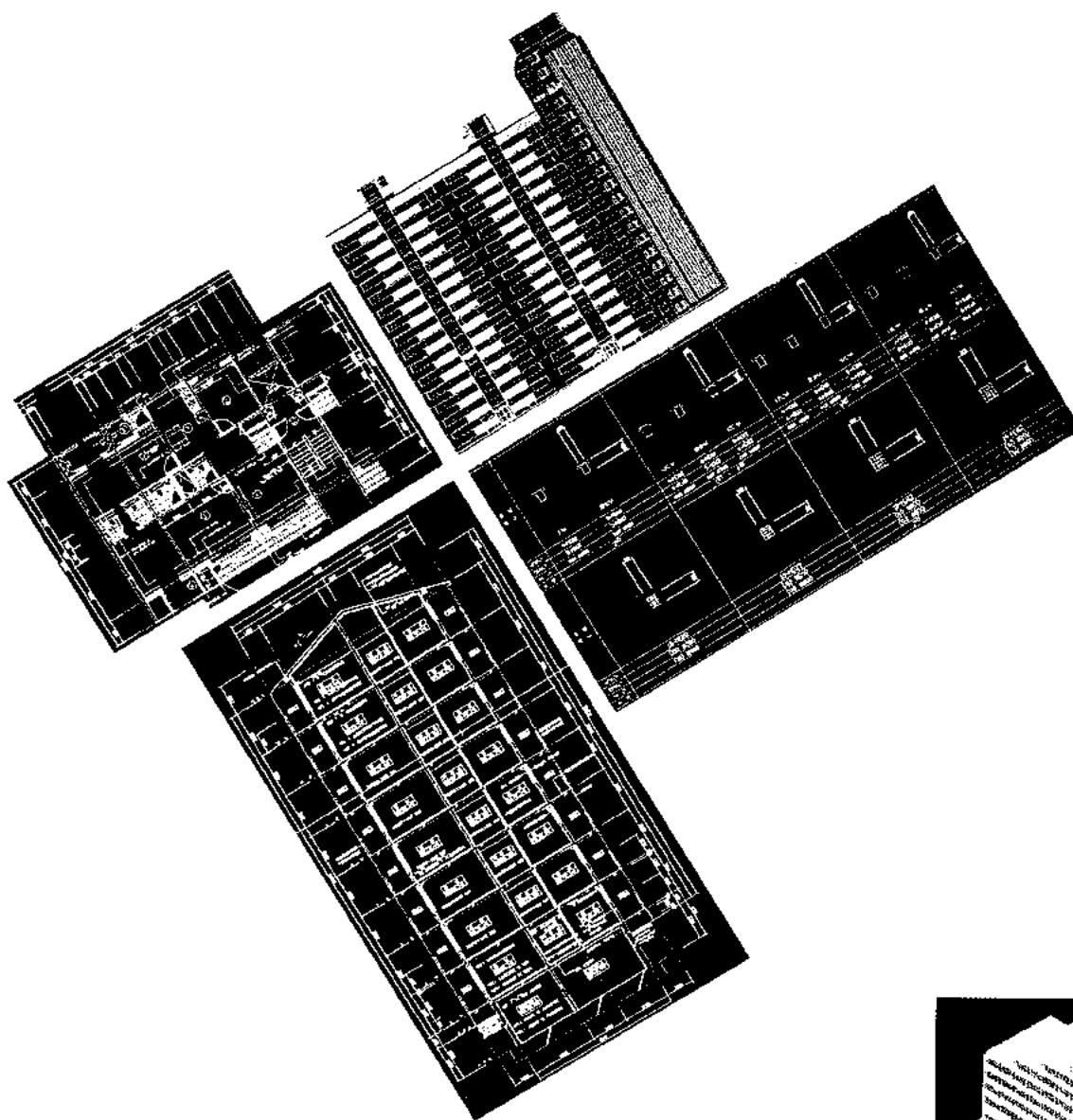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ur solutions are designed to help our customers improv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reduce their operational costs, and increase their revenue.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ur solutions are designed to help our customers improv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reduce their operational costs, and increase their revenue.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ur solutions are designed to help our customers improv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reduce their operational costs, and increase their revenue.

ARRIS

ARRIS는 미국 Sigma Design 사에서 개발한 "디자인 전용"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으로서, 그 적용분야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산업미술 등이며, Drafting 뿐만 아니라 Design 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CAD 시스템으로 특히 완벽한 3-D (입체적 표현) 및 무한한 COLOR와 빛의 Simulation이 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가장 강력한 최신 CAD 시스템입니다.



SIGMA DESIGN

(株) 시그마디자인코리아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5호

방배역 B/D (동서중권) 5층

TEL : (02) 523-8871 (代)

FAX : (02) 523-8874



- ARRIS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하실때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가 새로개발한 한글단 선체, 한글복 선체, 디테일을 드립니다.
- 1992년 1월 1일부터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焼結石이 호흡한다. 국내 최초의 신건축 소재 "BIO-HAPPY STONE"

삼화화성 30년 기술과
일본 CLAY BURN CERAMICS 신기술의 만남
"BIO-HAPPY STONE" 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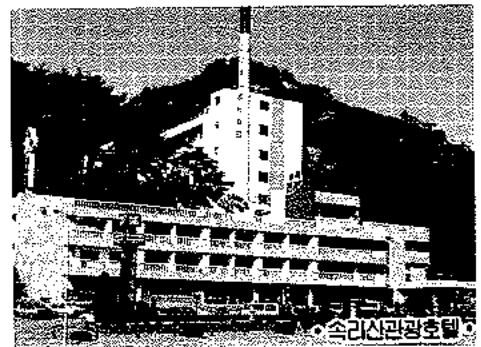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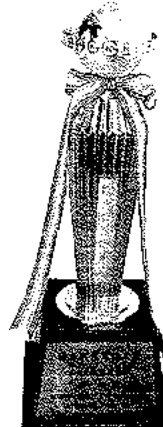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종합 염기성 내화물 제조업체인 삼화화성이 30년 축적된 기술과 오랜 경험으로
'91 우수 KS업체 대상 수상과 함께 국내 최초로 건축 내외장 마감재인 소결석 "BIO-HAPPY STONE"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세계의 언어인 신기술과 IE 추진 강화로 2000년대 최고기업으로 도달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Bio Happy Stone 은 제품 자체에서 발생되는 바이오성분에
의하여 공기중의 유해질을 정화시키고 모든
생물의 생체리듬을 활성화시켜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 3가지 자유권

- 1.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택의 폭이 넓어 자연스럽고 건축물의 고급화를 주도합니다.
- 2. 뛰어난 가공성**
1,200℃ 이상에서 소성한 불연제품의 수축, 팽창이 없으며 가벼우며 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단, 구멍 뚫기 등 가공이 편리합니다.
- 3. 대형고급 도판**
건축 내·외장 및 바닥에 시공되는 BIO-HAPPY STONE은 600×900mm×25, 600×600mm×25로 공공건물, 오피스 호텔, 레스토랑, 갤러리, 박물관 등 어디서나 건물의 웅장함과 품격을 한층 더 세련되게 합니다.



—삼화화성 '91우수 KS업체 대상 수상—



三華化成株式會社
SAMHWA CHEMICAL CO., LTD.

본사·공장: 경북 포항시 청림동 1-143 TEL.(0562) 72-2051~3, 80-0114
FAX 72-8033 / 서울총판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89-22(국제조명빌딩 2층) TEL.(02) 516-7772~4, FAX 516-7775

'92한국건축전 작품공모

■ 개최시기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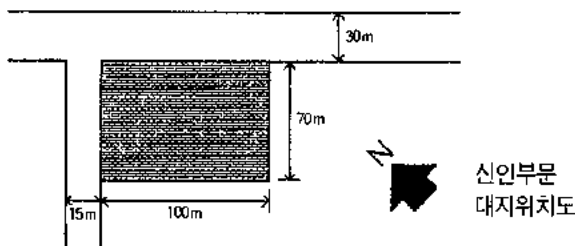
- 1992년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개최
- 1992년 4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주요도시 순회 전시 예정

■ 출품자격

- ◆ 건축사부문 : 1992년 2월 현재 개업 건축사
- ◇ 신인부문 : 입선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건축전공 대학원 재학생
- ◇ 학생부문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전문대학 졸업후 2년이내인 자도 응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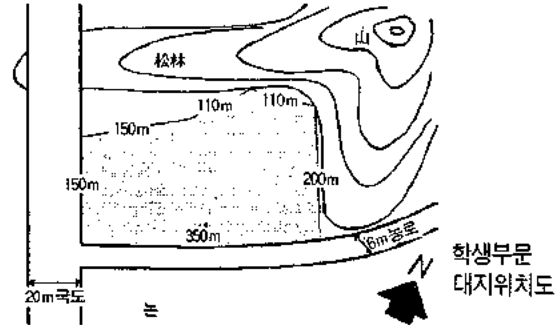
■ 출품내용

- ◆ 건축사부문
 - '89년~'92년 2월 중 준공된 작품으로서 준공검사를 필한 작품
- ◇ 신인부문
 - 1) 주제 : 지역문화회관(Community Center)
 - 2) 대지조건 : 주거지역 7,000㎡
 - 3) 개요 : 인구 20만 단위의 지역문화공간 및 교육복지시설을 주 기능으로 하는 Community Center로서 지방자치제 활성화에 대비한 지역주민들 생활의 중심지로 계획함(구민회관 or 군민회관 성격)
 - ① 연면적 7,000㎡내외
 - ② 4층 이내
 - ③ 700석 규모의 강당 및 기타시설
 - ④ 주차장은 옥외로 계획할 것
 - 4) 주요기능 : 강당, 회의실, 전시실, 강습실, 체육실, 독서실, 식당 등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되 作家의 의지에 따라 특성에 맞추어 Program을 적의 조정할 것
 - 5) 특기사항 : 현행 건축관계 법규에 맞추어 계획할 것



◇ 학생부문

- 1) 주제 : 청소년 수련회관(Youth Center)
- 2) 대지조건 : 국립공원내 청소년 위락단지 약 60,000㎡
- 3) 개요 : 국립공원내 청소년 위락단지시설로서 MT또는 복합수련용
 - ① 연면적 5,000㎡ 내외
 - ② 4층이내
 - ③ 500명 수용 규모의 숙박시설 및 부대 수련시설
- 4) 주요기능 : 강당(500석 수용능력의 다목적 홀), 숙소(4~16인용 침실), 식당 공동 세면장 및 목욕탕, 교실(분임토의실), 회의실 등을 기본으로 하되 Program을 적의 조정할 것



■ 응모신청 및 작품접수 마감

- 건축사부문 : 1992년 3월20일(금)
- 본 협회 출판사업부
- 신인·학생부문 : 1992년 3월30일(월)
- 17:00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
- ※응모신청시 신분증 필히 지참, 마감시간 엄수

■ 탈락작품반환 : 1992. 4.2(목) 10:00~17:00

■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 ◆ 건축사부문 : 90cm×90cm이내의 규격 패널 2~4매
- ◇ 신인·학생부문 : 120cm×120cm 규격 패널 1매 및 80cm×80cm 이내의 모형 1점
(작품접수시 200자 원고지 3매 분량의 간략한 작품설명서 첨부)

■ 출품규정

- 동일작품의 작가 명의로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신인·학생부문)
- 패널 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재료의 사용은 금지할 것.
- 규격을 위반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신인·학생부문)

■ 시상

- ◆ 건축사부문
 - * '92한국건축대상(▷) : 상장 및 트로피
- ◇ 신인부문
 - * 최우수상(1) : 상금 300만원 및 별도 해외건축연수 경비 200만원 보조, 상장
 - * 우수상(1) :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 장려상(3)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 학생부문
 - * 최우수상(1) : 상금 300만원 및 상장(ARCASIA 학생챔버리 파견특권 부여)
 - * 우수상(2) : 상금 150만원 및 상장
 - * 장려상(10) : 상금 50만 및 상장
 - * 시도건축사회 회장상(다수) : 상금 30만원 및 상장

■ 문의

大韓建築士協會 出版事業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581-5711~4

차례/1992년 2월호 통권 제274호

건물소개	일신방직사옥 / (주)원도시건축	20
	레투르바이오 - II / 崔勝元	24
	관가정 호텔, 해운대 / 柳光弘	28
	창원시 의원회관 / (주)정림건축	32
	송도성당 / 金仲燮	36
	신소재 공동연구소 / 公日坤 + 文炳國	40
	삼성동 주택 / 尹柱憲	42
	성북동 K씨 주택 / 承孝相	46
논의	S빌딩 계획안 / 吳基守	48
건축사 회계 제도	건축사 현장 / 宋洙九	50
특	영종도 국제공항 현상설계공모에 바란다. / 金正澈	52
	영종도 국제공항 현상설계공모에 바란다. / 金知德	54
연구	구조안전진단 감상 / 李昌男	56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 (또는 제한)을 위한 개선 방안 / 金海鎔	59
연구	노년층의 주거연속체와 공동체형성 (2) / 朴泰煥	62
	구마모또 (熊本) 아트플리스 / 金文德	72
연구	강남구민회관 및 구의회청사	80
연구	건축사사무소의 CAD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8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94
	1991년 1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96
연구		98

發行人: 吳雲東

編輯企劃: 編輯委員會

委員長: 李義求

委員: 徐千植, 李瓚榮, 金文圭, 崔榮集,
宋洙九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1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Eui-Koo

Member: Suh, Chun-Sik/ Rhee, Chan-Young/
Kim, Moon-Kyu/Choi, Young-Jeep/Song, Soo-Koo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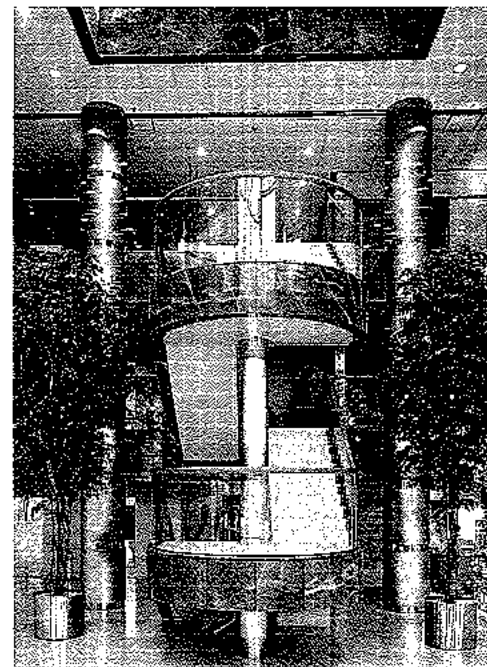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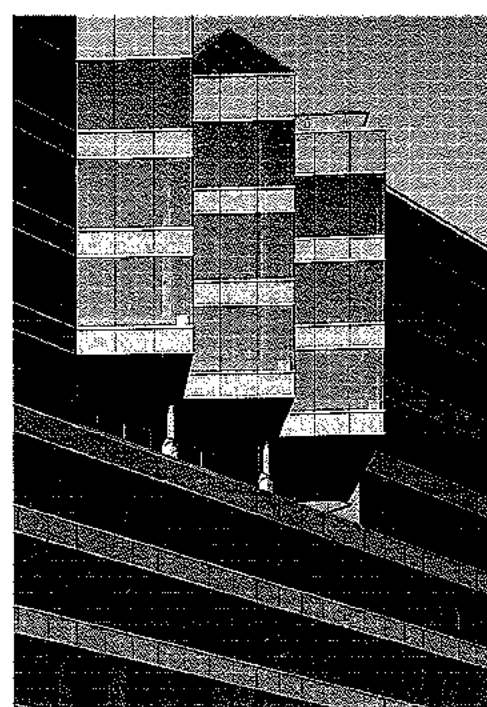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 (Cheong Moon Printing Co.)

표지: 「일신방직사옥」
설계: (주)원도시건축

CONTENTS VOL. 274. FEBRUARY 1992

<i>Ilshin Spinning Co. / Archiban Group</i>	20
<i>Les Trouyalls - II / Choi, Seung - Won</i>	22
<i>Kwangajung Hotel, Haewoondae / Ryu, Kwang - Hong</i>	24
<i>Changwon City Assembly Hall /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i>	28
<i>Songdo Catholic Church / Kim, Joong - Sub</i>	32
<i>New Material Research Institute /</i>	
<i>Kong, Il - Kon & Moon, Byung - Kook</i>	36
<i>Samsung - dong Residence / Yoon, Joo - Hun</i>	40
<i>Sungbuk - dong Residence / Seung, Hchloh - Sang</i>	42
<i>S Building Project / Oh, Kee - Soo</i>	48
<i>The Architect's Charter / Song, Soo - Koo</i>	50
<i>The Opnion of Youngjong - do International</i>	
<i>Airport Architeetural Design Competition Project /</i>	
<i>Kim, Jung - Cheol</i>	52
<i>Kim, Chi - Tok</i>	54
<i>Description of Structual Security Examination /</i>	
<i>Lee, Chang - Nam</i>	56
<i>Betterment Scheme of the Building Law / Kim, Hea Jeon</i>	59
<i>Housing Continuum for The Elderly and Formation of</i>	
<i>Retirement Community / Park, Tae - Whan</i>	62
<i>Kumamoto Artpolice / Kim, Moon - Duck</i>	72
<i>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for</i>	
<i>Kangnam - Gu Inhabitants Hall and Assembly</i>	80
	88
	94
	96
	98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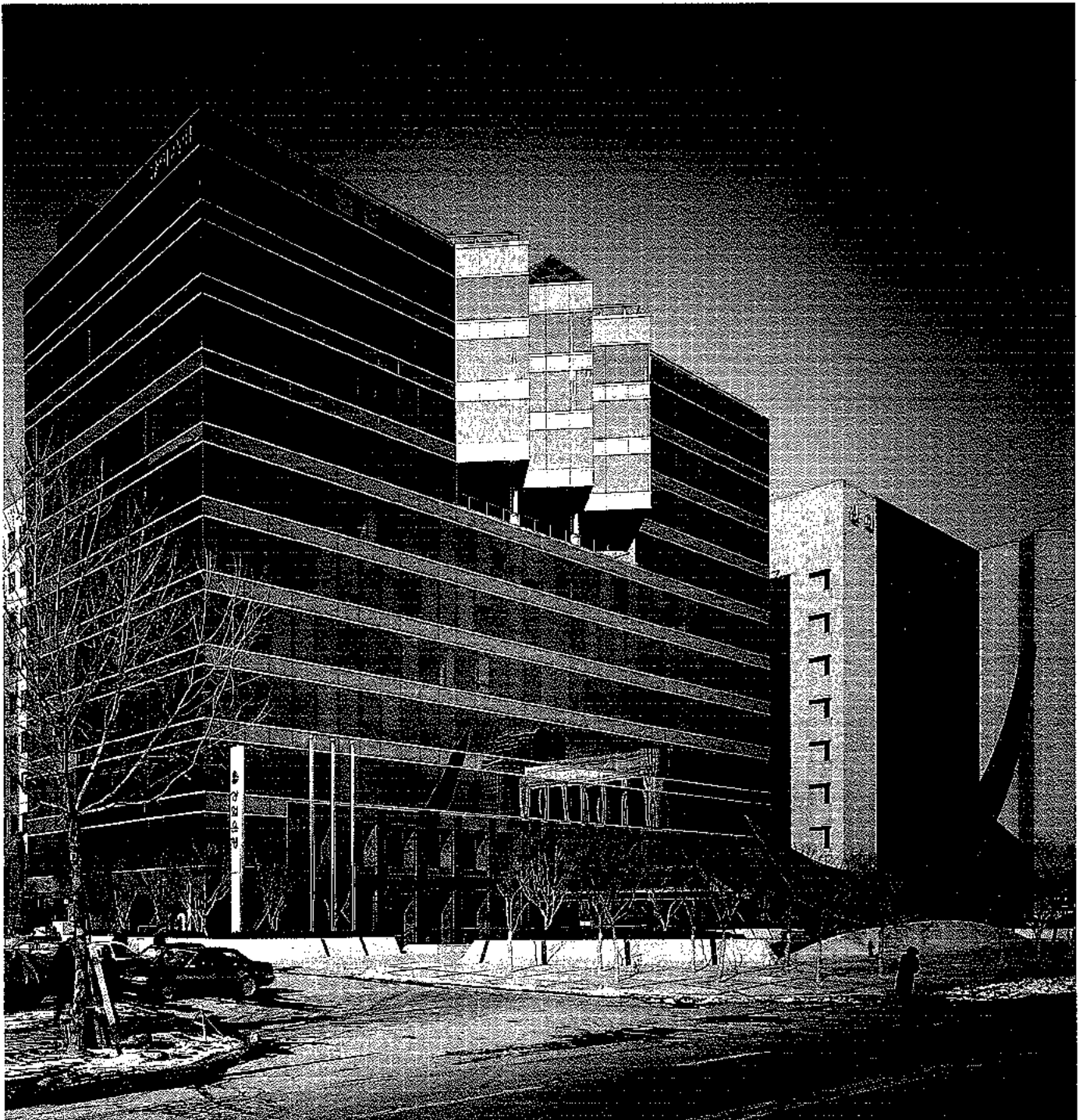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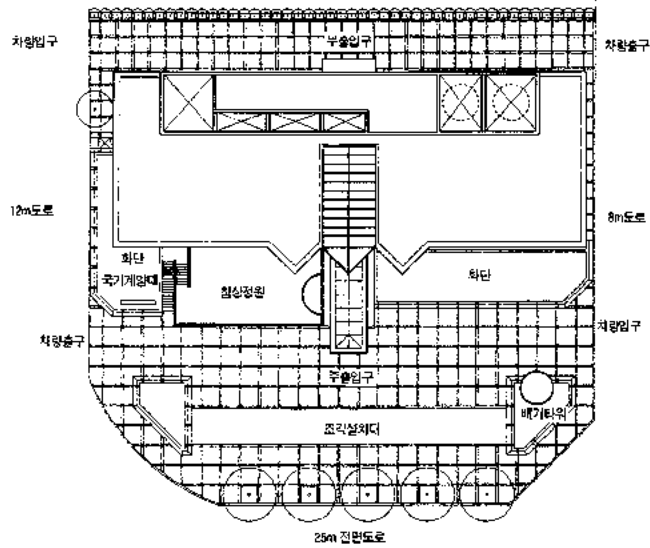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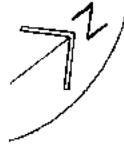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 강동분회/강동구상대동317-4, 484-6840 ·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중로분회/중로구수성동46-18, 735-0905 · 마포분회/마포구삼산동275-1, 336-5057 · 송파분회/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회/중구로2가49-11, 279-1415 · 용산분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 은평분회/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242-30, 511-8515 ·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 양천분회/양천구산정동1027-9, 646-7172 · 중랑분회/중랑구면목동166-46, 923-6123 · 성북분회/성북구삼전5가410, 923-4401 ·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711(부산대파드네)(051)246-6284~7 ■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벌어동3711-8, (053)753-896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FAX)529-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67-1,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7-6129~30 · 과천분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3-6662, 7072 ·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 부천분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대평동3407, (0342)755-5445 · 의정부분회/의정부시의정부동182, (0331)2-1083 · 송탄분회/송탄시서장동343-22, (0333)4-6153 · 고양분회/고양군현암읍주교38로16번지, (0344)63-8902 · 구리분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 이천분회/이천군이천읍중리192-1, (0336)635-6545 · 광명분회/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회/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54-2442 ·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60-54, (0371)42-4287 · 강릉분회/강릉시성내동6-14(039)12-2262 · 속초분회/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6 ·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월1리960-12, (0372)43-2695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18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회/충주시여천동673-1, (0441)847-3082 · 제천분회/제천시시림동8-8, (0443)43-6253 · 옥천분회/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487-1, (042)256-4068 · 천안분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소관리239-1, (0451)32-2755 ·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2-2217 · 대천분회/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전라북도전주시시내동635-5(대륜 빌딩 508), (0652)87-6007~8 · 이리분회/이리시남동1가177-22, (0653)52-3304 · 군산분회/군산시신창동35-4, (0654)445-4060 · 남원분회/남원시하정동106-2, (0671)31-1000 ■ 전라남도건축사회/전라남도광주시서구화정동783-23(추선회관)(062)384-7567, 33-9944 ·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1, (0631)43-3348 · 순천분회/순천시장천동51-11(0661)3-2457 · 여수분회/여수시관문동41번지, (0662)6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1285번지, (053)425-4904 · 포항분회/포항시죽도동43-8, (0562)44-6029, 46-1664 · 경주분회/경주시동천동771-4(0561)3-3638 · 구미분회/구미시원평동964-264, (0546)52-6351, 52-7547 ·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회/김천시평화동280-1, (0547)2-2541 · 영주분회/영주시유천동2동642-52, (0572)33-7504 · 정선분회/정선시중앙동280-3, (0581)2-2706, 52-2286 · 상주분회/상주시남성동36-23, (0582)2-4306 32-3232 ■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가3-47, (0551)46-4530~1 ·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336 · 진주분회/진주시본성동7-20, (0591)41-6403 · 울무분회/울무시서호동163-18, (0557)44-3232 · 김해분회/김해시부원동611-1, (0525)335-5682 · 밀양분회/밀양시내일동392-1, (0527)355-4848 ·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68)43-6090 · 양산분회/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50 · 거제분회/거제군 신원읍고현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삼천포시동명동91-6,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52-3246 ·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포동299-6, (064)62-2233

일신방직사옥

Ilshin Spinning Co.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Designed by Archiban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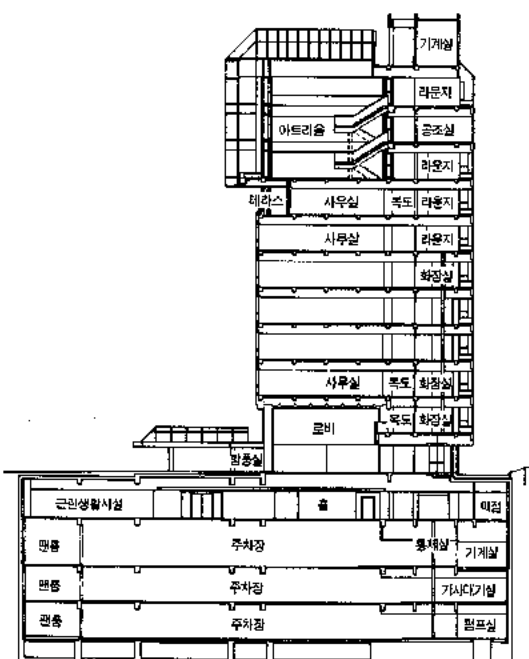
WORKS



주차대수/ 123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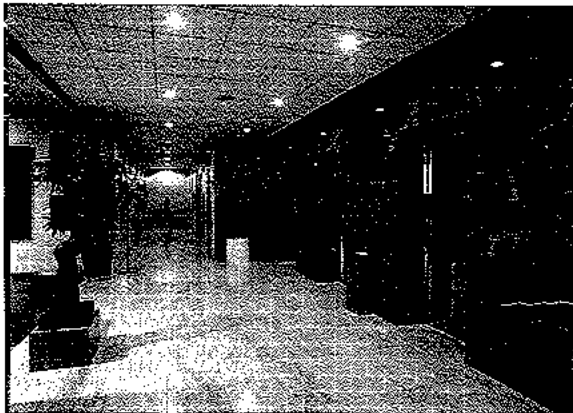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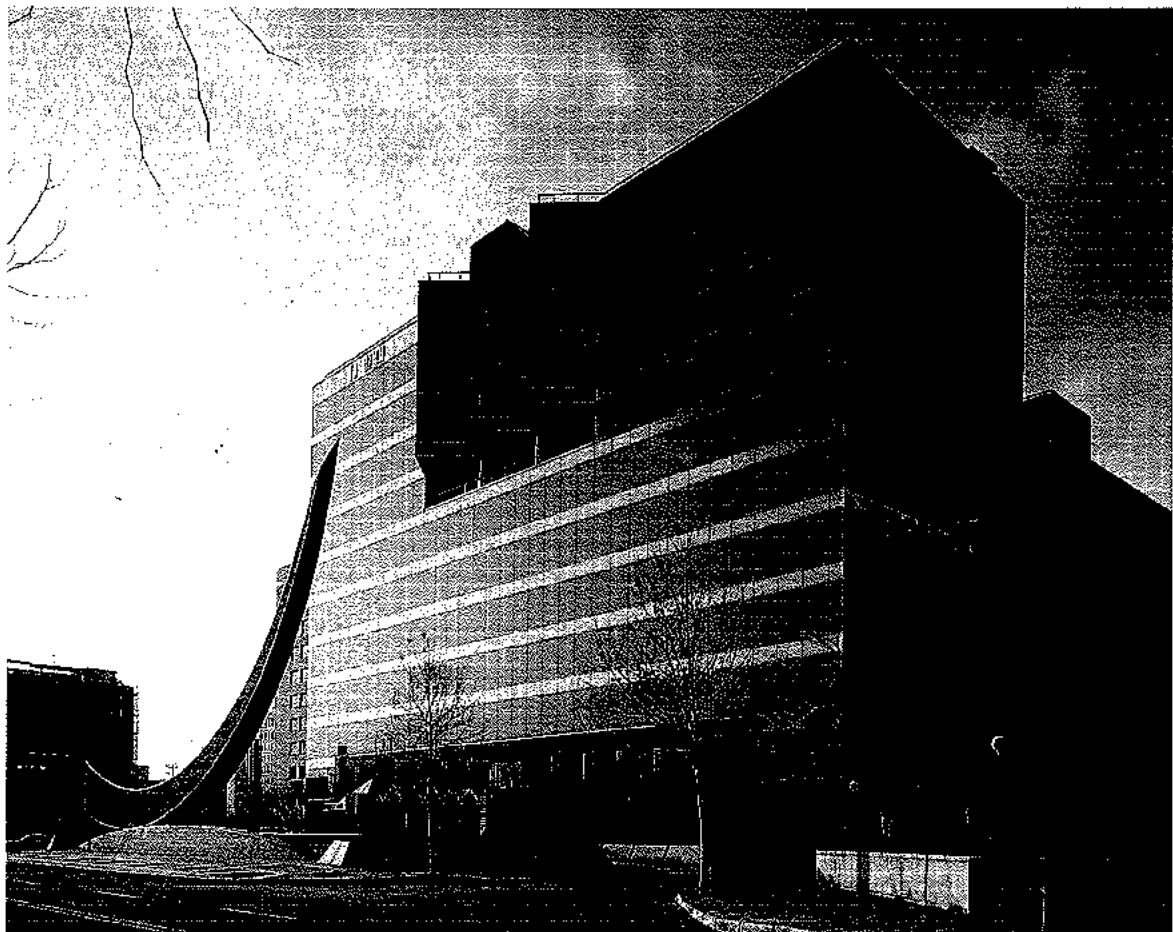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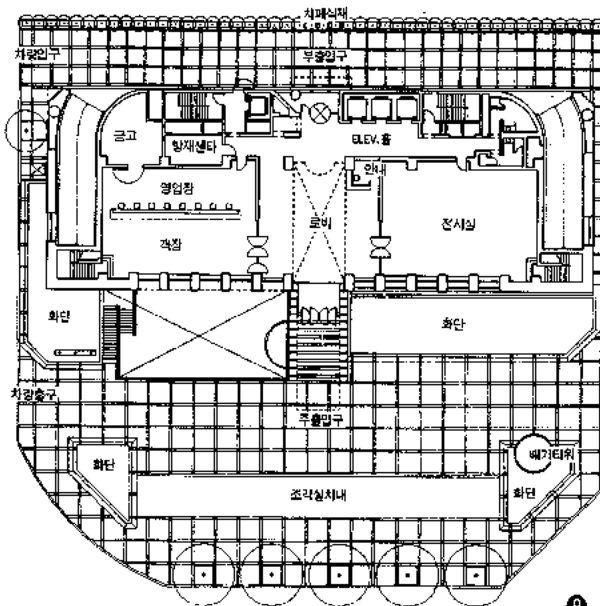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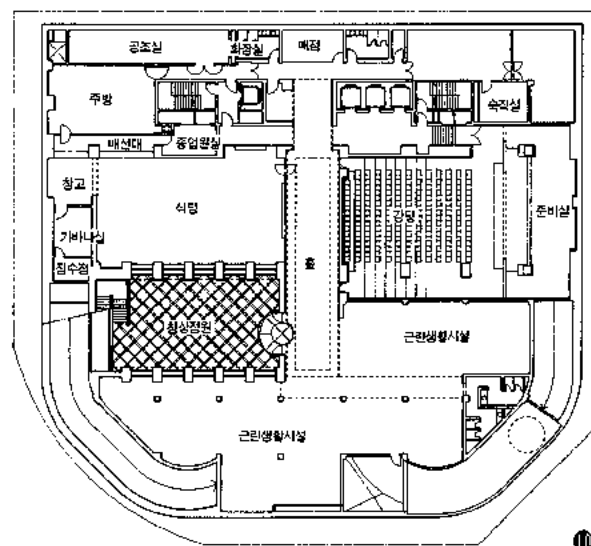
- ① 배치도
- ② 전경
- ③ 11층 갤러리
- ④ 단면도
- ⑤ 지하 1층 정원
- ⑥ 8층 아트트리움에서 본 갤러리
- ⑦ 1층 로비에서 본 홀
- ⑧ 전경
- ⑨ 1층 평면도
- ⑩ 지하 1층 평면도
- ⑪ 2층 평면도
- ⑫ 8층 평면도
- ⑬ 기준층(3~7) 평면도
- ⑭ 10층 평면도
- ⑮ 8층 평면도
- ⑯ 11층 평면도
- ⑰ 11층 갤러리에서 본 아트트리움
- ⑱ 외벽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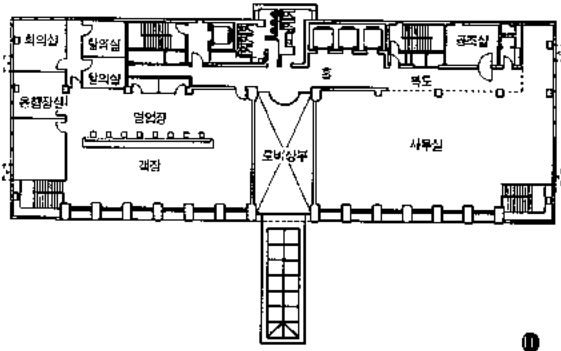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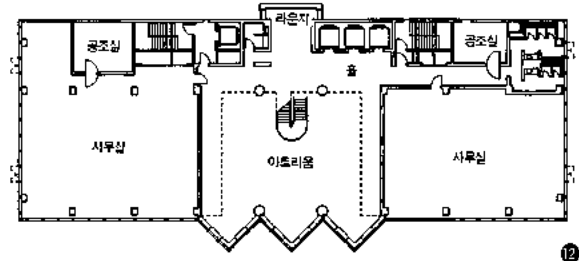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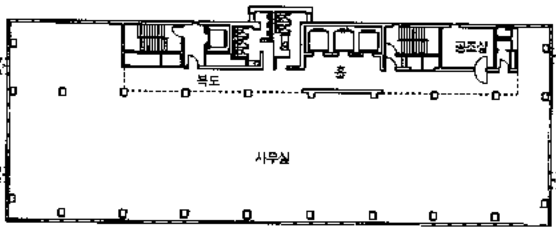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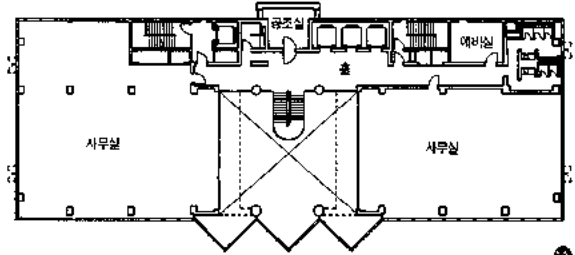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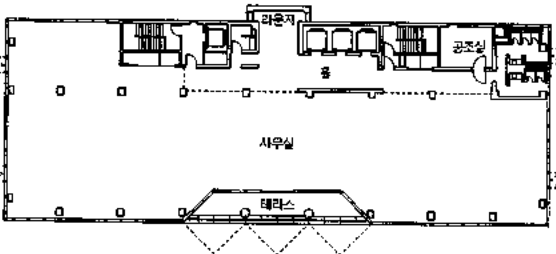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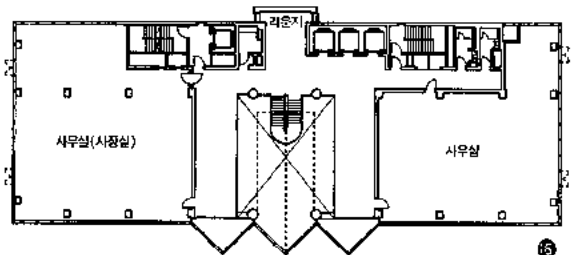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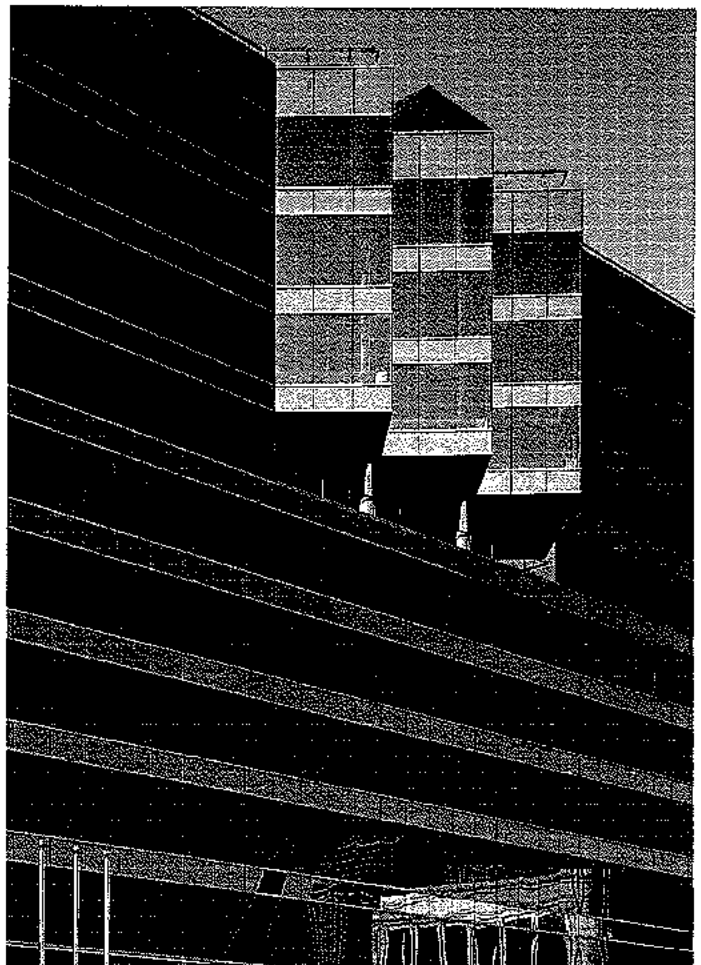
15



16



17



18

레투르바이르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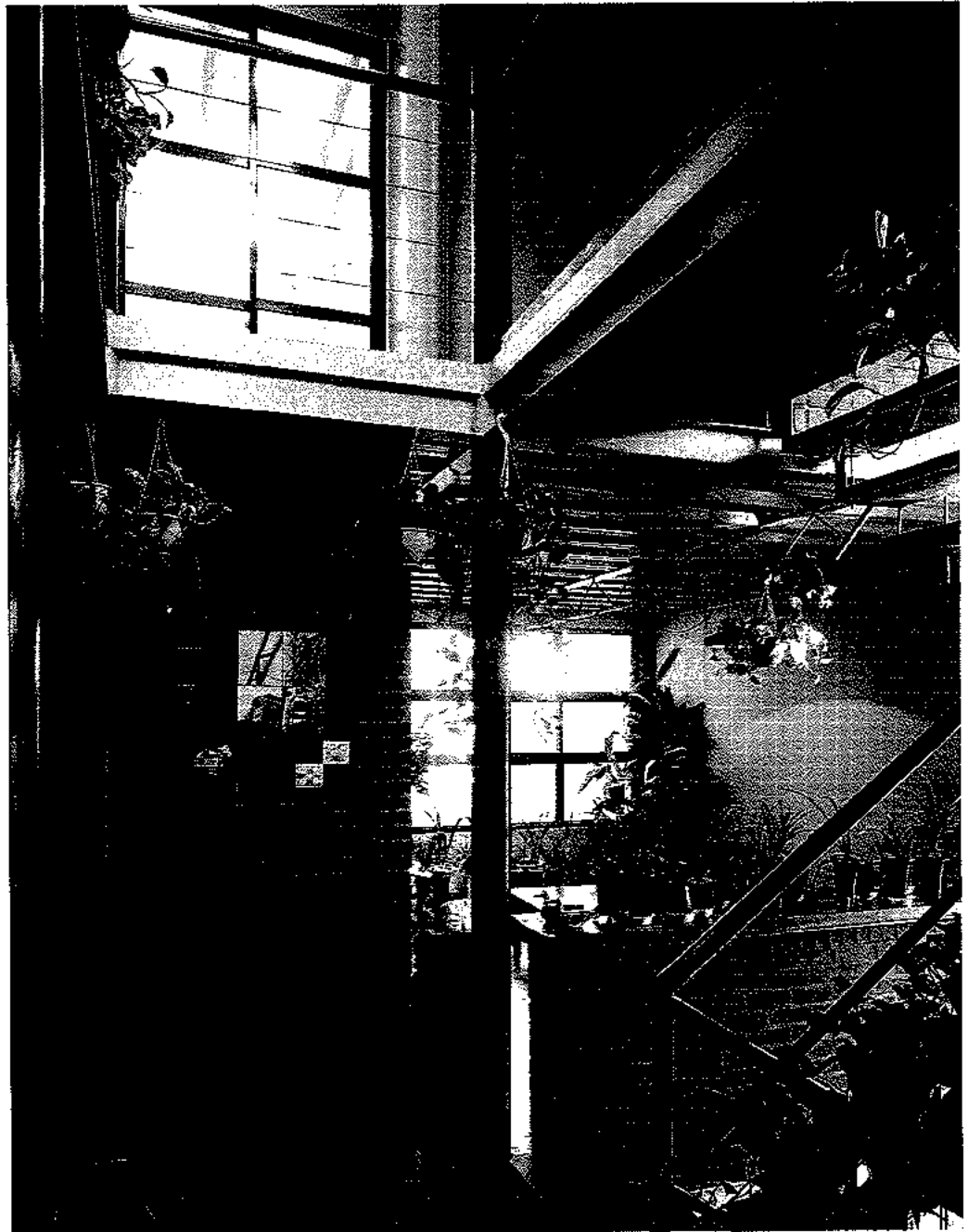
Les Trouyalls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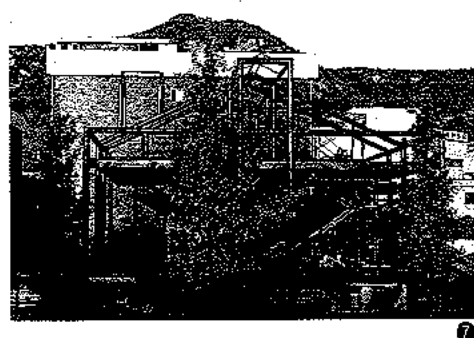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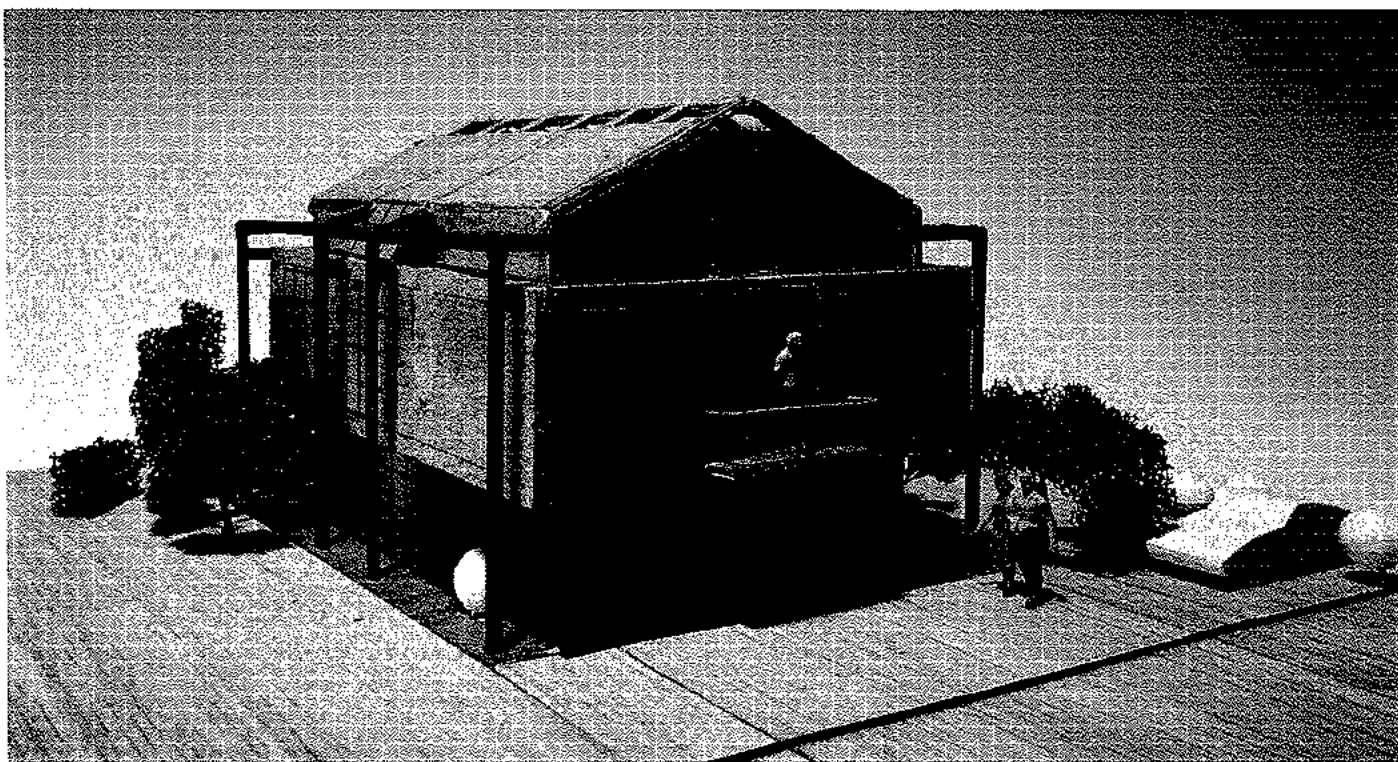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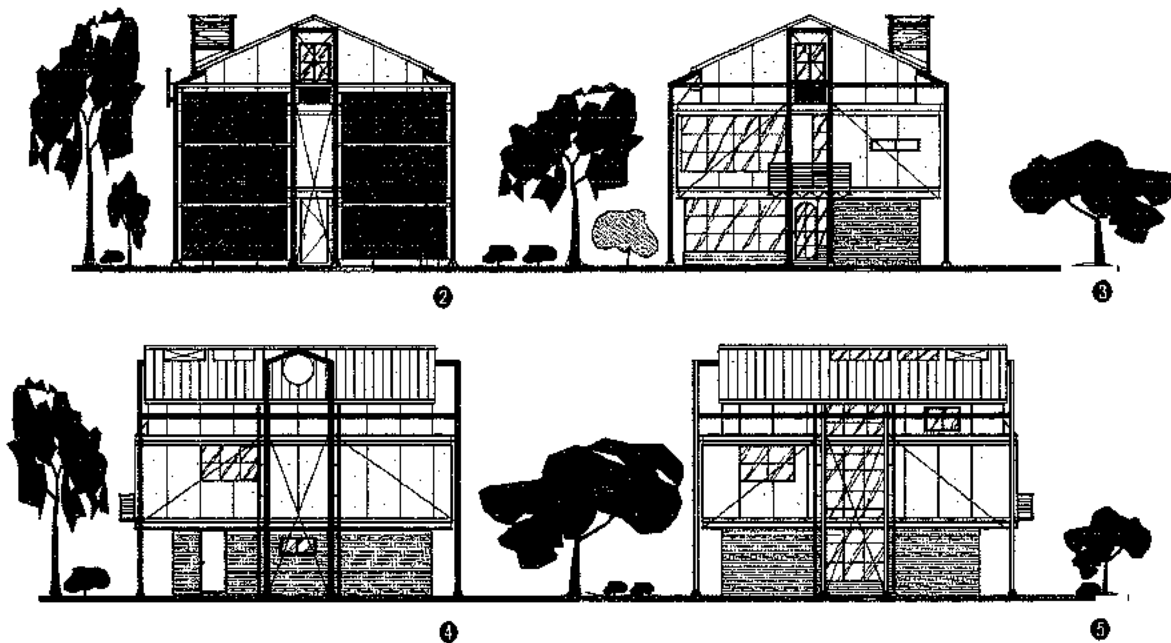
WORKS

崔勝元 / 양가주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Seung-Won

■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대지면적/ 152m²
건축면적/ 88m²
연면적/ 181m²
건폐율/ 58%
용적률/ 102%
구조/ 경량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외장재료/ 샌드위치 패널, 경량철골





대지는 비교적 작은대지이고 서측에 어린이공원이 있으며 공원에는 스틸파이프로 만든 놀이 기구가 산재되어 있는 환경이다.(동측에는 파이프 판매점)

건축이 건축중 주변에 공해를 줄여줄 수 있고 적은인력으로 건축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디자인이다. 구조는 경량철골구조로 조립되어 있고 거실은 부분적으로 바닥이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1층 보다는 2층이 주변공기가 깨끗하다고 보므로 중요거실은 2층에 배치되어 있고 욕실은 조립식으로 시공되어 있다.

벽돌을 쌓고 시멘트 몰탈을 바르는 일은 많은 먼지로 주변을 괴롭히지만 열보관문제로 내부에 적벽돌을 사용하였다. 적벽돌은 세

디자인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추가로 한다. 실내마감은 주로 재료의 계맛을 낼 수 있는 노출형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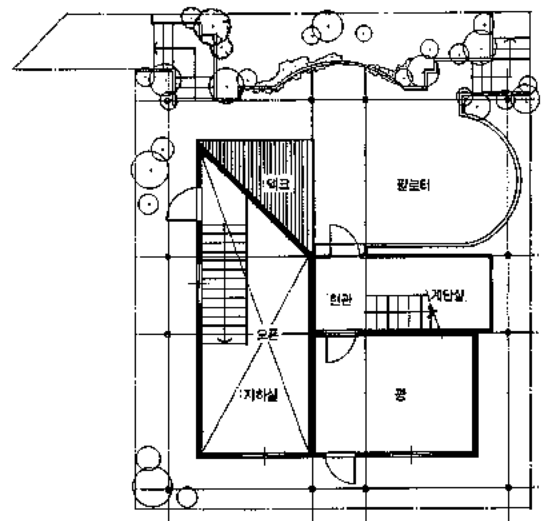
이 집은 시원하고 따뜻하며 식물이 잘자란다. 이집 자녀들이 매우 즐거워하며, 실용적이고 그 나름대로 여러방문객의 사랑을 받고있다.

- 칼라는 동양에서 쓰이는 5색의 일부(녹색사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 1층은 피로티로 뜰을 확보함
- 지붕으로 빛이 들어오게 하다.
- 저렴건축 (Low-Cost)이다. (1990. 12월기준 평당 1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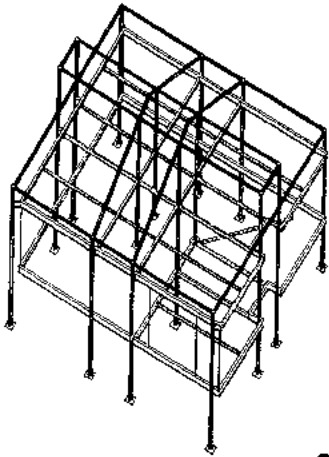


8

- ① 내부전경
- ② 배면도
- ③ 정면도
- ④ 우측면도
- ⑤ 좌측면도
- ⑥ 모형전경
- ⑦ 조립된 경량철골구조
- ⑧ 올라다 본 내부
- ⑨ 1층 평면 및 배치도
- ⑩ 가구도
- ⑪ 외부 상세
- ⑫ 다락 평면도
- ⑬ 2층 평면도
- ⑭ 내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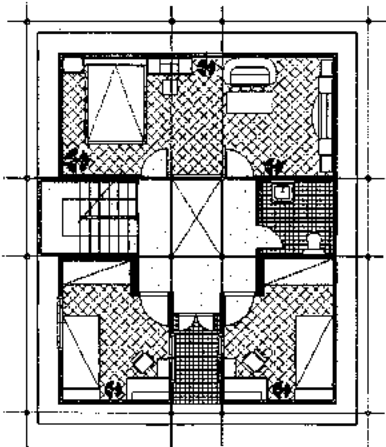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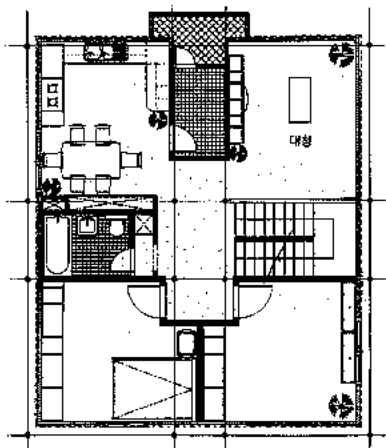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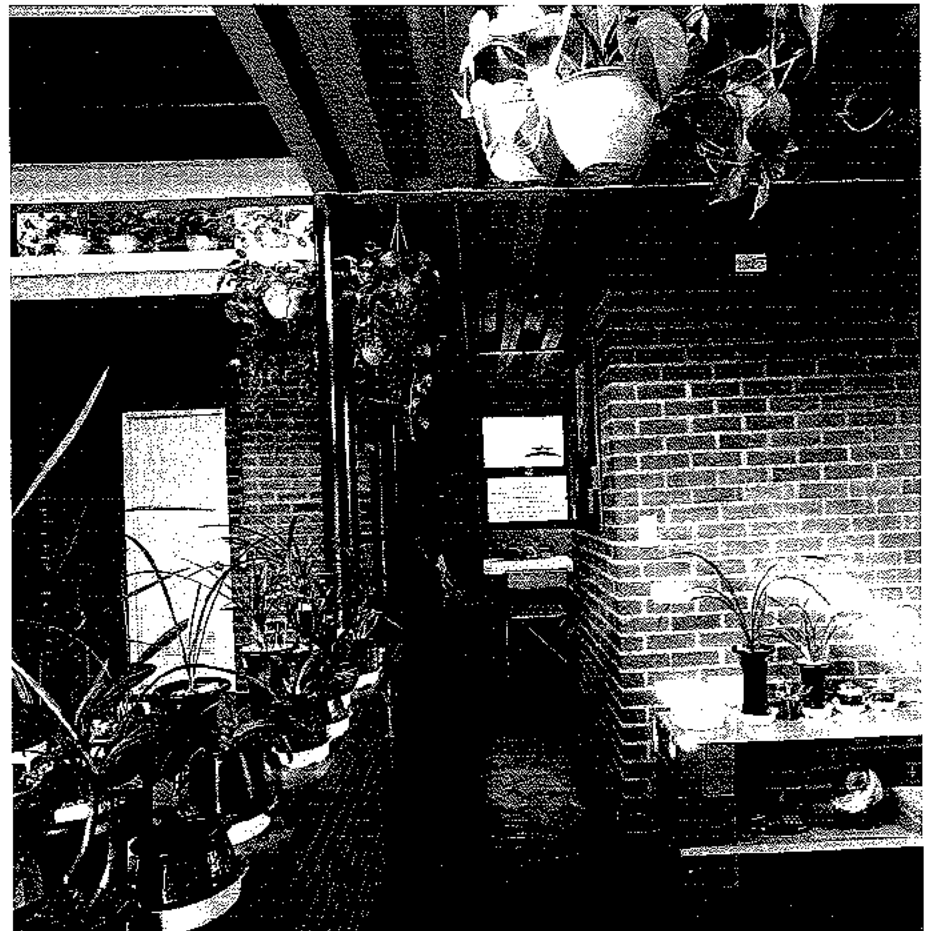
11



12



13



14

관가정 호텔, 해운대

Kwangajung Hotel, Haewoond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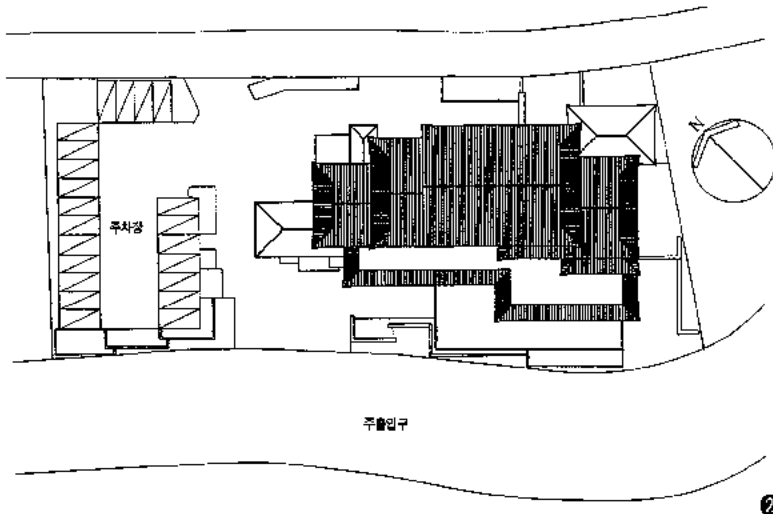
WORKS

柳光弘 /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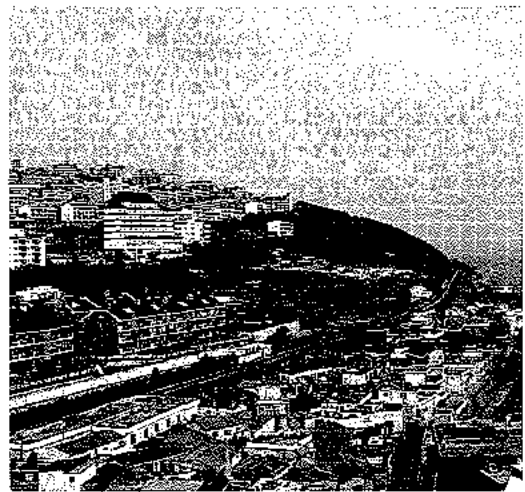
Designed by Ryu, Kwang-Hong

■
대지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509-2
지역지구/ 주거지역, 미관지구
건축면적/ 893.58m²
연면적/ 5,848.78m²
대지면적/ 3,145.80m²
건폐율/ 28.41%
용적률/ 144.0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상 8층, 지하 1층
외부미감/ 회반죽 바르기, 풍산 동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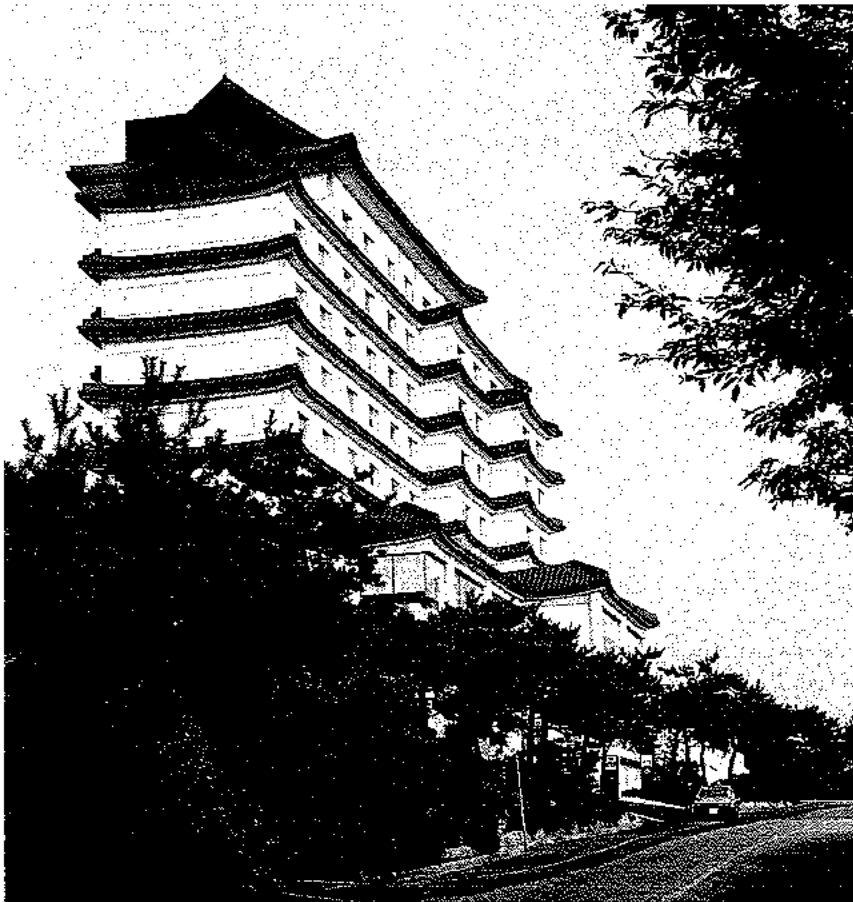




2



3



4



6

해운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위에 조망이 아주 좋은 경사진 위치에 도로와 평행하게 본 건물을 배치하여 모든 객실과 시설에서 바다의 경관을 보게하며, 부속건물로서 한옥을 두었으나 이웃주민들의 반대로 본건물만으로 완성을 보아야 했었다.

이곳은 특급 호텔들의 계속적인 신축과 신사가지의 조성등으로 날로 변모하는 해운대에서 소규모의 호텔인 점을 감안하여 특성을 갖고져 전통성 의미를 갖춘 시설이어야 한다고 가능성을 확인하고 계획하였다.

온돌 객실만 고집하였고 내부는 퇴마루를 현대화 하였고 창호지 창과 외부빛을 차단하는 벽장문으로 커튼을 대신 하였으며 한국적인 가구와 침구일 것이라 계획하였다.

외벽에는 콘크리트 웅벽위에 화강석을 이용하여 가구식 구조를 표현하고 그 사이에 회벽을 발라 지붕의 동기와가 세월이 지날수록 조화되는 칼라는 더욱 안정된 분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호텔 건축물에 전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온돌과 처마와 지붕이 꼭 있어야 하는가.....

보다 현대적으로 승화된 건물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은가.....

건물의 내부나 기타의 장식과 부분적인 표현으로는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나 원점으로 맴돌기만 하였었다.

- ① 외부 상세
- ② 배치도
- ③ 원경
- ④ 도로에서 본 측면전경
- ⑤ 주출입구측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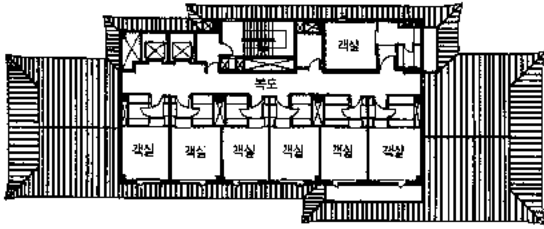
- ④ 1층 양식당
- ⑦ 전경
- ⑧ 8층 평면도
- ⑨ 기준층 평면도
- ⑩ 3층 평면도
- ⑪ 1층 평면도
- ⑫ 2층 평면도
- ⑬ 측면 상세
- ⑭ 1층 커피숍
- ⑮ 2층 한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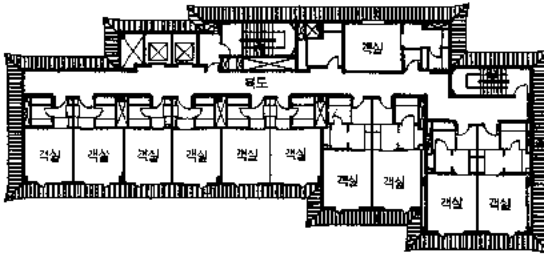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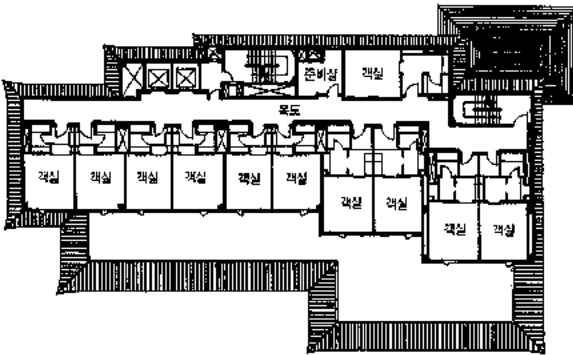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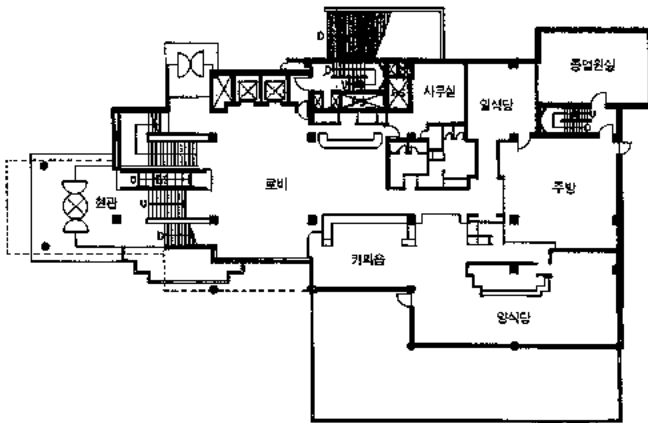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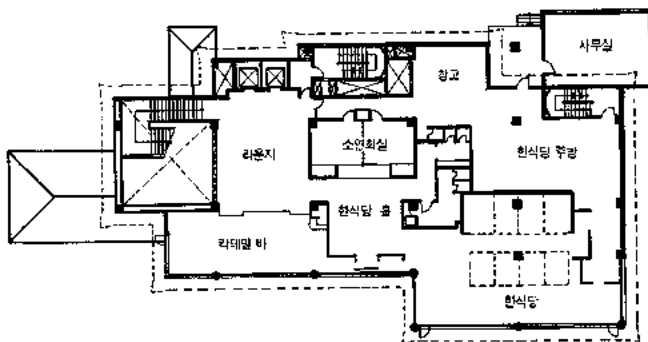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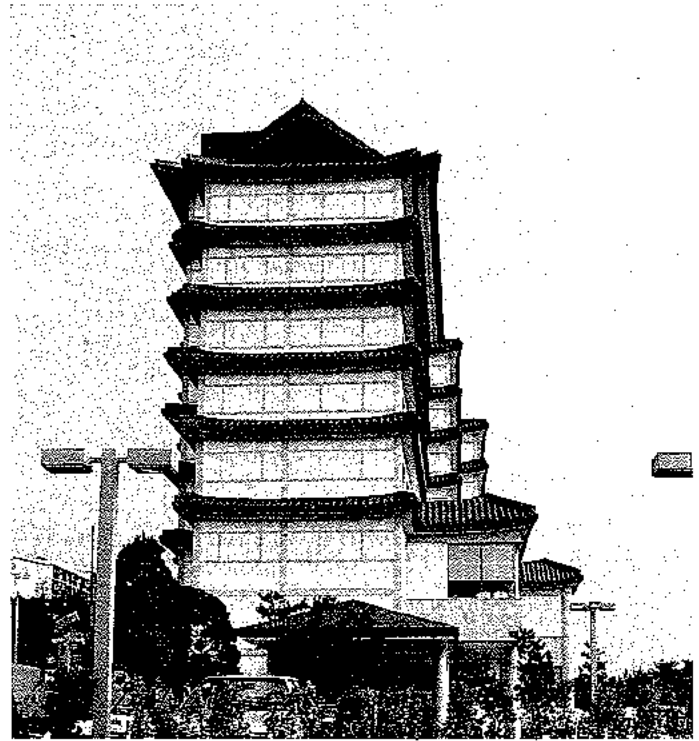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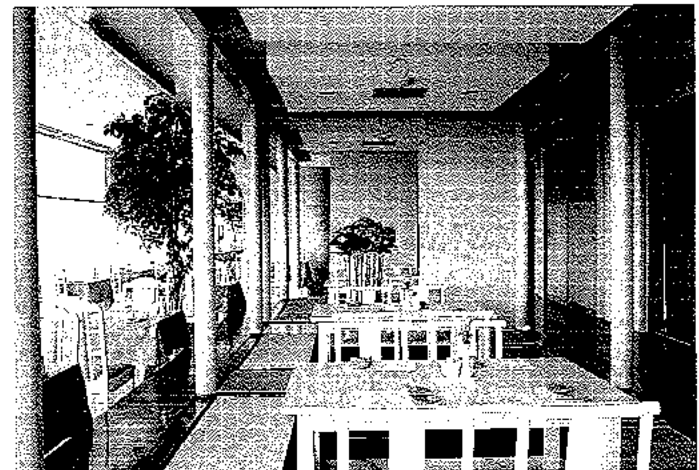
12



13



14



15

창원시 의원회관

Changwon City Assembly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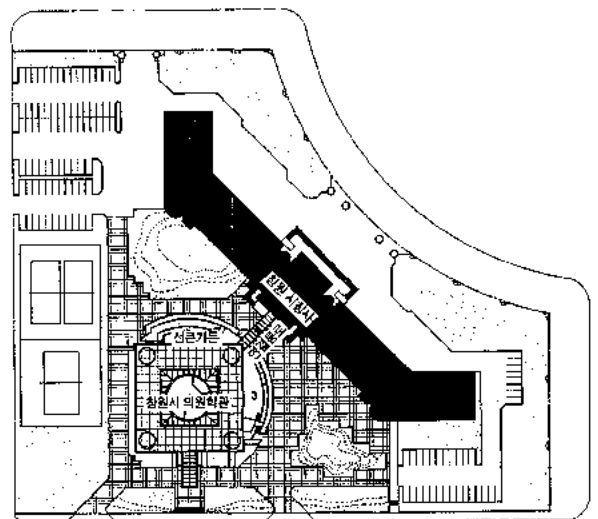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①

■
 대지위치 / 창원시 용호동 1번지
 대지면적 / 28,954m²
 건축면적 / 1,760.5m²
 연면적 / 5,749.2m²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옥탑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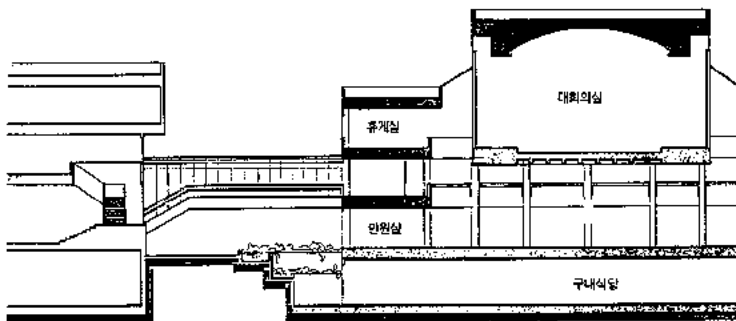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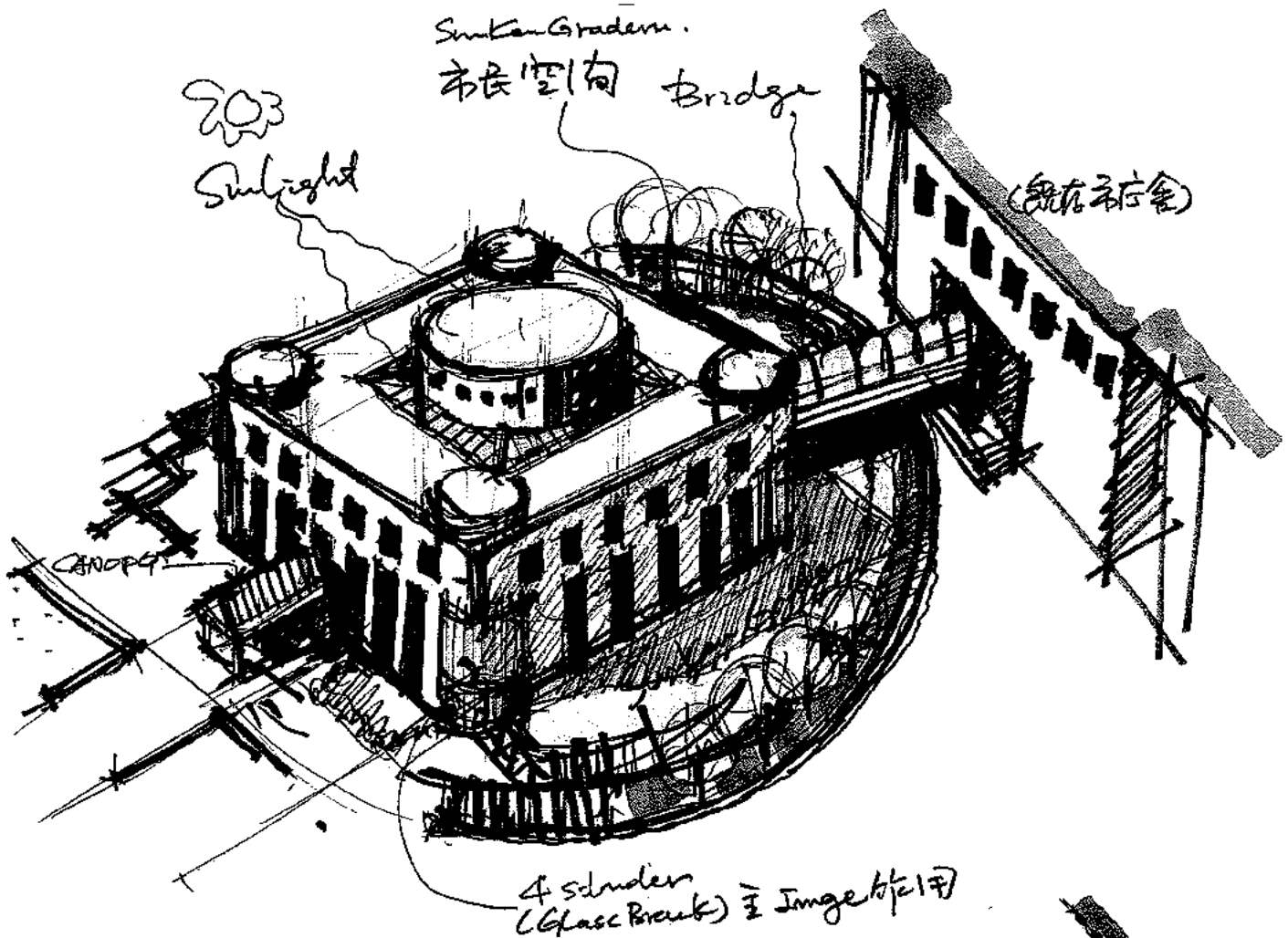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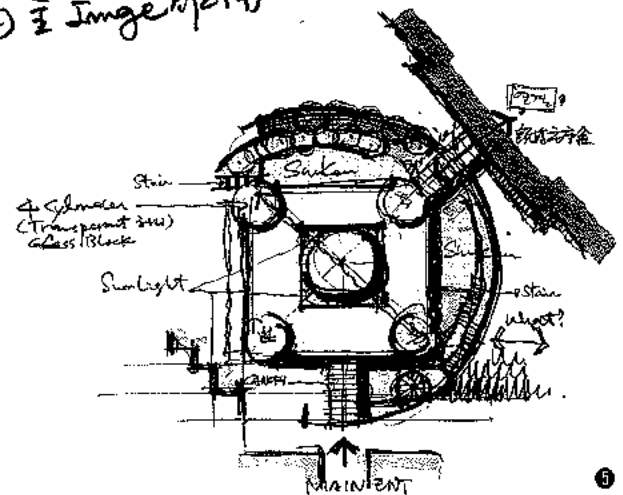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주출입구측 상세
- ④ 전경 스케치
- ⑤ 단면도
- ⑥ 배치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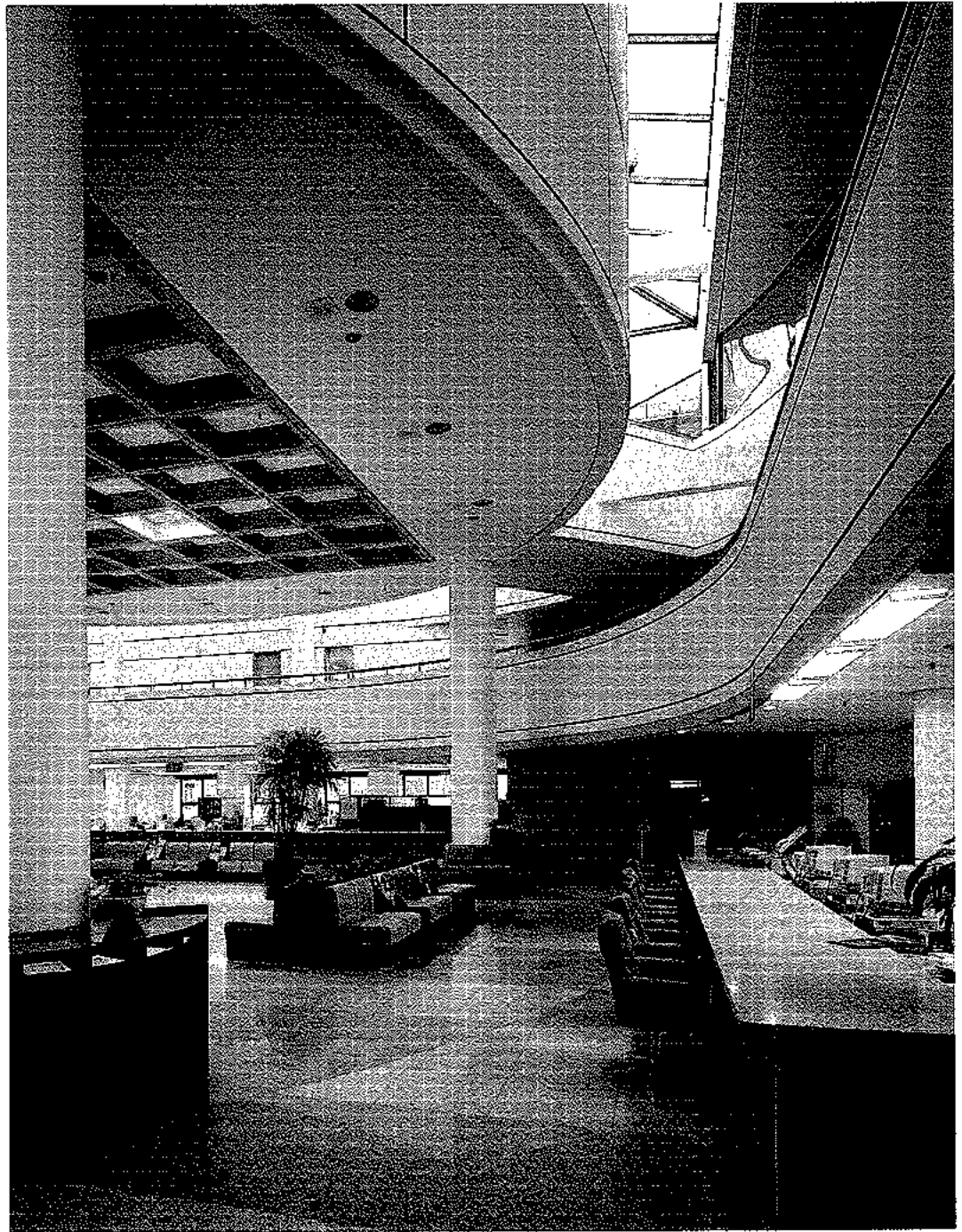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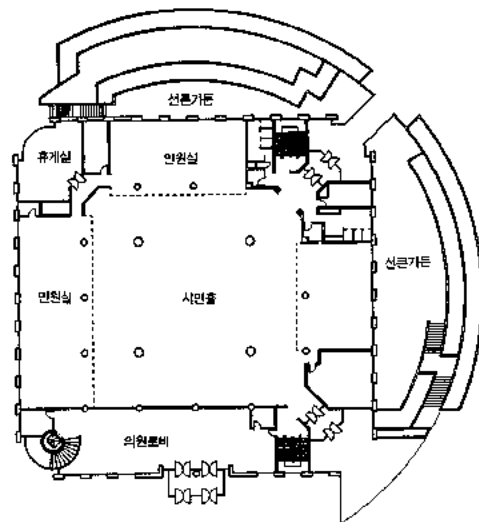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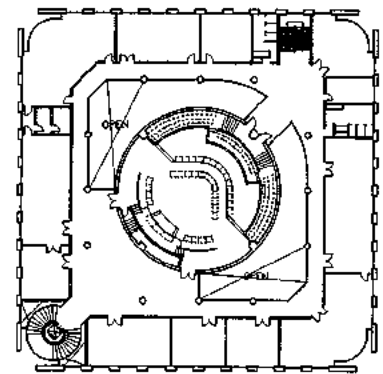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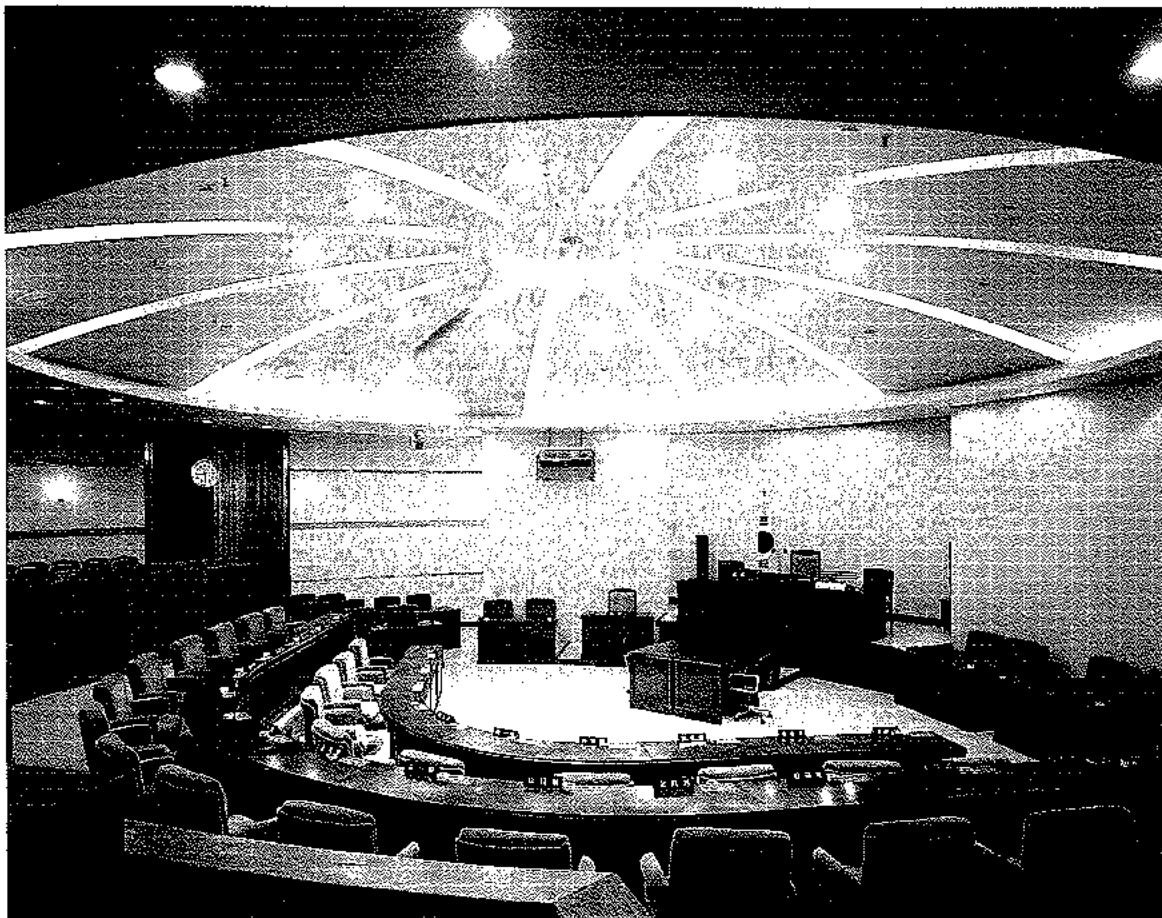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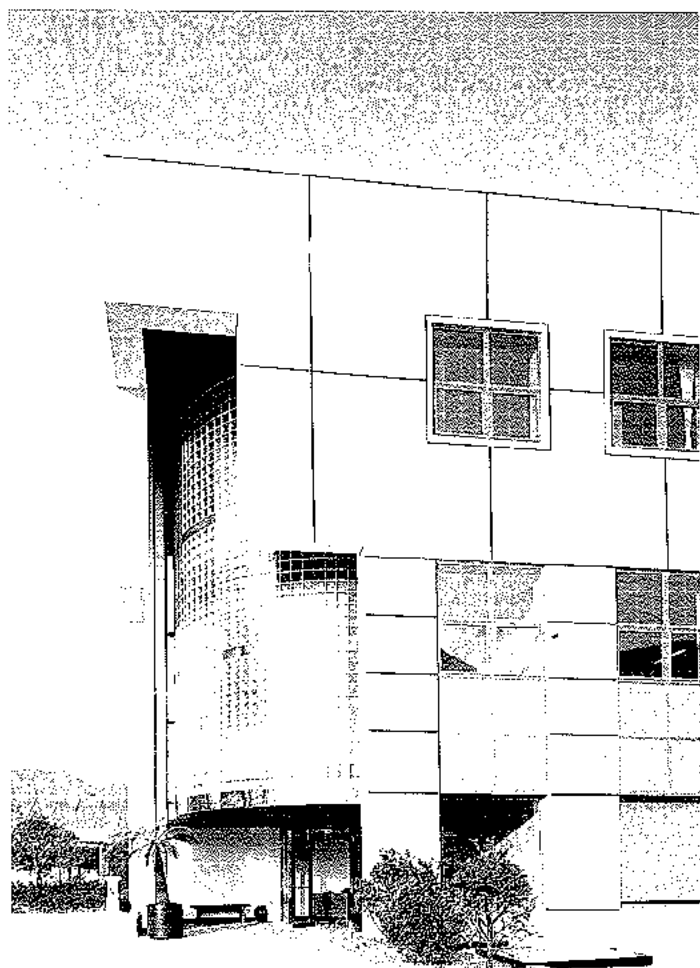
8



9



10



1



12

- ⑦ 시민홀 및 민원실 전경
- ⑧ 1층 평면도
- ⑨ 3층 평면도
- ⑩ 대회의실 전경
- ⑪ 외부 모서리 상세
- ⑫ 연결 통로에서 본 의원회관

송도성당

Songdo Catholic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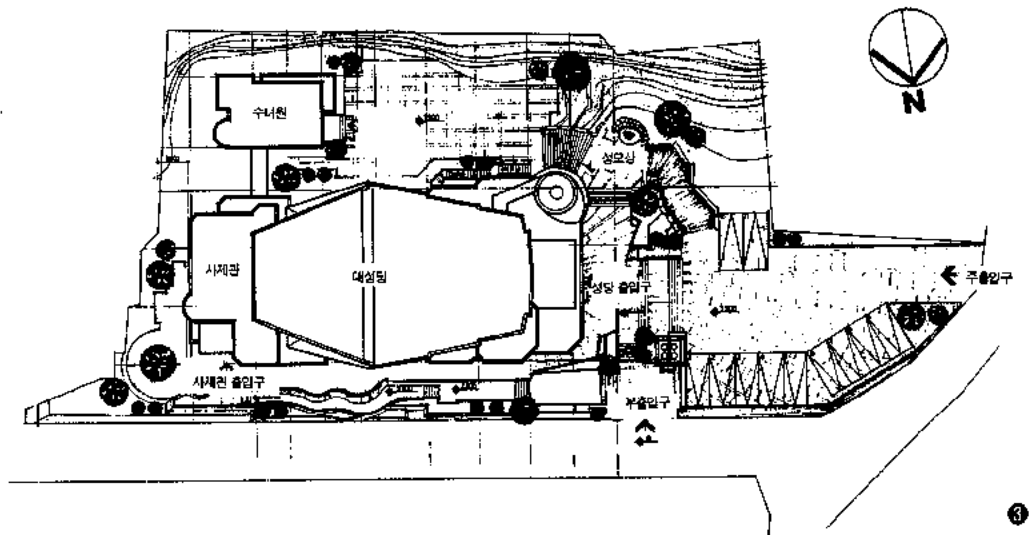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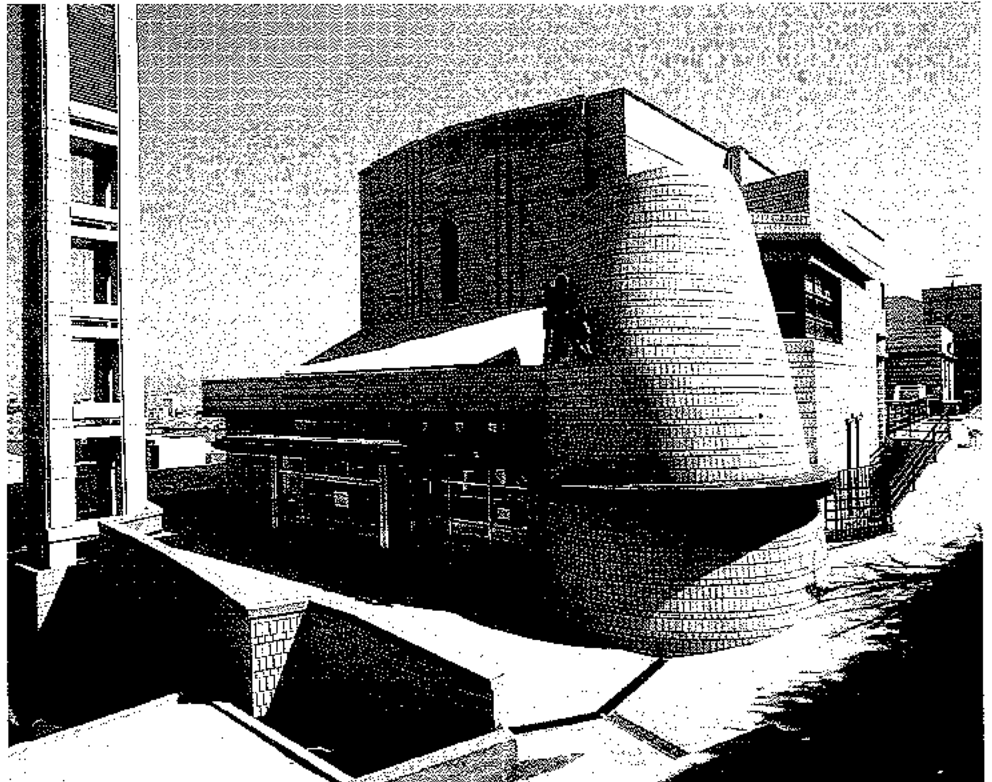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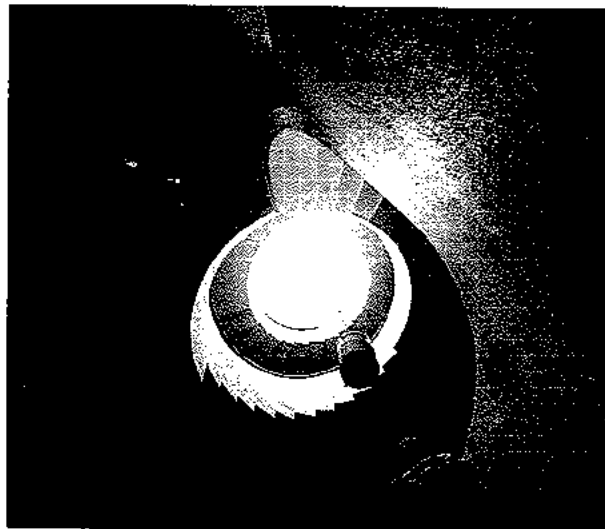
金仲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Designed by Kim, Joong-Sub



■
대지위치/ 부산시 서구 남부면 3동 611-16
지역·지구/ 주거지역
대지면적/ 2,937m²
건축면적/ 896.17m²
연면적/ 2,078.11m²
건폐율/ 30.51%
용적률/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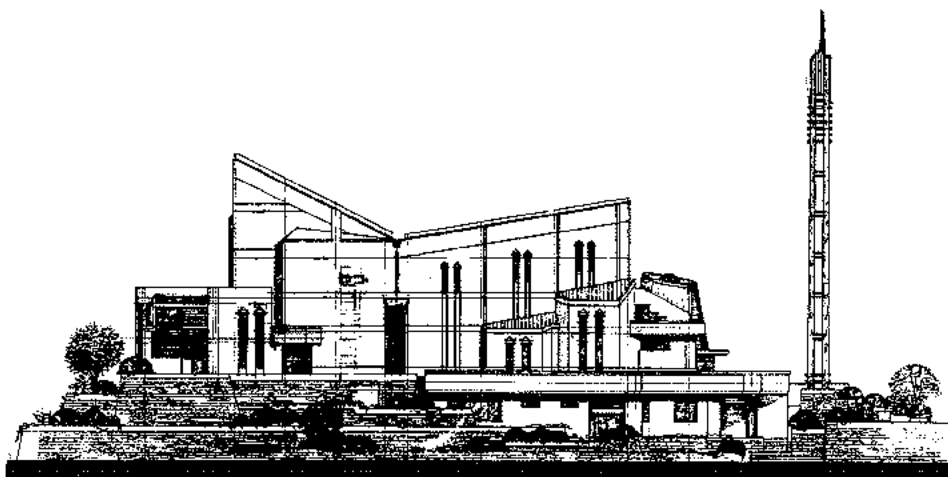




④



⑤



⑥

■ 본 건물은 원래 가파른 산중턱 밀집 주거지 속에 있던 조그만 교회를 허물고 새로이 지은 건물인데 공교롭게도 짓는 도중 공사부설로 말미암아 교회측에서 다시 짓겠다고 의뢰가 되었던 건물이다.

교회측에 몇번 고사 하였으나 부탁을 거절치 못하고 옹하게 되었다.

교회측에서 본의아니게 원 설계자에게 상처를 주었고 본인 또한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Project다.

재정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골조만 대충 끝내놓고 마감은 재료나 Detail 면에서 설계 의도와는 무관하게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형태와 기능만 대충 만족시킨 상태로 끝낸 것이 못내 아쉬웠다. 역시 좋은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도면 이외에 철저한 감리와 최소한의 비용이 수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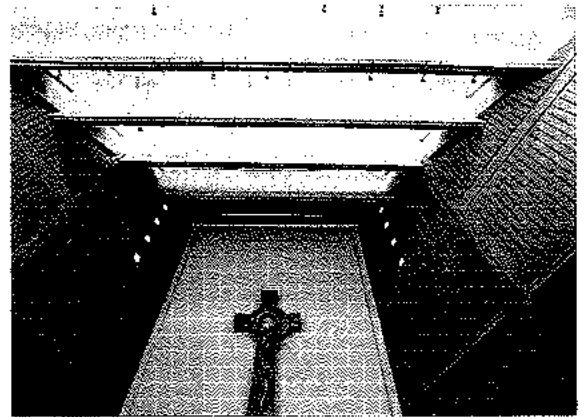
다만 종래의 성당과 크게 다른 것은 성당 지하에 연극·음악 등의 전용 용도로 사용되는 상당한 크기(약 400석)의 계단식 홀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대관계 공간이 상당히 많이 배려 되어 있다.

이는 주임신부님의 뜻으로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 제공되기 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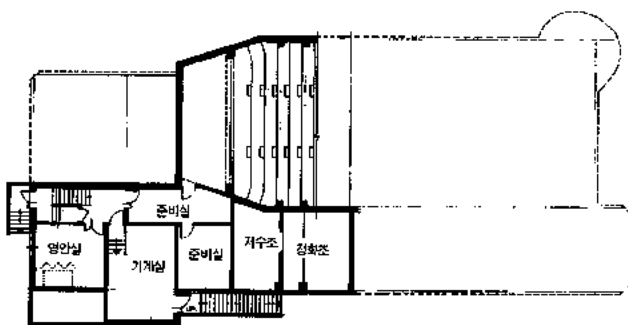
이제는 교회가 단지 신앙만을 위해 폐쇄적인 기능을 뛰어 넘어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으로써의 역할을 수행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상당히 진취적인 입장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 ① 전경 스케치
- ② 전경
- ③ 배치도
- ④ 올라다 본 계단실 상세
- ⑤ 계단에서 본 만남의 방
- ⑥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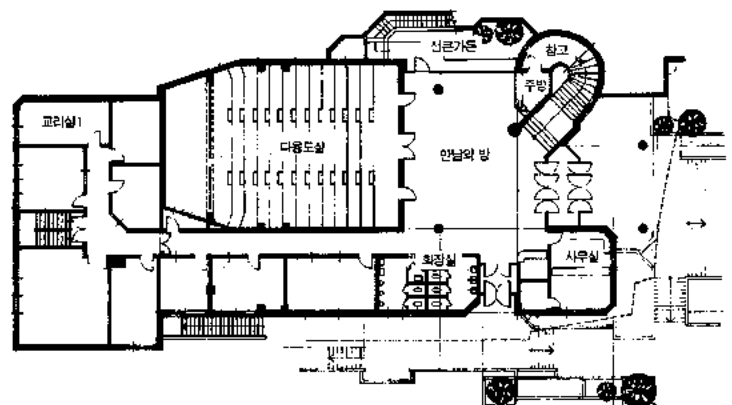
- ⑦ 제단 천장 상세
- ⑧ 2층 회중석에서 본 제단
- ⑨ 지하층 평면도
- ⑩ 1층 평면도
- ⑪ 단면도
- ⑫ 북동측에서 본 수녀원동과 사제단
- ⑬ 2층 평면도
- ⑭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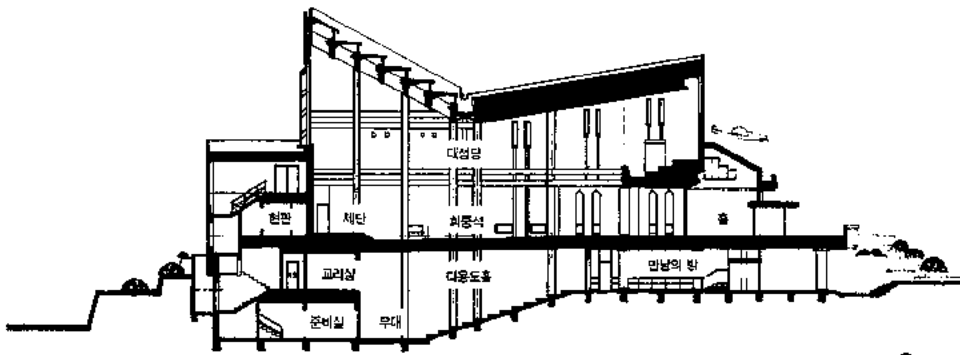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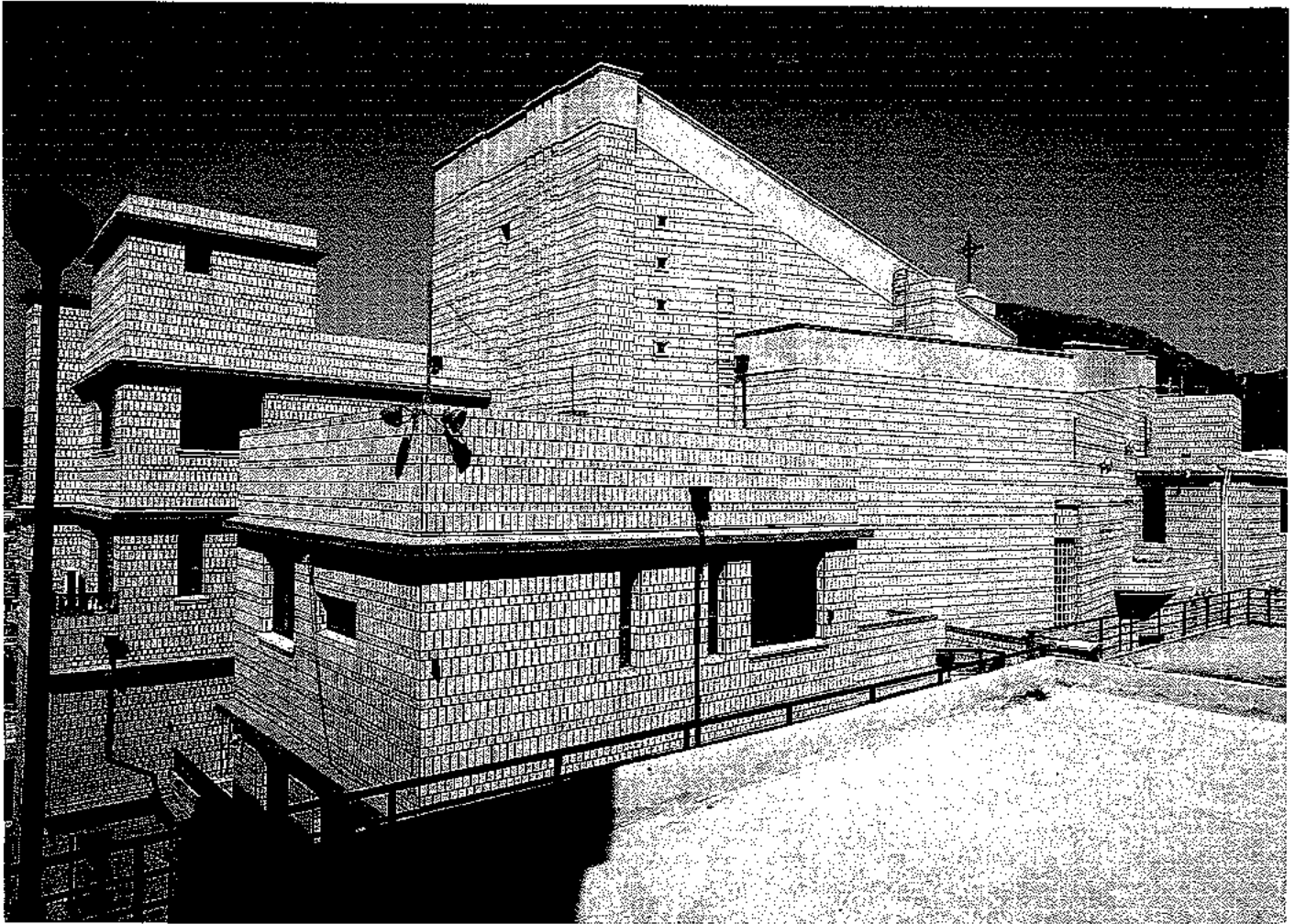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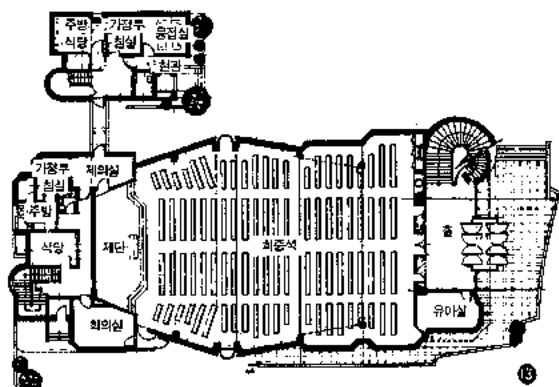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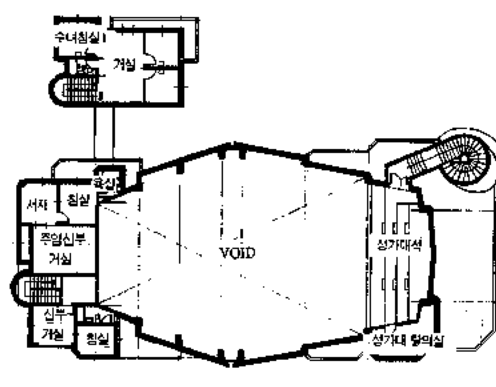
1



2



3



4

신소재 공동연구소

New Material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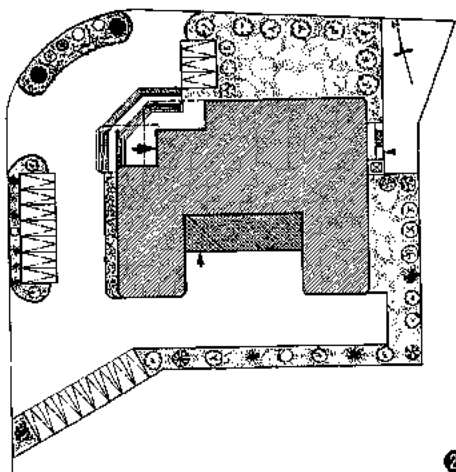
公日坤 + 文炳國 / 향중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ong, Il-Kon & Moon, Byung-K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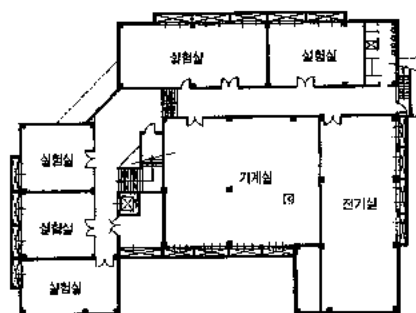
■ 위치/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구내
 건축면적/ 지하층-1003m²
 1층-1015m²
 2~4층-938m²
 연면적/ 4833m²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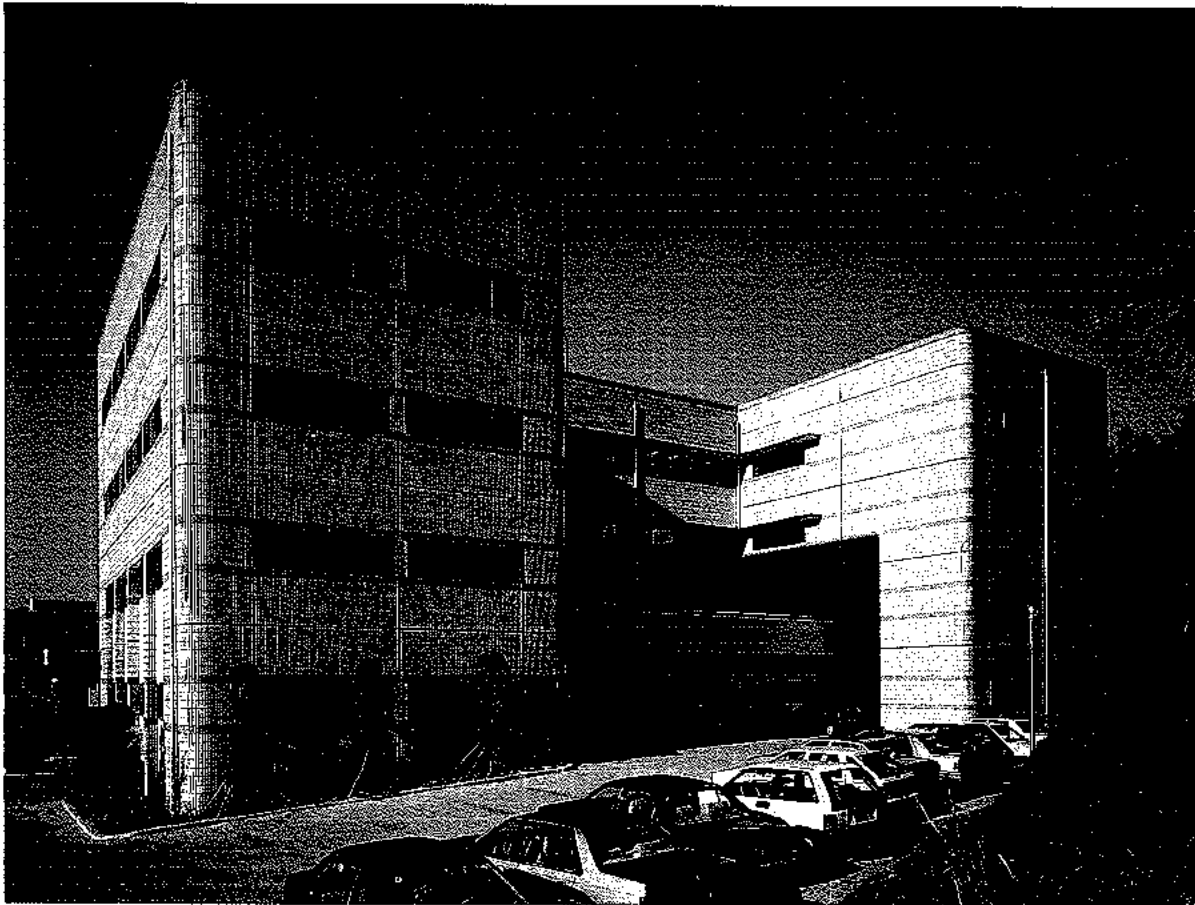
- ① 주출입구쪽에서 본 전경
- ② 배치도
- ③ 지하층 평면도
- ④ 현관진입부 전경
- ⑤ 로비에서 바라본 현관
- ⑥ 건물후면 전경
- ⑦ 1층 평면도
- ⑧ 2, 3,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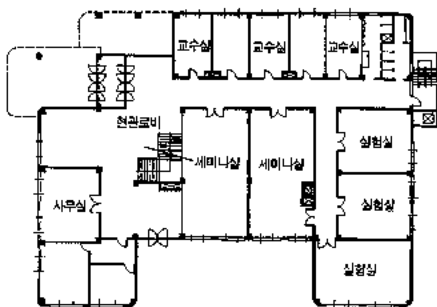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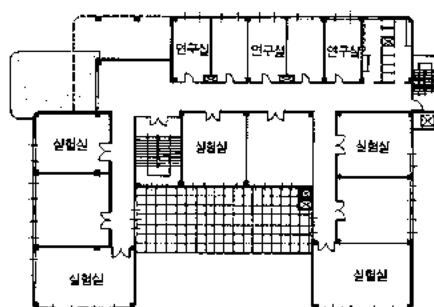
⑤



⑥



⑦



⑧

삼성동 주택

Samsung-dong Residence

尹柱憲 / 종합건축사사무소 내외건축

Designed by Yoon, Joo-Hun



대지위치/ 강남구 삼성동 63-8

지역지구/ 주거전용

건축면적/ 148.68m²

연면적/ 245.93m²

지하층/ 13.9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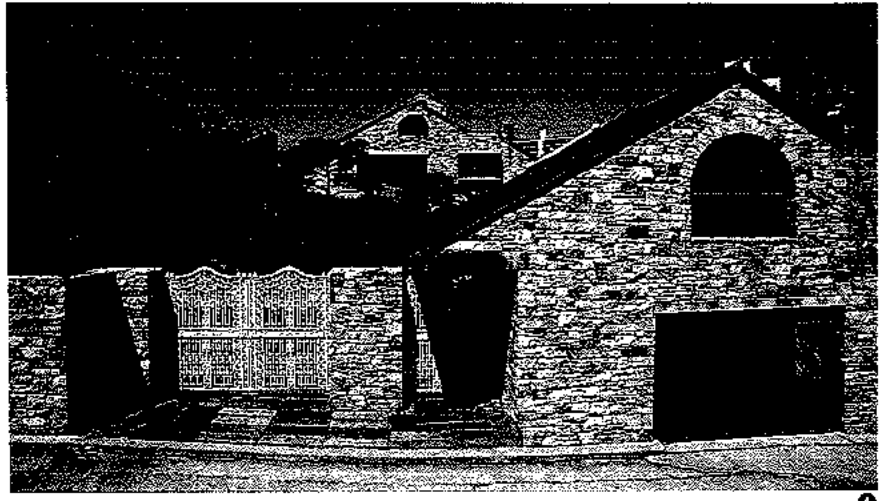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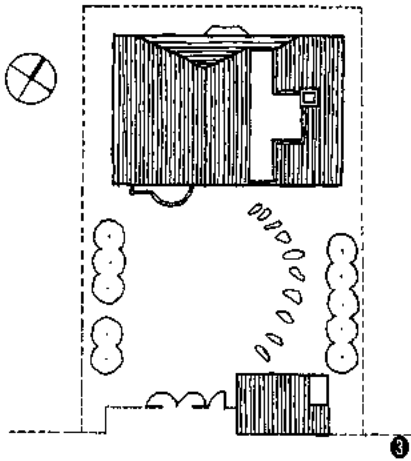
1층/ 128.4m²

2층/ 87.43m²

건폐율/ 26.44%

용적률/ 43.73%





마치 삶의 정형인듯 닳은 찰의 붉은 벽돌집 일색인 동네 한 가운데 위치한 이 주택은 주위에 순응하기보다는 어떤 변화를 불러넣고 싶은 의욕으로 계획에 착수하였다.

유영국 화백의 산 그림을 내심 좋아하는 건축주의 주택에 대한 오랜 꿈은 말 그대로 주택이 그 가족만의 조그마한 성이기를 바라는 것으로 관명되었고 그러한 모성과 같은 포용의 갈망은 곧 단순한 선과 두툼한 자연석의 Image와 부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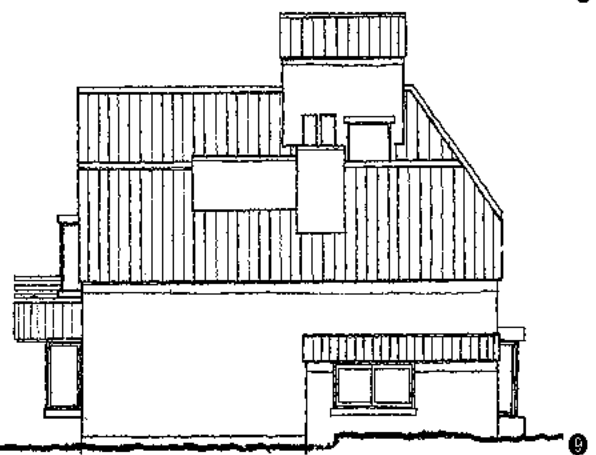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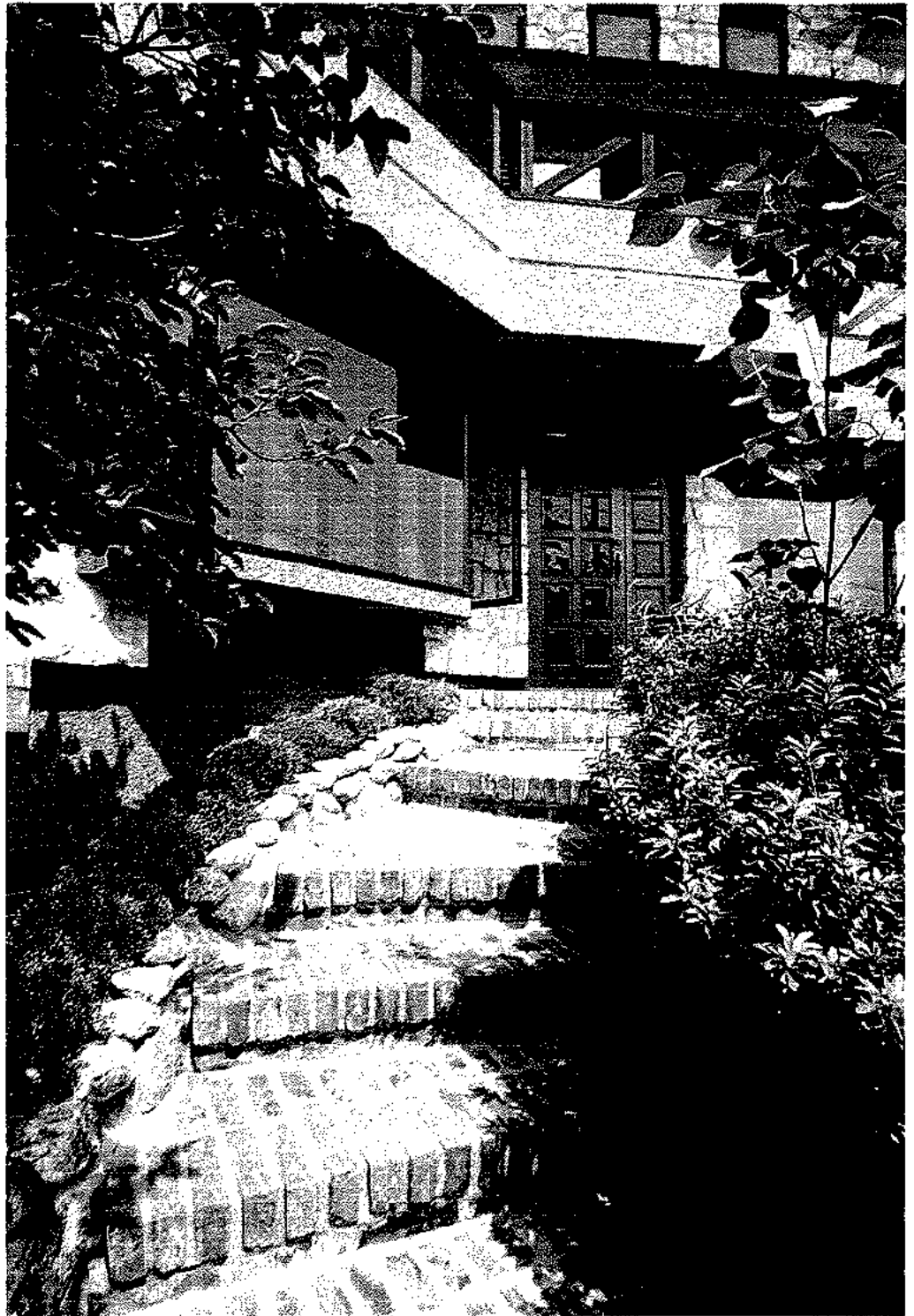
장방형의 긴 대지에 본 체와 전통 주택에서 도입해 본 사랑채를 대문앞에 배치하여 생활에 다양성을 부여하도록 의도하였고 넓은 정원을 사이로 본채와의 좀 비껴진 대형이 삶의 정경에 많은 풍부함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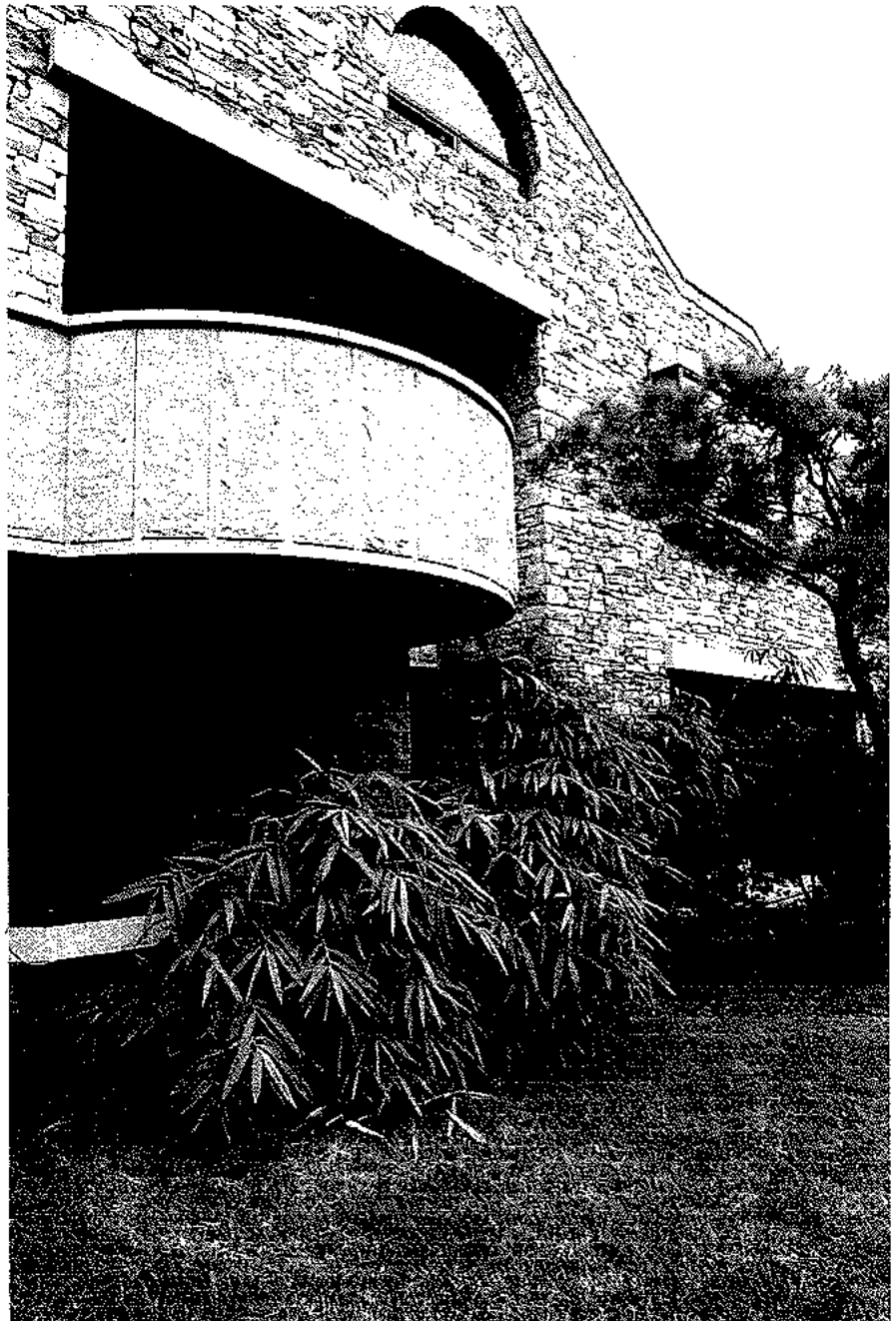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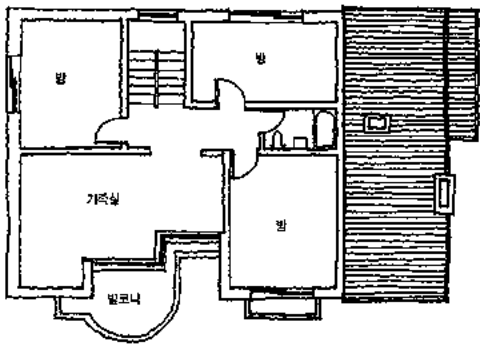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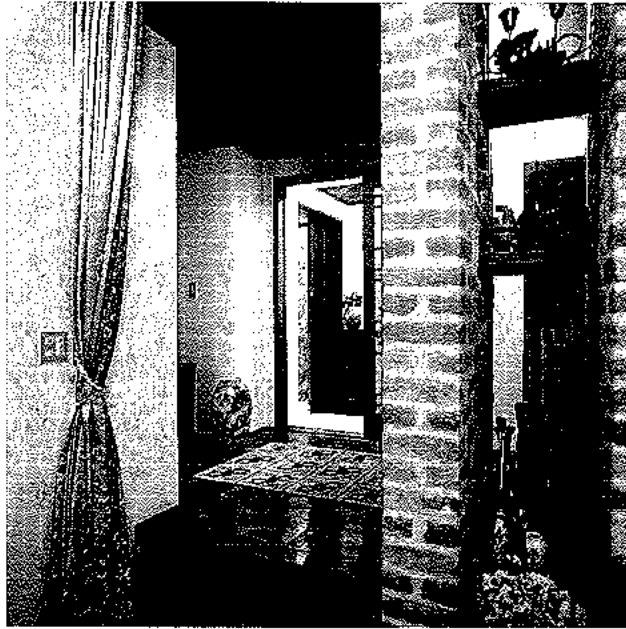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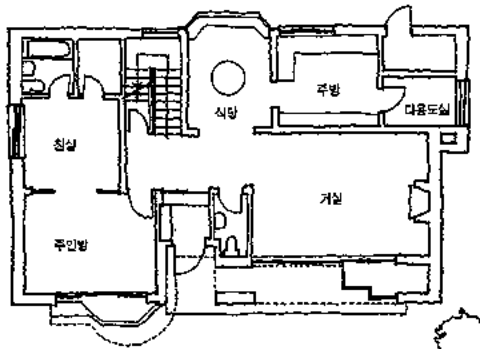
외장은 자연석을 주재료로 하되 Balcony와 창 의 돌출 또는 Setback 효과로 단조로움을 극복하도록 하였고 별채의 Piloti 아래를 지나 본체 거실 앞 연못으로 흐르는 도랑과 주변의 정원석 그리고 소나무가 함께 어우러지는 정원에서 도시의 주택이 보다 정서적이었으며 좋겠다.



- ① 입면 상세
- ② 가족실에서 본 발코니
- ③ 배치도
- ④ 도로에서 본 전경
- ⑤ 1층 거실
- ⑥ 배면 전경

- ⑦ 주출입구에서 본 현관상세
- ⑧ 입면도
- ⑨ 측면도
- ⑩ 1층 평면도
- ⑪ 2층 평면도
- ⑫ 외부창 상세
- ⑬ 연결 계단에서 본 1층
- ⑭ 2층 내부 상세
- ⑮ 외벽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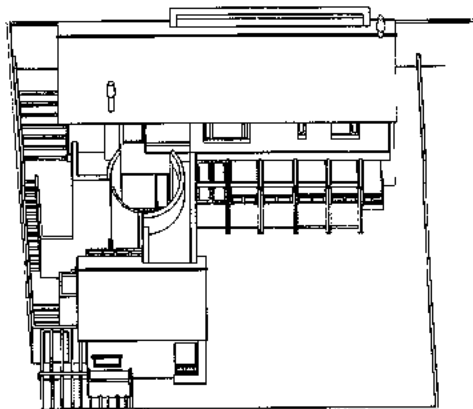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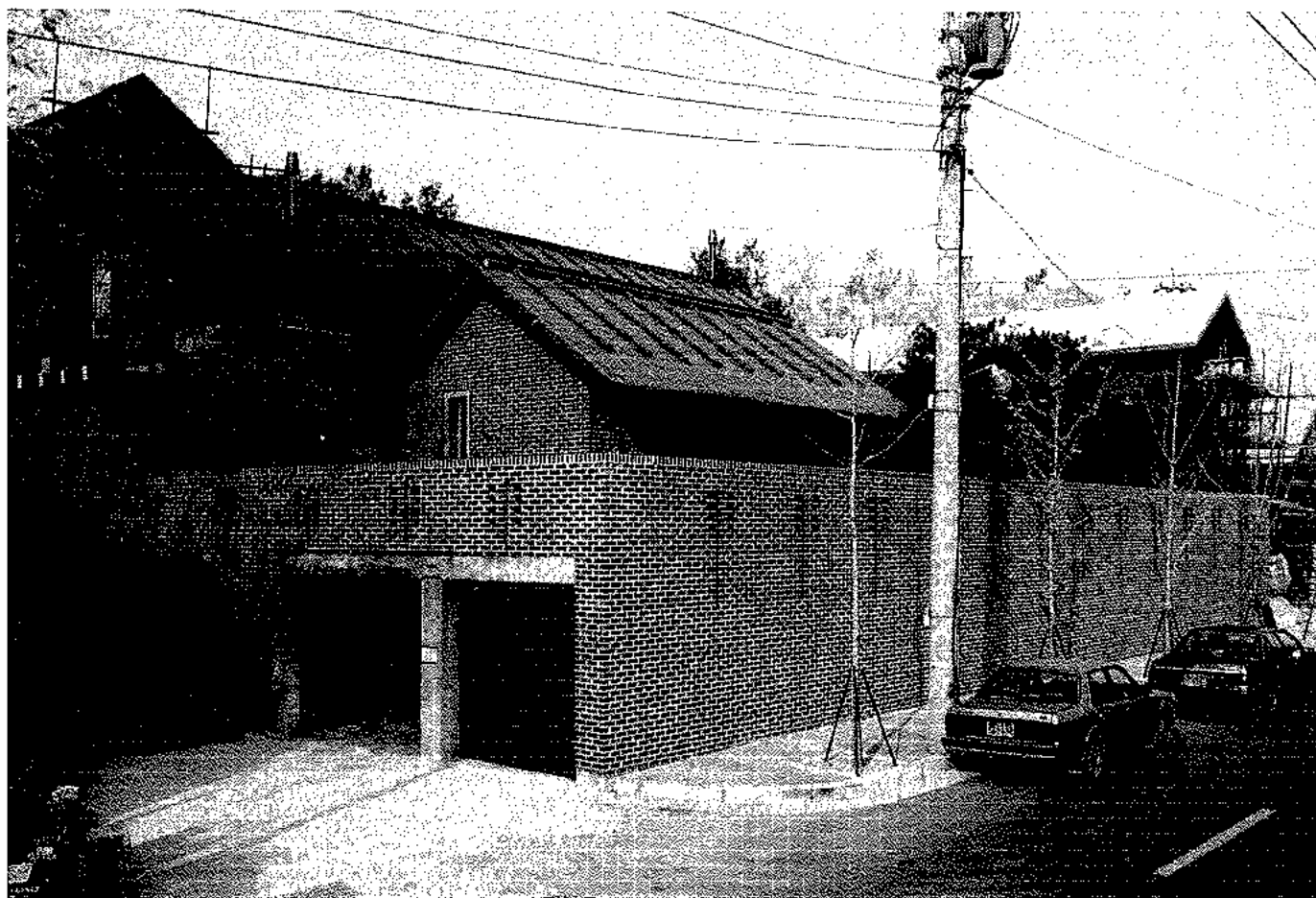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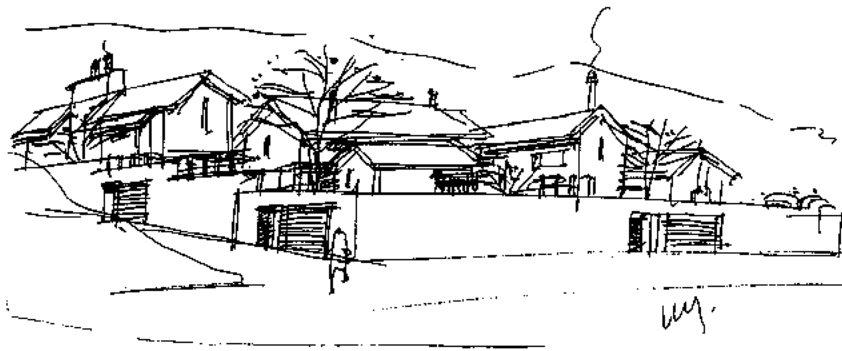
성북동 K씨 주택

Sungbuk-dong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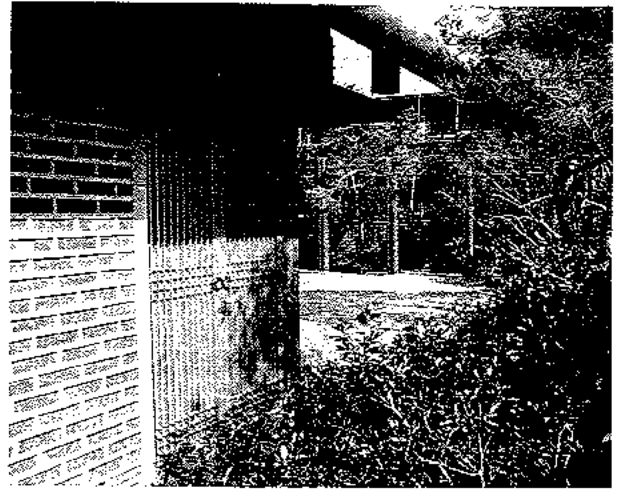
承孝相 / 종합건축사사무소 TSC
Designed by Seung, Hchloh—Sang

■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대지면적/ 529m²
건축면적/ 154.76m²
연면적/ 286.79m²
건폐율/ 29%
용적률/ 54%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외장재/ 변색벽돌, 동판후레싱
주요내장재/ 한지벽지, 조라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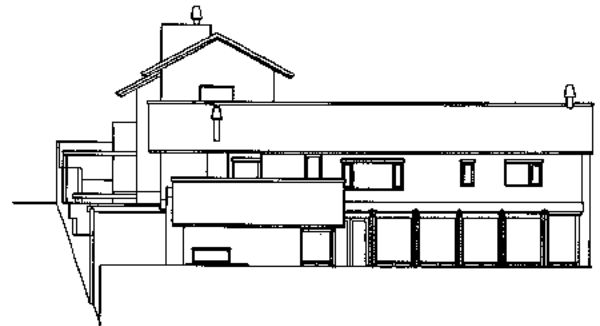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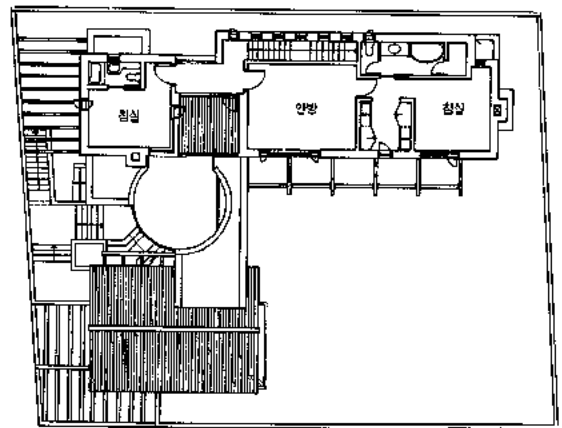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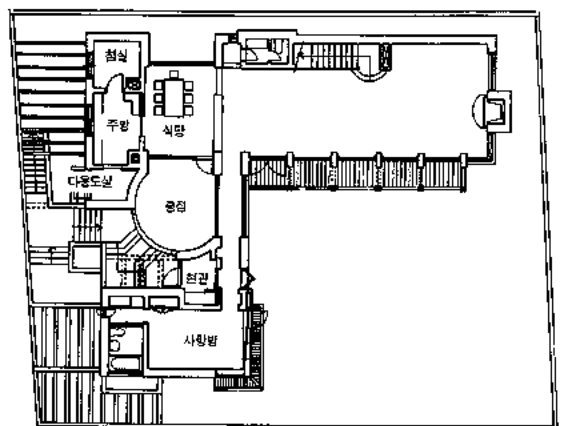
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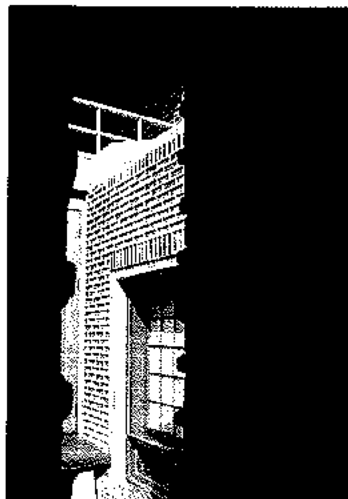


9



10

- ① 도로에서 본 전경
- ② 엑소노 메트릭
- ③ 정원에서 본 전경
- ④ 스케치
- ⑤ 외부 상세
- ⑥ 1층 거실 전경
- ⑦ 외벽 상세
- ⑧ 남측 입면도
- ⑨ 2층 평면도
- ⑩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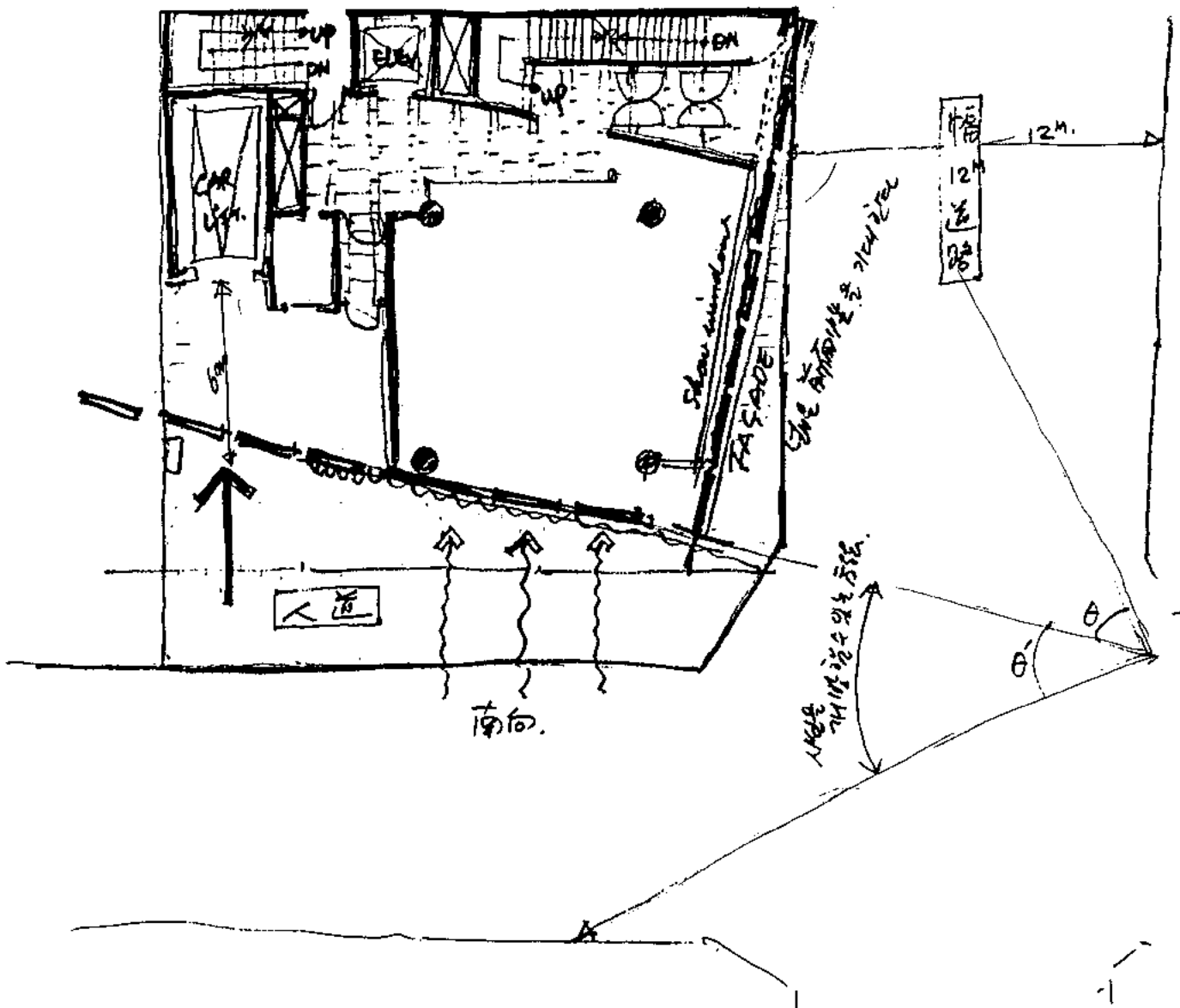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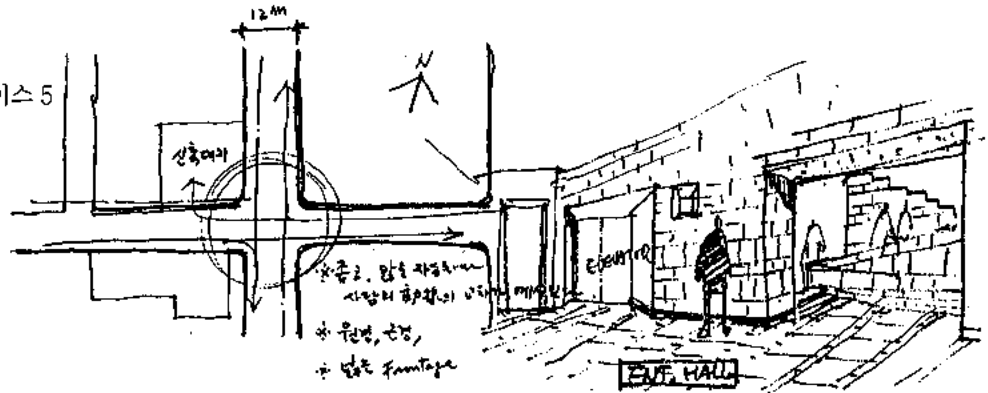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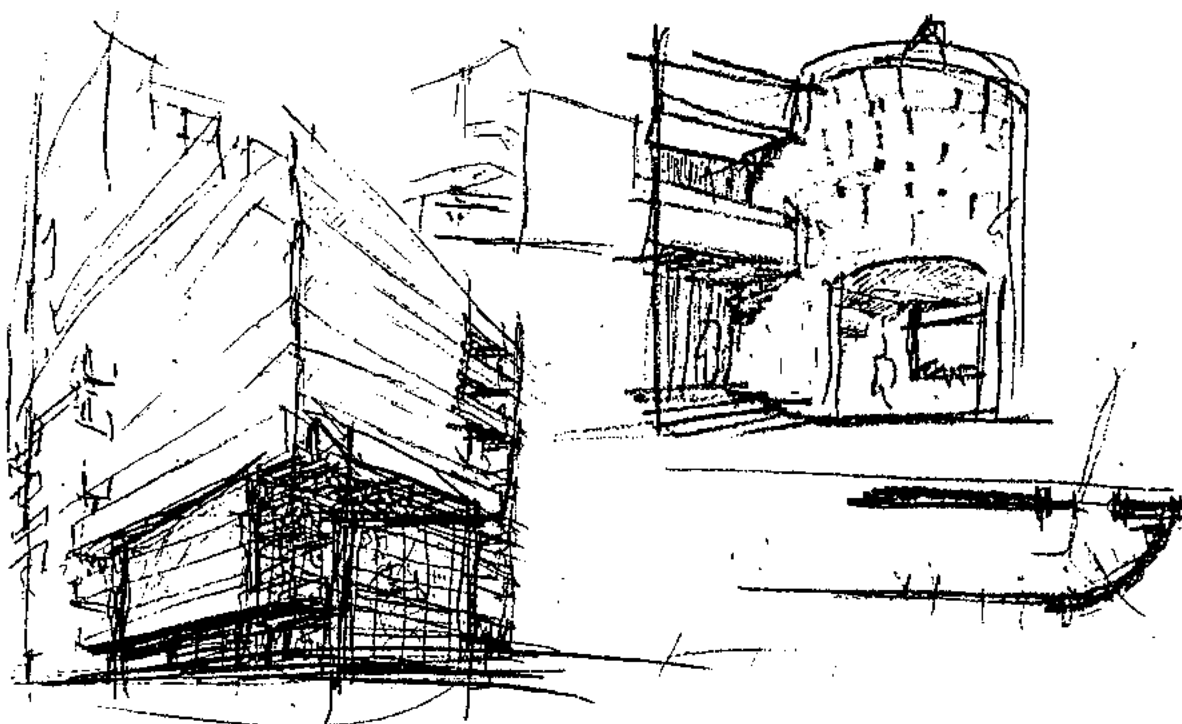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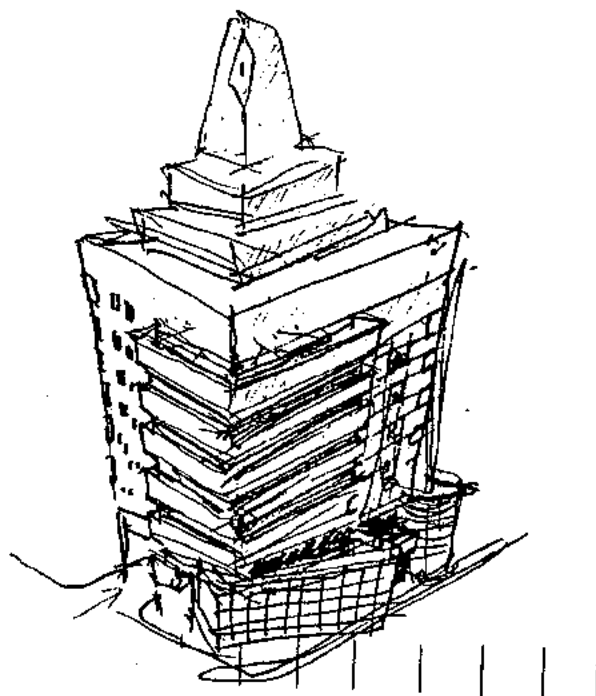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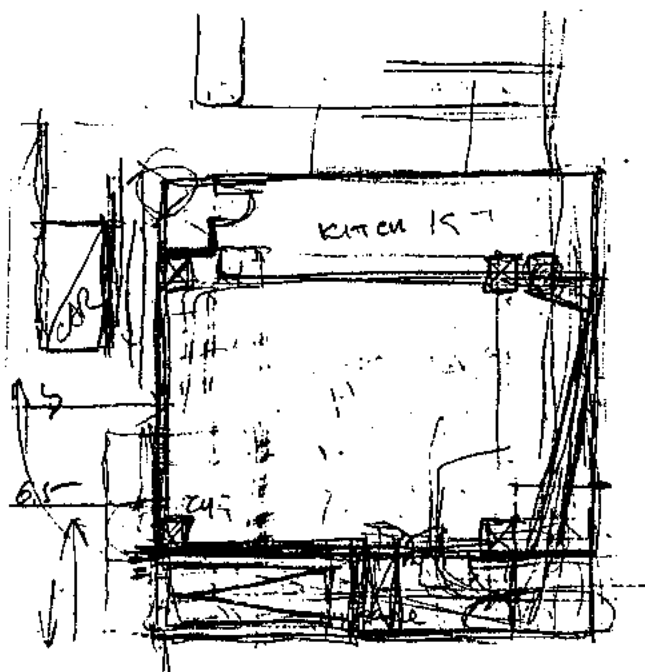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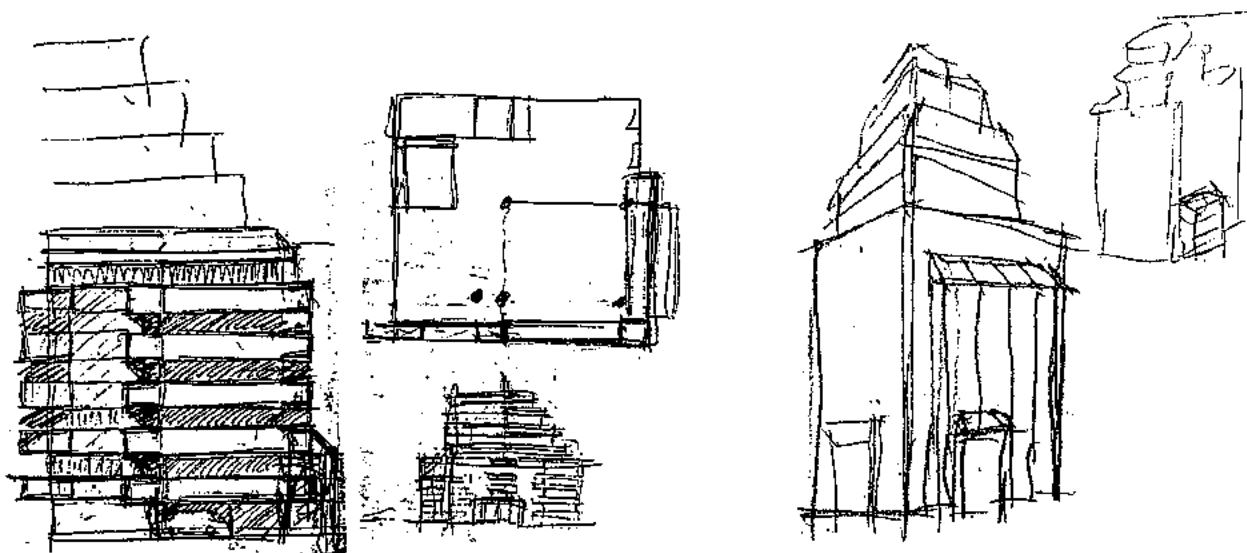
S빌딩 계획안

S Building Project

吳基守 / 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5

Designed by Oh, Kee - Soo





건축사 헌장

The Architect's Charter

宋洙九/건축사사무소 한송
by Song, Soo-Koo



원로시인 未堂 선생의 러시아 유학에 관한 이야기는 내게 놀라움과 함께 그간의 게으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

그래서 그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어를 배우고 그곳의 꿈을 키워
菊香 그윽한 그의 인생을 음미하려하지 않는가! 내 이제
知天命의 삶에 들어서면서 소쩍새와 천둥의 울음소리를 외면하고
무서리의 초조함도 잊은채 요령있게 살아온 꿈없는 오늘이 얼마나
후회스러움의 날인지 모른다.

建築을 처음 시작할 당시, 시작부터 그 의미를 달리 하기를 몇번
이던가? 개념이라는 의미적 굴레에서 더욱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추상적 철학용어의 남발때문에 방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문화라는 보자기 속에 쌓여진 건축의 소비성향은 역사의
유산보다는 유물적가치관의 인정만이 고맙게 여길뿐, 이제
20년으로 공인된 구조물의 정년 기한은 건축도 1회용 시대에 접어
들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1회용의 만능은 삶의 모순과 환경의
부조리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 규범마저 뒤흔들어 놓여 거기에
여기저기서 본연히 부르짖는 自省의 움직임은 그래도 삶에 희망을
주고있다고 생각된다.

목적있는 삶의 여정에서 그 뜻하는 바 합리적이며 진취적일때
삶의 가치를 갖게하며 그러한 사회야말로 건전하고 발전적이며
살아 볼만한 가치있는 세상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상요 꿈인양 해바람에서 대부분의 생각들은 후회와
두려움속에 약속 아닌 方便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시간의
흐름속에서 까맣게 잊어 버리고 새로운 삶의 추구속에 오늘도
허둥대고 있지 않은가.

고구려의 雄志속에 浩然之氣 넘치던 넓디넓은 만주벌의 氣像,
이제는 남의 땅, 눈치속의 관광이 땅각속에 자랑으로 변하여
이 땅을 바탕으로 끈질긴 삶을 이어온 우리 한민족의 영원한 터전
임에도 빼앗기고 나뉘어져 여러 민족이 어우러져 한 나라를 만들어
사는 세계속에서 오직 우리만이 한 민족이 두개의 국가를 이룬
존경받지 못할 역사적 현실이 되었으나 兩頭一身의 相殘 속에서
一頭兩身の 相助의 變化를 기대하면서 빠르게 변하여 가는
요즈음의 경세는 그래도 정신없이 허둥대는 우리 삶의 의미를
윤곽하게 한다.

또한 언어와 문자는 감성과 지성의 매체이며 같은 말과 글의
사용으로 예술적 감성과 이지적 사고의 개념속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지는 문화와 예술이 창조됨은 주지의 사실이나 시간의 흐름 속에 단절은 끊임없는 사회의 변화속에서 두개의 민족혼이 형성되며 골 깊은 분절의 사회가 이룩되며 가고있는 역사의 오류는 민족의 자긍심에 자아의 반성을 호소하여야 할 일이 아닐까하며 따라서 새롭게 진행되는 남북문제의 신기루가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昨今 民主化의 非民主化는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실망을 하게 하며 우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누구도 해결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은 퇴색아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기 몫의 의무를 잊은 채 권리만을 기능전하며 자아상실속에서 허공을 헤매는 無明衆生이 사라져 자취를 감추지 않는 한 우리에게서 더 큰 시련이 뒤따를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다양한 사회에서 복잡성은 자칫 본래의 위치를 잃게 될 수도 있으나 프로세제에서의 독자성으로 명명한 자기 궤적이 연출됨은 우리 건축인의 자존심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散在되고 內在되어 있는 우리 분야의 많은 사안들이 다양한 방편을 통하여 유추, 지적되고 제안, 제가되어 해결의 모색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으나 쌓이고 쌓이는 답답함은 트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그래도 속수무책의 기다림은 자조의 채념 속에서 내일의 변화를 기대함이 죽음의 방법을 기다리는 몰모트에 비하면 지나치다 할 것인가.

한 민족의 갈라짐에 따른 설움과 피 땀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데 역사의 피속에 숨겨진 분열의 유전자는 또다른 파벌의 형성과 골깊은 지역감정으로 이어져 만주벌의 응지가 몰모트삶의 형태로 바뀐 조상의 어리석음과 남의 잘못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원인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며 우리 건축사회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갈라짐의 징조에 우리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개진의 다양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총회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지역간의 불화는 그야말로 요즈음 새롭게 보이는 "NIMBY 現象"의 증후군 같은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조상의 기개와 번영의 역사를 까맣게 잊은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는 오늘의 우리를 왜소화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타지역의 도서등록시에 일어나는 극히 일부분의 배타적 현상은 건축계의 현실이 곤혹과 두려움의 연속임을 가히 짐작하게 하며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어렵게

하여 주위의 멸시와 자조로써 스스로의 묘혈을 파, 자멸의 길을 가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더욱 하나 되어 역경을 헤쳐나가는 조상의 슬기로운 지혜를 익히 알고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방편의 맹랑함에서 심기일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태양의 햇살이 보배'라는 서양속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어설픈 건축의 논리나 외적 조건의 불평은 우리를 더욱 나약하게 만들고 건축문화라는 불분명한 개념은 우리를 더욱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환경보호파인가 파괴파인가 문화인가 비문화인가, 창작인가 모방인가, 희망적일까 절망적일까? 기존의 모호함과 가치의 혼돈은 오늘에 이르러 더욱 무력해지고 있다.

우리 모임의 약속으로 항상 제창되는 건축사 헌장은 나무랄데 없는 信行이며 信念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윤리규약도 배제되며 우리 건축인의 참모습이 새겨져, 우리의 긍지를 갖게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이 구호이며 의식의 절차일때 우리에게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시중잡매의 의리마저도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회에 존재할 가치도 없는 집단으로 전락되고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존심과 긍지를 갖지 못할 때 설 자리 마저 잃게 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역사학자 Paul Kennedy는 "Give and Take의 정신"이 미국을 망친다고 하여 현실적 감각의 발달이 남다른 미국인을 땀한 것은 우리와는 무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직하다.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집앞에서 알짭대는 참새의 눈이 되지 말고 100리 밖을 내다 보는 창공의 독수리 눈이 되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의 위상은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지 이제는 생각만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명제도 오늘의 우리의 자세를 가늠하는 가치기준을 상실할 때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며 올바른 自省과 끊임 없는 精進만이 내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인이 아니겠는가.

20여년전부터 晩學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는 老詩人의 삶의 자세에서 내일을 위한 삶의 투자에 게으름이 없어야 함을 새삼스럽게 깨우치게 된다.

영종도 국제공항 현상설계 공모에 바란다.

The Opnion of Youngjong-do International Airport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Project

FOCUS

金正澈 /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Jung-cheol

영종도 국제공항은 “허브 에어 포트”(Hub Air Port)라 하여 지역간 중심공항 재도로 대륙간 연결이 2~3시간대 비행이 가능한 새로운 항공시대를 여는 2천년대의 총아적 항공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러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국제공항이 서해안 영종도에 건설된다는 기쁜 소식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부풀게 한다.

이번 계획은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의 여러 부대시설은 물론 여객들을 위한 상업과 편의시설들을 마련하고 문화시설과 주거시설까지도 포함된 소도시를 만드는 “마스터 플랜”이 세워져 있다 한다.

그러므로 이번 계획의 규모는 대단한 것으로 금세기 초유의 새로운 기능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 자랑할 미래공항의 실현을 우리나라가 먼저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업이야말로 새로운 기능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랑스러운 최선의 공항으로 남기기 위하여는 국내적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제적 중지를 모으고 그 기술과 Know How가 앞으로 세계에 진출할 귀중한 경험과 기술축적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영종도 신국제공항 국제현상설계는 그런 의미에 있어 그 의의가 크다.

그러므로 설계경기는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권장사항에 따라 설계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로우리라고 생각된다.

경기유형, 목적의 명시와 참가제한의 조건 등을 국제건축가 연맹(U.I.A)과 협의하여 진행하므로써 국제적 공인을 얻을 수 있고 사업 자체를 격상시키며 나라의 위상도 높이는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김포 제2터미널과 제주, 김해공항이 우리 손으로 세워졌으나 그 내용과 기능과 건축에 있어서 국제공항이라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래에 자카르타,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최선의 국제공항들이 지어지고 있으며 이웃 일본의 대관만에 인공성을 만들어 그곳에 KANSAI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몇년 후면 개항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있다.

본 사업은 많은 새로운 기술과 참신한 Idea를 낼수 있는 외국의 설계조직과 한국의 건설하고 능력있는 조직으로 구성된 공동설계에(J-V)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모설계에 있어서는 공동설계를 통해 응모안을 제출하게 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단계에서는 한국측이 책임을 갖는 주계약자가 되어서 신공항 설계상의 모든자료, 통계, 등 기술과 기법이 한국설계조직에 축적되도록 하여 장차 우리나라 용역팀의 세계 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KANSAI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이 국제 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가 이루어지고 건설이 진행중이어서 그 사례의 장단점이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대규모 미래산업은 이를 실현 시킬 수 있는 경제적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건설기술수준 정부와 국민의 의지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빼고는 이런 일을 실현시킬 조건을 갖춘 나라도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공항의 건설은 지경학상, 경제적 여건과 기술수준, 국제사회 위상 등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뒤져있는 우리나라가 항공사업에 있어서는 일본을 앞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 영종도 국제공항과 이에 수반한 일련의 건설계획이 꼭 세계적으로 훌륭한 명물로 남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첫째는 세계적인 사업이니만큼 실력있고 저명한 건축가나 공항설계에 경험이 풍부한 설계조직이 참가하게 하여 새롭고 참신한 계획안을 많이 제안하겠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응모자에게 요구되는 실질적 가격요건은 근래 설계한 신국제공항의 실적등을 근거로 그들의 전문성 새로운, 기술의 보유사항, 국제적 명성 등이 고려되어 얼마나 좋은 Idea와 창조성있는 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중시된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사업은 많은 새로운 기술과 참신한 Idea를 낼수 있는 외국의 설계조직과 한국의 건설하고 능력있는 조직으로 구성된 공동설계에(J-V)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모설계에 있어서는 공동설계를 통해 응모안을 제출하게 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단계에서는 한국측이 책임을 갖는 주계약자가 되어서 신공항 설계상의 모든자료, 통계, 등 기술과 기법이 한국설계조직에 축적되도록 하여 장차 우리나라 용역팀의 세계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공모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안된 여러 안들 중에서 당선안을 선정하는 심사에 관한 문제이다.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기준과 방법이 결락을 남기느냐 아니면 공모설계의 문제점인 뒷말이 나돌고 특성없는 무난한 작품을 선정하게 되느냐 하는 공모의 심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심사위원 구성은 전문건축가가 과반수를 이르되 외국의 저명한 공항건축 전문 건축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사전에 U-I-A와 협의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좋은 Idea와 훌륭한 안을 많이 받으려면 좋은 계획안을 낼수 있는 충분한 설계기간과 이에 따르는 제작사설비가 뒤따라야 한다.

축박한 기간안에 좋은 안의 기대는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미래 항공산업의 효시가 될 “허브 에어 포트”인 경우 채택될 안이 기본구상에 부합되고 우수함은 물론 획기적이어야만 함에는 개론의 여지가 없다.

일본 KANSAI국제공항 설계경기의 경우 응모자한Team에 소요된 제작비는 40~100만달러선의 경비가 들었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비난 받지않을 정도의 계획안제작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설계비 보수는 외국의 설계 보수액에 비해 너무도 부족하다.

적은 설계료로는 좋은 안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본 사업의 중요성과 먼 앞날을 바라볼 때 충실하고 훌륭한 안을 얻기위해 국제 수준의 설계비가 지불되어도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영종도에 세워질 허브포트는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걸작품으로 미래사회에 명물적 총아로 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설계수준과 기술축적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기술진흥과 능력 배양을 감안한 운영과 집행이 되어 장차 국제공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과 기술용역이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구축과 계기가 되도록 건축계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종도 국제공항 현상설계공모에 바란다

The Opnion of Youngjong-do International Airport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Project

金知德/(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Chi-Tok

FOCUS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함보다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상설계 경기가 허다 한 것이 요즘의 우리 나라의 현상설계 실태이다.

우리 나라는 건축설계 경기 규준을 건축 3단계가 이미 제정해서 정부기관이나 각 단체 그리고 예상 발주처등에 이미 인쇄 배포했으나, 그 실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리고 UIA 규정등도 활자화해서 숙독하고 있으나 이것도 유명무실하다.

작품 선정을 위하여 현상공모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상공모를 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좋은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국제적인 공항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설계 경기의 근본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설계용역의 수의계약에 대한 정치권의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즉 설계자를 선정할 목적으로 시행된 과거의 관례에서 벗어난 국제현상공모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이 결여된 자체내 위원을 포함한 설계심사위원회(JURY) 구성도 큰 문제점이다. 이점은 외국의 합작설계현상용역은 외국의 저명한 심사위원을 포함시키는 국제현상을 꼭 지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나라의 경험 부족으로 설계건축사로 외국 경험건축가를 초청해야 한다면 국제공모 규정대로 외국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현재의 풍토는 일반현상공모로 작품모집을 해도 4~5개 정도 밖에 응모를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한다. 이것은 제한된 작품 중에서 작품 선정을 하게 되니까 좋은 작품을 얻기가 힘들게 되며, 반대로 한개의 작품에 100여개의 작품을 출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 건축사 사무실로 볼때 너무나 엄청난 인력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설계경기의 규준을 이미 인쇄 배포 했는데도 그 실행이 현실적으로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모든 설계경기는 건축사협회에서 일관적으로 관리하여 불합리한 설계경기는 협회가 나서서 심사위원 구성, 설계기간, 보상계획 등을 발주처와 조정해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는 풍토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필히 있어야 할 설계경기의 기본사항인데 현상공모를 시행하는 발주 관청의 행정편의적인 전횡도 이 기회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금번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느냐? 미공개냐에 따라

응모자의 참여도가 다르고, 응모자측에서 보던 적지않은 응모 비용을 들여서라도 참여의 선택이 주워지기 때문이다.

금번 영종도 국제현상공모는 그 목적이 뚜렷하다고 본다. 이런 신국제공항의 경우 현상공모 참여자를 미리 엄선해서 본설계비중 기본설계비에 해당하는 20% 범위의 전금액을 참가자 모두에게 나눠주어야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대번 설계권만 주는 사례는 이번 현상에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 현상 공모금은 공탁을 걸거나, 아니면 참석자에게 사전 공개를 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의지를 새롭게 해야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제별그룹의 정경유착방지, 금전결탁의 사전 방지태세도 발주관청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중에 하나이다.

최초 발주처는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포해야 하는 의미를 스스로 이해한 후 공모를 해야하며, 공모기간도 너무 짧지 않게 해야 한다. 발주처의 일방통행식인 현상공모의 경우는 일반 응모자가 참여 안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없어 공모를 거치는 형식으로 이 공항현상공모를 시행한다면 안하느니만도 못하다. 더욱이 현상공모예산은 필히 사전에 확보하고 현상공모를 발주해야 한다. 실제 금번 국제현상공모에 응모하려면 경비가 최소 2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각 응모회사마다 2억원씩 소비한다면 10개회사가 참여하였을 때에는 최소 20억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공모에 드는 이 비용을 발주처에서 미리 참가예정자에게 밝히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요건으로 판단된다. 보상문제에 대한 언급도 국제 현상설계공모에 있어서는 기본사항이다.

당선 후 Concept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실례도 과거에 많이 보아왔는데 이런 사례가 금번 공모에서는 없어야 한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설계경기는 필히 작품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하며, 제작작품 목록을 요구 조건에 따라 응모한 것을 원칙으로 해야하고 이 요구사항이외의 추가로 설계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합격선에서는 제외시키는 규칙이 세워져야 한다.

항상 최종심사를 끝낸후 왈가왈부 말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현상설계공모로 가장 좋은 예가 대구박물관설계경기의 심사과정이 좋은 예로써 추천할만한 선례를 남긴 좋은 설계경기로 기억된다.

원래 설계경기는 Rule에 의하여 작품을 제출하게 하는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작품의 제출은 사라질 때가 되었다.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이번 국제현상공모에서는 협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건축사들도 자존심을 살려서 제대로 시행된 설계공모가 아니라면 이에 응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응모지침 위반자는 반드시 탈락시켜야 하고 규정의 준수는 발주자의 결의에 따라서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 “공정성의 결여문제”, 사전분배, 현상공모 상급의 문제, 준비위원 선정의 문제, 심사위원 선정의 문제, 작품심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의 숫자도 많을수록 어렵다. 적을수록 창의적이고 독특한 작품을 선정하게 되며 기능적인 면은 실시설계시 어느면이나 고쳐질 수 있는 것이라 보아 진다.

심사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분을 선정해야하고 심사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으면 한다.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은 자격이 없다. 이런 심사위원은 아예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교통부에서 밝혔듯이 현재 대한민국 건축사 사무소 개업 건축사 중에서 세계 최대 공항 건축설계 경험이 없으므로 해외에 용역사와 합동으로 설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심사위원도 필히 해외 심사위원이 위촉되어야 합당한 논리가 성립된다고 본다.

설계경기의 목적 또한 뚜렷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건축적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 작품성 위주라면 충분한 Presentation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구성도 건축 전문가로만 구성해야 한다. 구조나 설비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심사과정에서 고려 되어야 하나, 건축전문가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판단된다. 설비나 구조의 측면으로 당락의 향방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는 초래되지 말아야 한다.

구조안전진단 감상

Description of Structural Security Examination

李昌男 / 센구조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 - Nam

구조 안전진단 업무는 구조물의 설계, 시공과 아울러 재료와 구조역학 등 여러분야에 익숙하여야 수행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 보강,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더구나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거기에 덧붙여 각종 진단 장비를 마련하여 그 장비들의 적절한 사용방법과 측정결과와 분석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많은 첨단 장비로 무분별하게 많은 검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 시중에서 흔히 자행되는 구조 안전진단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70여명의 안전진단 기술자를 비롯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유명 대학병원에서의 오진률(誤診率)이 30%를 넘는다고 들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고혈압 치료가 지나쳐서 저혈압으로의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였고 아내는 암환자 등록증까지 발급받고 수술했으나 그게 아니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불과 100kg도 안되는 사람 몸, 한아름에 안아 올릴 수 있는 조그만 몸뚱아리에 생기는 병을 진단하고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둘러볼까 연구하는가? 그래도 사람은 쿡쿡 쑤실때 아프다는 말도 하고 얼굴색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유능한 의사는 환자의 표정만 보고도 웬만한 병명을 알아 맞추는가 보다.

구조설계 계산 업무를 천직으로 삼아 세월을 보내다 보니 널 회한한 일들이 많기도 하다. 이른바 “구조 안전진단”이라는 새로운 업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태어날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준공도 되기 전에 재구실 못하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이제 명이 다하여 헐어버려야 할 것 같은 꼬부랑 할머니격의 구조물을 재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멀쩡한 남의 집 옆구리를 건드려서 피해를 입히는 때도 있고 한두 층 더 증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물도 있다. 어쨌든 말 못하는 구조물, 그나마 설계도와 구조계산서라도 보관되어 있는 것은 좀 수월하나, 그것마저 없을 때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 “구조 안전진단”이다.

세상 인심이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지경으로 살벌해졌는데 이제는 자기 땅에 집 짓는데도 옆집으로부터 죄인 취급받아 빚정 고소 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마치 자기 집이 옆집 짓는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피해를 입기를 바라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원래부터 있던 금(Crack)도 당신네 집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가해자가 재벌 기업체면 더 심하다. 이 기회에 팔자를 고치려는 태도이다. 말 많은 아파트 동네 옆에 땅 가진 사람은 특별한 각오를 해야 하는데 심한 경우는 야간작업하는 불빛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피해 보상비로 1억 2천만원을 내라고 덤벼드는 것도 보았다. 공사 현장과 아파트와의 거리는 200m 정도였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구조 안전진단 용역 업무를 하여 회관 짓는데도 보탬이 되었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몇몇 사람이 안전진단 업무를 하는가 했더니 근간에 와서는 나한테 부탁해 온 것도 내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려 70명이나 되는 건축사들이 제각기 구조 안전진단 업무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순번제로 일감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건축사들 중에 구조를 꼭 꿰는 인사가 70명이나 된다니 한뼘 놀라운 일이다. Schmidt Hammer로 몇군데 두드려 보고는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다고 판결을 내리며 그것을 근거로 하여 구조물의 안전, 불안전을 판가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조 안전진단 업무의 내용을 대략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구조 안전진단 업무는 구조물의 설계, 시공과 아울러 재료와 구조역학 등 여러분야에 익숙하여야 수행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 보강,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더구나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거기에 덧붙여 각종 진단 장비를 마련하여 그 장비들의 적절한 사용방법과 측정결과와 분석 능력이 필수적이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종합병원에 입원했는데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이러 저리 끌고 다니며 각종 검사를 하다 병세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흔히 본다. 따라서 그 값이 수많은 첨단 장비로 부분별하게 많은 검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 시중에서 흔히 자행되는 구조 안전진단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70여명의 안전진단 기술자를 비롯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예비 조사와 잠정판정

병원에서의 문진(問診)에 해당되는 행위이다. 소아과 의사가 일반 내과 의사보다 어려운 점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병세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건축 구조물 안전진단은 항상 소아과 의사와 같은 조건이다. 그래서 눈치가 빨라야 한다.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챙겨야 하는데 그 질문 또는 조사 사항들을 Check List로 작성하면 편하다. 시공 당시의 상황과 건물의 사용 이력도 중요한 조사 내용이지만 진단 의뢰목적에 시공자나 건축주 또는 설계자와의 사이에 이해 관계가 내재되어 있을 때는 증언자들의 설명에 거짓이 있음도 감안하여야 한다. 어쩌면 판사가 변호사와 검사의 상반된 이야기를 들어서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 과정에서 하자의 원인과 증상이 발견되며 그 예상이 빚나가지 않았을 경우 무리없는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예비조사를 위해서 그 이전에 도면이나 구조계산서 등 자료를 개략적이거나 검토해 두면 한결 수월한 진단이 이루어진다.

2. 도면, 구조계산서 및 공사 기록의 정밀 조사

현장 조사에 임하기 전 확보된 자료를 정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설계나 구조계산상의 잘못은 물론 시공자의 실수도 대부분 이 과정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그 같은 자료가 없을 때는 다음에 설명되는 현장 조사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료가 있을 때는 현장 조사가 예견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일에 그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느낄 수 있는 “재마”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마치 보물찾기와도 같은 흥미 진진한 일이며 그 맛에 추위와 더위, 먼지와 땀을 자초하면서 이 일에 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구조계산, 설계, 시공 수준이 너무나 형편 없음에 놀라게 되며 세칭 일류급에 속하는 업체라해도 예외가 아님이 한편으로는 걱정스럽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앞으로 하자보수 업무만도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안전진단 장비의 활용

청진기만 갖고도 병명을 척척 알아 맞추는 명의가 있는가 하면 단층촬영 등 별의별 첨단 의료기기로 검사하고서도 엉뚱한 곳을 짚는 엉터리 의사도 있다. 한때 컴퓨터 사용 계약서를 첨부해서 구조계산 실력을 인정 받으려 하던 기술자가 있었듯이 구조 안전진단 장비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70여명의 구조 안전진단 신청자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 최근에 생긴 감리규정 때문에 콘크리트 비파괴시험기나 철근탐사기 등 몇 개를 사놓고 본전 생각이 나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잠깐 아래 얘기를 음미해 보기 바란다.

Schmidt Hammer : 10여년 전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시험을 위하여 필자가 갖고 있던 Schmidt Hammer와 서울의 모대학 비품 및 레미콘 회사의 것 3개를 동시에 갖고 다니면서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3개의 시험치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집에 새로 저울을 하나 사다 놓고 체중을 달아보곤 한다. 목욕탕에서 재보고 온 지 5분도 안되었는데 3kg이 더 나간다.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할텐데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다. 혹자는 목욕탕이나 찜질방 저울이 손님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적게 나가게 조정해 놓았기 때문에 새로 산 “경인”제품이 맞다고도 하는데 글썽 그 말이 옳은지 확인할 길이 없다. 시계가 안 맞으면 TV를 켜보아 맞출 수 있는데 저울은 어디에다 맞추는지 모를 일이다. 고민 끝에 알아낸 것이 Schmidt Hammer의 Calibration을 Testing Anvil이란 것으로 확인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hmidt Hammer를 소지하고 있는 수많은 기술자들이 Calibration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맞지도 않는 저울로 장사하는 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얼마전 신도시 아파트의 레미콘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아파트 한 동의 몇 개소씩 때려 보고 “된다”, “안된다”를 판정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보다 더 엉성한 조사 방법이다.

Schmidt Hammer는 콘크리트의 표면 강도를 알아내는 약식 장비이며 초음파탐사기는 의사들이 쓰는 단층촬영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단면 내부 결함을 찾는 데 활용된다. 조금더 확실한 장비라고 하던 Windsor Probe인데 화약의 힘을 이용하여 총알(Bolt)을 콘크리트에 박아보아 들어가는 깊이로 강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들 모두를 가지고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나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야 강도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간접 방법은 역시 Core를 채취하여 직접 깨보는 것 보다는 신빙성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것은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아무데서나 적용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그것도 표본으로 채취한 바로 그곳의 강도에 불과하므로 그 위치의 콘크리트 품질이 전 구조물의 콘크리트질을 대표하지 못할 때 의미가 반감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Core Sampling에도 문제가 있다. 철근이 잔뜩 들어 있는 보나 기둥 등 주요 구조부재는 뚫어낼 수도 없고 기껏 별로 중요하지 않은 슬래브나 벽 같은데를 택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불행히도 두께가 너무 얇아서 표준 Size Core를 채취할 수가 없다.

Profometer : 철근의 위치와 굵기 및 피복 두께를 찾아내는 장비로 최근에 많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철근이 복근으로 배근되었거나 집중적으로 뺨뺨하게 배열된 것 및 피복 두께가 너무 두꺼운 때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기초철근은

거의 측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안전진단을 위한 보조장비에 불과하다.

Crack Scale과 Deformometer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의 발생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허용 범위에는 논란이 많다. 어쨌든 하자 발생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균열인데 일반인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하는 반면 기술자들은 오히려 너무나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균열쪽의 허용치가 0.3mm나 하면서 절대치를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님을 현장 경험자들은 잘 알 것이다. 철근의 피복 두께가 필요이상 두꺼울 때는 균열폭이 커도 소정 피복 두께 위치에서는 이른바 머리카락 두께(Hair Crack)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균열이 발생하면 Epoxy Grouting을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벌어진 틈을 강력 접착제로 채우는 것은 부식이나 콘크리트 중성화 등의 노화 방지 대책으로는 나무랄데 없는 방식이지만 구조물 내력이 부족하여 파괴되는 과정에서 균열이라면 그 값은 간단한 처방만으로 방심했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창호지나 미농지를 붙여 놓고 날짜까지 기록해둔 것을 흔히 보게 되는데 아마도 그 붙여 놓은 종이가 또다시 찢어지면 균열폭이 늘어났음을 뜻한다는 생각때문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창호지나 미농지는 습도에 따라 심한팽창, 수축을 하는 재료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 목적이라면 얇은 유리조각(현미경의 Eye Piece가 적당함)을 강력 접착제로 부착하면 확실한 균열의 진전을 파악할 수 있다. 구조물의 변형과 관계가 있는 균열의 진전은 구조 안전진단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는 경과시간과 관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1회의 측정으로 판정하기는 어렵다.

즉, 균열폭에 진전이 있는 구조물은 Deformometer를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측정하거나 균열폭 진행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기온 변화를 비롯한 다른 요인이 복합 작용하므로 판단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균열은 부재 변형의 증상에 불과하므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구조 안전진단의 첩경이 된다.

수직, 수평도 측정 : 구조 안전진단에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이 수직, 수평도 측정치이다. 구조물이 파손 또는 붕괴되는 현상은 변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변형이 진행되는 구조물일 경우 시간을 두고 여러번 조사하여야 하는데 변형 진행이 정지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사전에 그 원인을 제거시키는 보강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변형치를 한번의 측정으로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구조물을 처음 지을 때부터 그렇게 비뚤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균열과 수직 수평도 측정을 병행하여야 이를 판정하는 자료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구조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음직한 구조물이면 될수록 일찍 외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멸절한 간물을 무슨 이유로 조사하겠는가 하고,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주변에서 내 건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하려는 눈치가 있을 때 자기 구조물의 수직,

수평도를 사전 측정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균열 개소와 폭 등도 명확히 측정, 상호 확인해 두면 후에 서로간의 분쟁 소지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가해자측도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해주는 땀땀함이 있어서 좋다. 수평도 측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주요 사항으로 조사대상 건축물에서 떨어진 위치에 Level 변형이 없는 곳을 택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일이다. 덤덤덤덤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면 후에 구조물 전체의 수직 절대변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직, 수평도 조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로는 재래식 Level이나 Transit, 몰로스, 추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용이 번거롭고 부정확하여 짧은 시간내에 여러 곳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 Laser Plane(레이저 광선을 이용하는 측량기기)은 매우 편리한 장비이다.

또한, X-Y 양방향 수직도 측정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고안 제작하여 사용하면 한결 수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수직도 측정에서도 수평 변위가 없는 기준점을 설정하여 구조물의 절대변위 확인에 이용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을 위한 조사는 어쩌면 잘못 설계 시공된 부위를 파헤쳐내는 작업이므로 설계자나 시공자의 부끄러움을 노출시키는 일일 수 있는데 그것이 그들로부터 정직한 증언 협조를 받기 어려운 이유이다.

하중시험 :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하중시험으로 구조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번거로운 일이므로 신중하게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하중 적재도 일시적이거나 상용하중치를 초과시켜야 하는 하중시험 규준을 감안하면 조사대상 구조물을 마치 시험용 몸모트로 취급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중시험에 임할 때는 건축주로부터 만약의 경우 시험 도중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된다고 해도 아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어야 함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하중시험에 사용하는 “하중”을 포대시멘트나 모래, 벽돌 등으로 쓰는 것을 흔히 보게 되는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손쉬운 것이다.

하중 적재할 위치에 비닐이나 Tent로 가설 Pool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물을 펌프로 담고, 뽑는 방식이다. 안전진단과 하중시험 장비를 마련함에 있어 시중에 그 장비 자체를 실제 이용하기 위한 적당한 보조제들이 거의 없는 형편이므로 현재로는 각자가 고안하여 제작 사용하는 도리밖에 없다. 생전 낚시 한번 해보지 못한 필자가 최근에 릴 낚시장비를 구입한 것도 구조 안전진단을 위해서이며 변압기에서 그라인다까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구상을 기웃거리야 하는 새로운 분야임에 틀림없다.

안전제일 : 구조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안전모, 안전화를 비롯한 신변 안전용품과 Head Lamp, 안전 사다리 등 잡다한 비품이 필요하다. 창고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청계천 철물상과도 같다. 몇달 전 이화여대 자연사 박물관 안전진단 과정에서 대학측의 사다리를 이용하다 추락사고를 일으켰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안전 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 (또는 제한)을 위한 개선 방안

Betterment Scheme of the Building Law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金海鎔/본협회 건축법령연구소장
by Kim, Hea Jeon

1. 서언

우리가 건축을 할 때 항상 접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지역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17조(지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역의 세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또는 없는)건축물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곤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대분류한 것이 건축법시행령 부표에서 정한 30개항의 건축물 용도이며, 그 항에는 적게는 1개, 많게는 9개의 용도로 세분하여 분류되고 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12개지역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발표에서는 1~12지역에 대하여 각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나열하고 있다.

지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지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등의 제한을 건축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실정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축물 용도의 다양성, 규모의 변화등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으나,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지역의 지정은 한번 지정되면 각자의 이해가 상반(지역지정에 따른 지가변동)하여 거의 변함이 없어 건축법령 적용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서 대로변에 접해 있는 비교적 필지가 큰 경우의 건축물을 건축할 시 근린생활시설 용도 면적 상한선을 두고 제한하는 현재 건축법령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1979. 10. 30일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9193호)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현재의 근린생활시설 면적규제는 80, 81년에 개정된 것을 시행하여 오다가, '90. 1. 18일 개정시 판매시설의 산정에 해당하지 않은 면적,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 용도분류 제4항 즉, 근린생활시설중에서 제1호 용도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9호의 용도가 복합되어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어야 하는 것을 1,000㎡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을 뿐 기타 근린생활시설을 세분한 용도의 면적규제는 과거 20년전의 3층내외 규모 및 연면적 800~1,300㎡(대지면적 약200~330㎡)규모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은 보통 연면적이 1,200~2,400㎡(대지면적300~600㎡)에 층수도 5~6층 규모인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동일 건물안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연면적은 부표 제4항중 제4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시술소 등)를 제외하고는 최대연면적 2,000㎡를 넘을 수 없으며, 연면적 2,000㎡이상을 동일 건축물안에 근린생활시설로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분류 제4항(근린생활시설)의 제4호에서 정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점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로 하여야 만이 가능하다(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참조)

3. 문제점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서 대로변에 접해 있는 비교적 필지가 큰 경우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토지이용도 및 경제성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을 가능한 한 크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가능한 한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중 제1~9호 용도(제4호

제외)에 허용하는 최대 면적으로 분할하여 연면적을 1,800~2,000㎡로 하고 잔여면적은 제4호의 용도 즉, 면적제한 규모가 없는 “의원, 치과의원, 안마사술소 등”의 용도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 실제 사용은 건축주(또는 임대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건축법시행령 별표 2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과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제4항 근린생활시설의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어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은 용도를 불법으로 무단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 건축법령이 정한대로 운용할 경우 주거지역안의 대로변의 대부분의 건축주를 무단용도변경자로 의법 조치할 수밖에 없으며 묵인하여 방치할 경우 건축법령의 준법성, 존엄성을 무시하게 되는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

4. 대안

첫째 : 도시계획법에 외거 지정한 지역(상업지역, 주거지역)을 그 도시지역 설정에 부합되게 재지정하도록 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상업지역, 주거지역)을 재지정할 경우 지역지정에 따른 지가 상승(또는 하락)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지역을 재지정 하려고 할 경우 지역 재지정(조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건축법시행령에서 별표 1~6에서 정하는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현실(도로 및 주변환경)에 적합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1) 개선운영방안

① 40(광로)이상 도로변 : 중심상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로 한다.

② 30m(대로2류)이상 도로변 : 일반상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로 한다.

③ 25m(대로3류)이상 도로변 : 근린상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로 한다.

④ 20m(중로1류)이상 도로변 : 준 주거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로 한다.

⑤ 25m(대로3류)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과 주거지역사이에 1개블럭 정도를 준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한다.

*상기 도로폭(20m~40m)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는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이라도 시장, 군수가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별도 지정한 지역(상가①~⑤참조)내에서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서 지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셋째 : 건축법시행령 부표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 대형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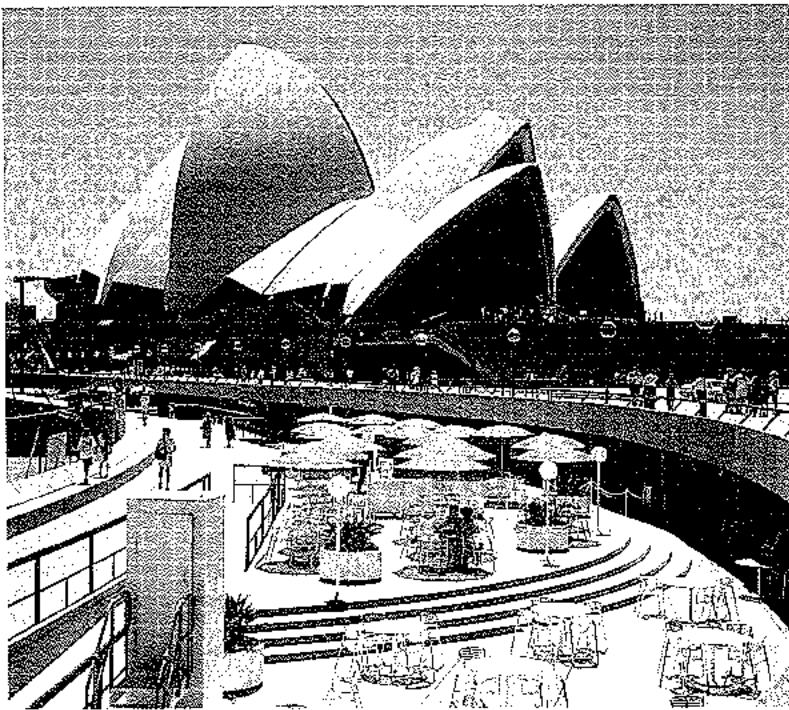
[건축법 시행령 부표]

현행	개정(안)
④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사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④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 1천제곱미터
2.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기원(90. 1. 18. 개정)	2. 좌 동
3.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3. 좌 동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사술소	4. 좌 동
5. 정구장, 탁구장, 헬스클럽,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좌 동
6.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85. 8. 16개정)	6. 금융업소 1천제곱미터
7.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91. 12. 17 신설)	7. 좌 동
8.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규에 의한 도시형 업종의 제조장 및 방아간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91. 1. 15 신설)	8. 좌 동
9. 당구장, 청소년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90. 1. 18 개정)	9. 좌 동
10. 사관, 표구점, 예능계학원, 기술계학원(주산, 부가, 타자, 속기, 경리, 속셈, 속도, 용변, 변론, 언어교정, 컴퓨터에 한한다),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0. 1. 18 개정)	10. 좌 동
⑬ 판매시설 1. 도매시장(84. 5. 7개정) 2. 소매시장 :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 대규모 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89. 11. 20)	⑬ 판매시설 1. ~ 2. : 현재와 동일

노년층의 주거연속체와 공동체형성(2)

Housing Continuum for The Elderly and Formation of Retirement Community

朴泰煥/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Park, Tae-Whan



Ⅲ. 노년층의 주거연속체/3단계 노인주거 프로젝트

2. 반의존노인계획주거/노인서비스주거

반의존세대(Semidependent Households)는 조리(Cooking), 청소(Cleaning) 또는 개인적 간호(Personal Care)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상생활 활동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시설(Home for the Aged / 노인홈)이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또는 다른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거주자가 만일 개인적인 보호 또는 일상생활 중의 그들의 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의존세대주로 취급된다.

이러한 집단은 낮동안의 건강보호(Day Health Care), 가사서비스(Home-Maker / Chore

Services), 가정건강서비스(Home Health Service), 식사배달(Meals on Wheels) 서비스 등과 같은 가정복지서비스프로그램(Home-Based Service Programs)의 원칙적 대상집단이다.

반의존세대 범위는 보호시설(Boarding and Care Homes), 노인호스텔(Retirement Hostel), 계속보호시설(Continuing-Care Homes)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식사, 가사서비스, 약간의 개인적 보호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거주자가 필요하거나 선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New Comer, Lawton, Byert, 1986)

이러한 시설은 노인독립주거와 노인간호시설의 중간형태로, 반의존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수준의 정상적인 복지서비스의 가장 오래된 유형이다.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일한 형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최초의 사용은 네덜란드이며,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하숙시설(Boarding Homes)이다. 최근에는 건강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도움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일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시설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박태환/서의택, 1985)

영국 - Residential Homes

Rest Homes

Hostels for the Aged

스웨덴 - Municipal Homes for the Aged

노르웨이 - Residential Homes

네덜란드 - Boarding Homes

Homes for the Aged

Serviced Homes

미국 - Communal Homes

Congregate Housing

호주 - Hostels Accommodation

Serviced Apartment

서독 - Pensioners' Dwelling Home

일본 - 양호노인홈

한국 - 노인양로시설

이러한 시설의 초기에는 단지 식사를 제공하거나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정도였으나, 최근의 대부분은 공동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여가와 오락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박태환, 1985)

그리고 의학적 보호를 위해서 부속된 노인간호시설이나 노인병원을 두고 있다. 거주자들은 완전히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으며, 그들이 좋아하는 방문객도 올 수 있고, 거주자는 집안에서나 집밖에서 자발적인 협조 아래에서 그들 자신의 노후를 보람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가. 기준과 지침(Guideline)

최근에 노인문화시설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는데는 많은 발전이 있어 왔다. 가장 두드러진 실례는 스웨덴에서 볼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개인실의 비율이 높다. 각 실은 작은 아파트처럼 계획되고 장비되어졌다. 각 실에는 작은 칸막이로 된 입구가 있으며, 명찰과 편지함이 있다. 또한 각실에는 개인세면실과 화장실, 그리고 각 층에는 공용욕실이 있다. 욕실에는 시중드는 사람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가까운 거리내에 시중드는 사람이 대기하게 되어 있다.

건물의 일반적인 형태는 크기에 있어서 다양하다. 스톡홀름에는 보통의 아파트와 외관상의 구별이 없는 다층구조가 있다. 내부에는 순회 의사나 간호원을 위한 간호실을 두고 있으며, 물리적 요법과 운동을 위한 시설도 있으며, 이발소, 미용소, 커피판매점, 음식점 등이 있으며, TV가 설치된 곳에는 식당과 공용욕실이 있다.

각층에는 추가시설로 거실, 전화박스, 냉장고, 그리고 식품저장실 등이 각 거주자를 위해 분리되어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노인양로시설의 설계와 계획에 관한 기사, 소책자, 보고서, 서적들이 출판되어 왔다. 이러한 출판물에는 서로 유사한 이론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정부의 규준에 추가해서 쓸모있는 추천사항이 자선단체에 의해 나왔다. 이들의 대부분은 인체측정학, 인체공학, 사회적 연구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사례연구의 기반위에서 공식화되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규준은 이용자의 견해와 근본적으로 타협된 것과 경제적인 관점이 고찰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노인층의 규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인양로시설에서의 생활은 항상 비용이 나간다. 왜냐하면 편의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많은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년층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빈약하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나 자선단체의 기금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노인층의 규준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각국의 노인양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 사이에는 사회적 차이가 있음을 또한 인정해야 한다. (박태환, 1985)

나. 거주단위의 집합규모(Number of Units)

가장 적당한 규모문제는 야기되지 않으며, 단지 무엇보다 시설이용자의 잠재적인 수,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을 더 원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선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보호시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확보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영국에서는 적당한 보호시설 규모가 규제되었다. 소위 Hostels라고 불리어지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주택이 25~40명이 거주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1962년, 보건성에 의해서 30~60침상이 규모가 언급되어 있다. 1957년에 건립된 Picton Lodge는 73침상, 1958년의 Roupell Court는 80침상이다.

스웨덴에서는 50~70침상이 확보되었다. 건축가 Boustedt는 "노인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지방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50~70침상이 초기에 건립되었으며, 이 정도 규모가 경제적으로 가장 건전한 것임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대전후, 네덜란드에서는 50침상이 최초로 최고의

수용규모로 고려되었다. 이것을 나중에는 최소규모로 확보되었다. 소규모의 노인홈을 위해 계속된 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리하는 데는 너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실례는 많다. (Kerk, 1963) 네덜란드 노인주택 중앙조직에 따르면, 경영에 많은 경험을 가진 비영리단체의 250침상이 시설은 175침상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다른 전례가 있다. 50~70침상을 확보하는데 개인이나 단체는 대규모 노인양로시설에서는 거주자들을 수용시키고 있을 뿐 노인자신들의 진실된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의 주택건설부 주택연구국의 연구대상은 첫째, 규모의 요소는 노인독립주거에서부터 공용노인홈의 변이와 노인홈내에서의 조정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생활은 혼란되어 그 이전의 주택에서보다 더 큰 쓸쓸함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노인홈 입주여부의 결정요인이 된다.

둘째, 노인홈의 규모간의 관계, 거주자간의 관계에 대한 조사이다.

셋째, 특별한 규칙이 필요한 대규모 노인홈에서의 이러한 규칙이 노인들의 개인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극단적인 사무적 접근이 주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조사이다.

이것은 또한 대규모 노인홈에서는 보다 큰 범위의 휴식적인 공간을 제공할 가능성과 대규모수용의 결과로 수용력과 설비시설에 영향을 주는 것도 연구할 필요를 느낀다.

작은 규모의 노인홈은 커뮤니티와 같은 어떤 창조적인 기회는 보다 더 훌륭하게 제공할 수 있으나, 거주자수가 적기 때문에 대인간의 친밀감과 활동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친밀은 대담과 개인적인 자유의 부족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대규모 시설에서는 클럽활동이 소규모시설에서보다 성공할 기회를 더 가지게 된다.

서독의 Mittag와 Steinmann에 의하면 50침상을 최소규모로 보고 있다.

Scholl은 70~140침상을 주장하며, 적십자단체에서는 최대수용시설규모를 80~100침상을 권고하고 있다.

다. 대지조건(Site Factors)

대지조건에 대하여 각국의 공통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영국의 보건성에 의해서 간행된 기록에 의하면 대지는 상점, 교회, 접대장소 등 시 또는 읍의 정상적인 절적인 편의시설의 접근이 쉬워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손쉬워야 한다.

격리된 대지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의 대규모 집중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연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이 강조된 이래, 양쪽 다 피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보고서는 아름다운 주위환경속에 있는 고립된 조용한 대지를 추천하고 있다. 거주자들의 공통적인 쓸쓸함은 그러한 선결의 결과일 수가 있다.

서독의 적십자 단체에서는 친척과 친구들과의

교체를 유지할 수 있는 쉬운 접근성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던 이웃에 인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유쾌한 산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끄러운 주위환경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스위스에서는 수목으로 경계를 이룬 호젓한 대지보다 활기 있는 이웃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프랑스의 한 조사는 응답자의 5/6는 관습적인 거주자안에 시설을 갖기를 원하거나, 또는 적어도 주변지역 환경내에서 자하철에 의한 접근이 쉬워야 한다고 한다.

서독의 Scholl은 영국보고서가 제출한 원칙에 참가해서 주도로에 나 있는 똑바른 출구는 권한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점은 서독의 규준에도 언급되어 있다.

벨기에 정부 규준에 따르면, 노인들은 시끄러운 곳, 위험한 곳, 건강을 해치는 기업 가까이에 위치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규칙의 중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에 의해서 지방 커뮤니티에서부터 노인들은 손쉬운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식료품상점, 일용잡화점 가까이에 있어야 의사, 건강서비스, 쇼핑센터의 접근이 쉬워야 한다.

노인들이 젊은 시절에 활동했던 친숙한 주위환경은 종종 우수한 곳이 된다. 도시지역에 재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기후적 조건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날씨에 노출시키는 방법은 적당한 대지 선정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된다. 갑작스럽고 극렬한 온도 변화가 있는 대지, 지나친 습기 또는 바람이 부는 대지는 회피하는 비율이 높다.

Cornell대학 주택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다.

① 대지는 가파른 길, 경사로 또는 계단의 필요를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거의 평지가 되어야 한다.

② 대지는 주교통로에 의해서 모든 외측이 경계되어서는 안된다.

주도로의 건물목이나 각각의 교차점이 없어 대지를 떠나 쇼핑, 또는 공원 산책이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모든 시설은 차를 타거나 거리에서의 접근이 편리해야 한다. 자동차나 택시에서부터 걸어야 하는 길은 반드시 짧아야 하고 직접 연결되거나 하고 계단이 없어야 한다.

④ 대규모 개발에서 서비스 진입로와 정문의 분리는 배달이나 이와 유사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상시의 엠블란스 출입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⑤ 상당한 양의 도로밖 주차장도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차를 운전하는 노인들의 수는 적은 반면 항상 주차하게 된다.

⑥ 옥외 의자나 오락장소는 적당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라. 개인거실 (Residence Room)

현대적 시설에는 전통적인 시설과는 달리 거주자를

위한 독립된 개인실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검토 중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높은 비율의 개인실이 확보되고 있다.

여러 나라의 새로운 노인양로시설에는 독신자를 위한 개인실과 결혼한 부부를 위한 극히 제한된 수의 부부실을 두고 있다.

영국의 노인 Hostel의 규준에는 개인실과 부부실이 언급되어 있으며, 덴마크에서는 각 거주자들이 자기자신들의 개인실을 가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노르웨이에서는 개인실은 독신자를 위해서, 부부실은 결혼한 노부부를 위해서 준비되어진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건립된 노인양로시설은 1개의 부부실에 5개의 개인실의 비율이다.

벨기에의 새로운 노인양로시설 중 개인실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부부들을 위해서는 거실(Sitting Room)과 독립된 침실을 가지는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다.

노인양로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거실은 독립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주택이나 아파트와 똑같이 중요하다.

거주자들은 자기자신들의 방에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방에서 취미에 따라 정리된 자신의 가구, 사진, 책, 골동품, 기타 소중한 물건들을 갖춘 개개의 환경을 창조시킬 수 있다.

그들은 또한 노인양로시설의 내외부에서 친척과 친구들의 응접을 원한다. 적어도 그들이 단기간의 질병으로 시달릴 때는 자기 방에서 간호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박태환/서의택, 1985)

1) 거실의 규모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록 여러 경우의 규모가 매우 최소치로서 판단될지라도 규준에 규정되어 있어 이 원칙에 따라 새로운 노인양로시설에 실현되고 있다. 실제의 방의 크기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실은 $9m^2 \sim 17m^2$ 까지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실이 결방(Anteroom)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다른 개인실에서는 세면기와 옷장만을 가진 약 $3m^2$ 의 조그마한 결방이 있거나, 충분한 욕실과 옷장을 갖춘 $7.4m^2$ 의 결방도 있다.

이들 결방은 극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실의 본래의 특성보다 옷장, 세면장, 화장실을 위해 위치되며, 아파트와 같은 성격의 거실과 공공복도의 단위 간막이로 강조되어 각 거주단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게 된다.

네덜란드에서는 노인들이 차, 커피, 또는 약간의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전열기가 제공된다. 주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에서는 화장실이 제공된다.

각국의 거실과 결방의 면적은 아래와 같다.

영국의 규준에는 개인실의 순면적은 $10m^2$ 이며, 이상적인 면적은 $13m^2$ 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2년 보건성에선 $8.9 \sim 10.2m^2$ 를 추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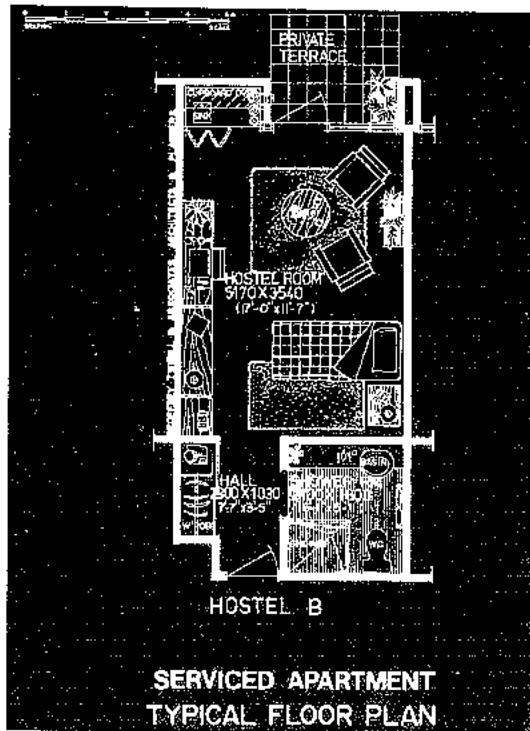
스웨덴의 예에는 개인실의 순면적은 $10.2m^2$ 와 결방(화장실, 세면장, 옷장)의 면적이 약 $4.6m^2$ 이다.

또 다른 예로 14.6m²에 3.7m²의 결방이 있다.

노르웨이의 예에는 9.6m²의 개인실과 2.4m²의 결방, 그리고 10.5m²의 각실에 3.5m²의 결방이 있다. 양쪽 다 결방에는 옷장, 세면기가 있다.

네덜란드의 주택성에선 정부보조시설의 개인실 최소면적을 10.5m²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예를 분석하면, 2.4m²의 결방(세면장, 옷장)을 갖춘 10m²에서 17m²의 각실에 결방을 갖춘 경우가 있다.



독일 적십자에서는 개인실의 면적은 최소한 15m²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위스에서는 결방이 없는 10m²에서 결방이 있는 13.6m²까지이다.

어떤 결방은 화장실, 세면기와 간이부엌을 갖춘 6m²의 규모이다. 프랑스에서는 13m², 벨기에서는 12m²를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19.25~26.25m²이다. (그림 7, 8)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자기의 가구를 가져오기를 원한다. 네덜란드의 예를 들면, 커튼, 마루 덮개, 침대를 노인홈에서 제공받지만, 나머지 가구는 대개 거주자들이 준비한다. 노인홈에서 침대를 제공할 때는 간호목적용을 위해서 적당한 높이조절이 가능한 침대를 선택하고 있다. (박태환 / 서의택, 1985)

2) 화장실과 욕실

각 거실에는 하나의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이다. 이 해결은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요구와 상응한다.

거주자들은 밤동안에 복도를 횡단하는 일은 필요치 않으며, 공동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거주자들 사이의 어려움을 또한 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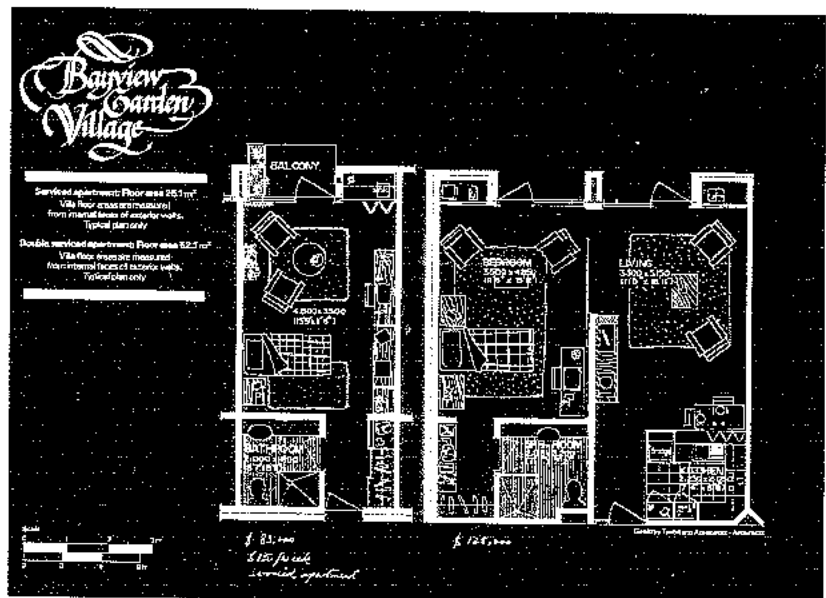
스위스에서는 공동화장실은 점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영국의 1951년의 표준은 거주자 10명당 화장실 1개이며, 1962년의 보건성의 표준은 거주자

6명당 1개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공동화장실에 대한 규준은 없다.

노르웨이에서는 10명당 1개의 비울이며, 네덜란드에선 7~8명당 1개이며, 각 실과의 최대거리는 16m이다.

서독의 규준은 여자 5명당 1개이며, 남자 8명당 1개의 비울이다.

프랑스에서는 각 거실에 세면기, 화장실, 비테를 가능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② 반의존노인 서비스주거의 단위평면도
- ③ 반의존노인 서비스주거의 단위평면도

미국에서는 완비된 욕실, 세면장, 화장실이 거실에 부가된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세면기가 거실이나 결방에 설치된다. 충분한 욕조, 샤워, 케비넷이 거실에 설치된다.

이 경우, 거주자들이 목욕할 때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로 공용화장실보다 공동실의 형태를 더 중시하게 된다.

네덜란드에서는 직원들이 한쪽 욕조에서 다른 욕조로 빠르고 쉽게 조력하기 위해 두개의 욕실이 때때로 제공된다. 그 반면,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샤워실을 가지는 데 익숙해 있으므로, 거실에 샤워 케비넷이 부족한 것은 특별히 관습적으로 느끼게 된다. 많은 노인들은 욕조의 출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좌식욕조나 샤워케비넷은 더욱 편리하다.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용 리프트는 목욕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거주자를 위해 유용한 도움이 된다.

영국의 1951년 규준에는 거주자 10명당 1개의 욕실 또는 각 층에는 1개의 비울로 욕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2년의 규준에는 거주자 15명당 1개의 욕실을 규정하고 있다.

1947년의 노르웨이의 규준은 30~50명의 수용력을 가진 노인홈에 2개의 욕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독의 Sholl은 각 층마다 1개의 욕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환 / 서의택, 1985)

마. 사회적 공간(Social Space)

1) 공용실(Communal Room)

거주자들의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로비, 홀, 사회구역, 옥외공간이다.

로비는 사적 활동, 소규모활동, 대규모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라운지 또는 공용실로서 노인홈에서의 집단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홀은 통로, 직원공간, 거주자들의 활동을 위한 중심공간으로 남게 된다.

로비나 통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구역은 중요하다. 각 층에 소규모로 사회공간을 두어 해당층에 있는 거주자들의 친교를 고무시키고 있다. 그리고 옥외공간은 도심지내의 노인홈에서는 주요관심이 된다.

직원용 공간은 직원들이 자기의 사무실에 앉아서 옥외구역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건물내의 가장 최선의 안전은 모든 방문자들을 직원이나 관리자에 의한 로비의 감시장치를 통해서 출입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독서실, 취미실, 재봉실, 흡연실, 일광욕실은 소규모로 분산시키고 있으며, 파티, 연극, 영화, 강연 등을 위해서 대규모의 공용실이 필요하다. 이들을 융통성있게 수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식당을 두어 겸용하고 있다. (박태환, 1985)

오락용 목적으로 하는 방은 다양한 용도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방의 연결은 하나 또는 다소 큰 방보다 좋다.

작은 방보다 비정규적이며, 수용시설의 분위기를 덜어 준다.

영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련의 작은 방은 독서, TV시청, 라디오 청취, 흡연 기타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오락활동사이의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여러 나라에서 도서관, 1~2개의 취미실이 제공된다.

오락실의 수가 많으며,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주자 1인당 오락실의 면적에 대한 명백한 기준치는 없으나 대개 1인당 오락실의 면적은 1~3.5m²(옥외면적 포함)이다.

독일의 적십자 단체에 의해서 발표된 공용실은 대형식당, 독서실, 공용실, 흡연실, 기사실, 취미실이다.

벨기에 정부의 규준에는 남·여 각각 2실을 규정하며, 총면적은 거주자 1인당 0.85m²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식사후에 자기 방에서 쉬게 되는 강함에 비추어 동시에 공용실에 보이는 수는 50%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순오락면적은 1인당 3m²로 규정하고 있다. (박태환 / 서의택, 1985)

2) 식당

식사실에 관한 실례는 아래와 같다.

첫째, 네덜란드에서 가끔 있는 일이지만 식당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원들에 의해 음식이 배달되어 거주자들이 자기 방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둘째, 스웨덴에서 종종 있는 일이지만, 노인양로시설에 걸쳐서 소규모의 식당을 분산

제공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 검토 중에 있는 여러 나라(노르웨이, 서독, 스위스,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의 경우와 같이 모든 거주자를 위해 한 개의 대형 식당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가장한다면, 공동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기를 원하든지, 자기 방에서 음식이 배달된다고 가정한다면, 공동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된다.

첫번째의 경우는 거주자들의 거실에 자기의 식탁, 그릇 등을 두어야 하며, 두번째, 세번째의 경우에는 많은 일들이 직원들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것은 식사습관의 차이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식당에서 매일 따뜻한 음식이 제공된다. 적어도 아침식사는 거주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주자들의 방에 배달된다. 거주자들의 방에 배달되는 식사방법은 노인들의 일상생활계획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자유를 주게 된다. 그 반면에 식당은 보다 공동생활을 위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주거자들의 무질서한 식사 습관이 있을 때는 항상 즐거울 수는 없다.

스웨덴에서는 수용시설의 분위기를 피할 목적으로 분산된 소규모식당(6~12명)을 두어 식사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확실히 훌륭하게 설계되고, 실내장식이 잘된 대형식당은 소규모식당보다 거주자들에게 광범위한 선택을 갖게 한다.

영국정부의 식당의 크기는 거주자 1인당 1.39m²를 추구하고 있다. 최소치는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허용되는 공간이다.

1962년 보건성의 표준에서 의자와 식탁의 수급공간은 약 4.6m²이다.

스웨덴의 노인양로시설에 제공된 것을 분석하면 거주자가 1인당 1~2m²이다.

네덜란드 주택성의 규준은 거주자가 1인당 1.5m²이며, 스위스의 노인홈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인당 1.5m²이며, 스위스의 노인양로시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인당 1.3~1.8m²이다. 서독의 Sholl은 1인당 1.0~1.5m²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서독 적십자 단체에서는 하나의 대형식당 보다 여러 개의 소형식당을 택하고 있다.

벨기에의 규준은 1인당 1.7m²이고, 미국은 1좌석당 1.5m²를 규준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대규모 1실형이며, 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박태환 / 서의택, 1985)

바. 보건·간호부분

노인양로시설에서의 간호·보건부분에 관해서는 유의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다.

이러한 차이는 한편으로는 노인홈의 역할의 개념에 근본적으로 반대의 개념으로 돌리지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상황에 기인한다.

초기의 모든 시설에는 모든 노인들이 함께 모여졌다. 이러한 시설들은 바꾸어졌거나 현대화되어졌다.

간호와 보건문제는 노인양로시설과 간호시설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진다.

노인양로시설은 주로 주거에 적합하도록 제공되고,

환자들을 위해서는 일반 종합병원이나, 노인간호시설을 제공한다.

어떤 예로는 노인양로시설에 많은 의료시설을 자체로 개발시키고, 그것에서 모든 종류의 보건진료와 간호시설을 노인양로시설내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Dr. Frederick D. Zeman은 이러한 개발에 관해서 노인양로시설은 수동적인 태도를 포기하고 예방과 치료의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시킨다는 점에서 중간의료시설로 간주된다.

일반병원과 높은 수준의 의학적 간호,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노인양로시설은 그 자체로서 신체장애나 부능력의 노인들의 능동적 간호에 더욱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양로시설이 이 방향으로 개발되어지고 질환치료와 간호시설을 설비할때, "복합시설" 또는 "2단계 프로젝트(Two-Step Projects)" 즉 "노인양로시설과 간호시설의 결합"이라고 해야 한다.

미국의 노인양로시설에는 부가진료부분, 진단과 회복을 위한 장비를 포함하지만, 짧은 기간 또는 개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었고 종합병원의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를 위해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진료부분은 주거부분의 10%이다. (박태환/서의택, 1985)

호주에서는 노인양로시설과 간호시설을 동일단지내에 시설시키고 있다. 노인양로시설에 입주한 거주자들에게도 단기적 감정적인 간호혜택이 허용되고 있다. (박태환, 1985)

아. 기타시설

1) 직원시설

노인양로시설에 있어서 거주자의 수에 대한 직원의 비율은 거주자의 건강과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직원과 거주자의 비율은 대개 1:3~1:10이다. 공식화된 기준은 불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

거주자의 건강정도, 노인양로시설의 배치와 시설, 노인양로시설의 규모, 수행기능성에 따라서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는 정상시간수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지 않다.

즐겁고 가정적인 환경은 유능하고 안정된 직원을 미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찰된다.

2) 보조실

대부분의 경우 몇몇 보조실을 거실 가까이에 두어 거주자나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게 한다. 그 용도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며 구별되어 이름이 붙여진다.

보조실은 그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다.

- 1) 커피용 부엌
- 2) 재봉실
- 3) 거주자용 창고(가구, 의류)
- 4) 생활필수품 보관창고
- 5) 휠체어 보관창고
- 6) 청소부실

3) 예배실(Chapel)

종종 예배실은 분리된 건물이나 때때로 건물의 일부분에서 제공된다. 그리고 때때로 다른 목적의 사용을 위한 실도 종교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된다. 강당, 라운지, 도서관, 공용거실 등이 예배실로 겸용된다. 노인양로시설에서는 어느 특정의 교파만을 의도하지 않고 서로 다른 교파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계획된다.

그리고 호주의 대부분의 프로젝트에는 예배실을 별동 또는 건물의 일부분에 두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을 교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단지의 중심을 교회를 두고 있다. 때로는 종교적 서비스(호주에선 대부분 기독교)의 겸용을 강당, 공용식당, 라운지, 도서관 등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양로시설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주자에 의해 종종 사용되지 않더라도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불충분한 건축계획에서 오는 조직상의 불화, 예견의 부족, 시설책임자에 의한 의사결정의 과실은 거주자들의 거주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앙부엌, 보일러실, 중앙 세탁실, 창고, 수선가게, 작업실, 관리인 사무실 등은 작업이 수행되는 완벽한 분석을 기초로해서 계획되고 있다. 특히, 이·미용실, 선물가게, 신문판매점, 전화박스, 방문자실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하고 있다. (박태환/서의택, 1985) 그리고 배치계획은 개인공간 소규모의 그룹으로 묶어서 공용공간과 분리하여 인접시키고 유기적 관계를 갖게 하고 있다.

3. 노인간호시설/요양시설

노인간호시설(Nursing Home for the Elderly)은 노약자나 노인환자들에게 장기간의 높은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가 겸비된 주거시설로서 3단계 프로젝트의 세번째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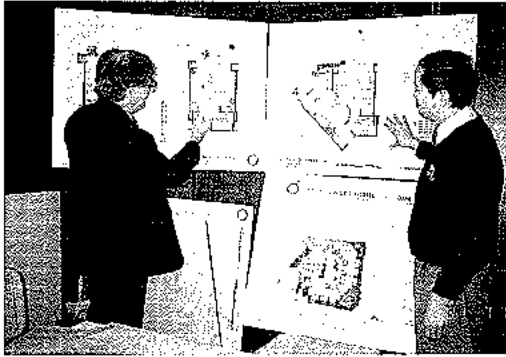
간호시설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내에서 자기자신을 돌볼 수 있는 단계가 지난 노인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대책이다. 건강보호나 병원의 치료를 위한 시설의 개발은 모든 노인들의 건강과 자립된 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개발때문에 냉혹한 환경을 극복하기에 완전히 무능한 노년층에 대한 비참한 견해나 그러한 상태에서 야기되는 공포를 덜어주게 된다.

삶의 최후기간에 처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요구나 열망에 부합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건축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박태환/서의택, 1986)

노질환자를 위한 의학적인 치료나 장기간호에 대해서는 정확한 치료없이 만성적 질병을 방지하고 초기에 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차후의 신체적 무능이나 정신적 질병을 주도하게 될 것을 가능하면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성질병과 싸우기 위해서나 그것의 영향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한 회복할 수 없는 환자들이 가능하면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최상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행해져 오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치료와 간호의 향상은 노화 생리학적 과정에 관한 새로운 발견, 새로운 약의 발견, 진단과



4

치료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개발의 결과이다. 노인병에 대한 현대적 접근 방식은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참석한 개척자들은 오랫동안 중사해오면서 현대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의학적, 사회적 조직을 만들고 체계화해야 했고, 개인적인 생각과 국부적 상태에 따라 다른 종류의 조직으로 발전되었다.

때때로 그 일들은 노인병분야가 발달된 종합병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다른 경우 노인 질병에 대한 현대적 접근은 환자가 어떤 단순한 간호로 회복할 기미가 없는 만성환자를 위해 오래된 병원에서도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병원당국은 자주 너무 많은 노인환자의 수용을 피하려 했다. 그래서 많은 노인환자들은 다른 수용시설, 개인의료원 노인병학자들은 노인환자들에게 특별히 무능해지는 것을 막기에 적합한 치료와 간호의 몇가지 형태가 요구됨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자 광범위한 시설들이



5

4 새로운 모델의 노인서비스주거의 단위평면도

5 대학병원

6 대학병원부속 노인병 연구소

개발되었다. 그 시설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Glenn H. Beyer)

1. 종합병원의 노인병과
2. 노인병원 또는 진료소
3. 종합병원이나 노인병원의 장기환자 별관
4. 재활시설을 갖춘 노인간호시설
5. 재활시설이 없는 휴양의 집
6. 재활시설이 없는 노인양로시설이나 3단계시설의 노인간호시설
7. 병동과 재활시설의 중간시설
8. 정신병원의 노인환자를 위한 병동
9. 노인정신병환자를 위한 특수간호시설
10. 신체허약노인을 위한 주간병원



6

11. 일반간호시설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동

12. 정신허약노인을 위한 주간병원

이들의 시설들은 동일지역내에 세워지지 않는다. 이 중 노인간호시설의 건축계획과 설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박태환 / 서의택, 1986)

가. 병상규모(Number of Bed)

노인간호시설은 일반적으로 소규모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서비스와 양질의 간호를 위한 경제적인 고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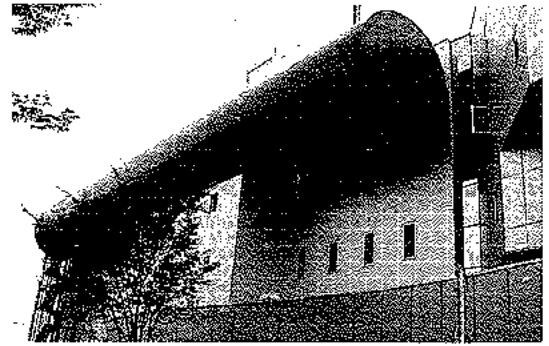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 노인들을 간호하는 것은 어떤 공공수용시설 보다는 가정과 같아야 하고, 친척이나 친구들의 방문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웃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Morris, 1960)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등의 여러 나라에서 50병상 이하로 하고 있다. 그 이상의 병상이 요구될 경우는 간호단위를 다원화하고 있다.

나. 대지선정

노인간호시설의 대지조건은 노인서비스주거를 위한 대지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손쉬운 접근, 활기있는 조망, 교통소음으로부터 격리된 곳,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을 손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노인간호시설에 대한 F.H.A의 표준지침에 의하면 지역활동의 의사와 의료시설, 지역시설의 서비스의 중심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거리내에 있어야 한다.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No. 334, 1962)



7

다. 환자의 개인공간(Patients' Personal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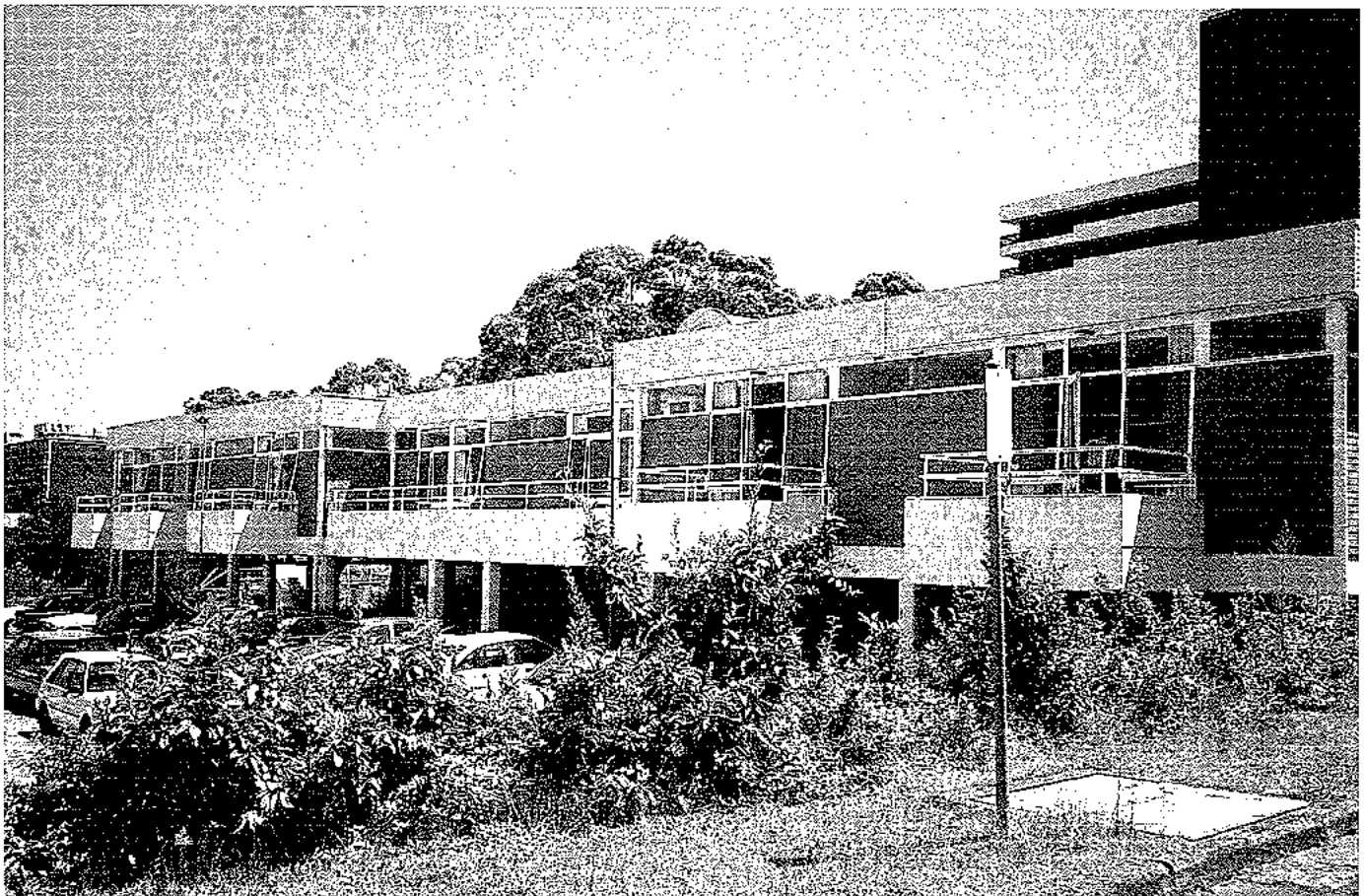
노인간호시설의 환자 개인공간에는 환자병실(Ward), 화장실, 욕실, 샤워실이 있다. 환자실은 5인용 또는 4인용, 2인용, 1인용이 있어서 개인적 간호의 필요에 따라서 다수인의 공용환자실에서 1인용 환자실로 옮겨가게 된다.

특히 2인용, 1인용실엔 동일실에 인접해서 위생공간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다. 5인용 또는 4인용실의 환자들을 위한 화장실도 환자실 가까이에 위치시키고 있다. (박태환, 1986)

1) 환자실(Patients' Rooms)

장기 노인병환자를 위한 간호단위의 설계는 최근의 병원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병상이 실내에 놓여지지 않고 공용복도쪽으로 기둥사이의 간이 개방되어 있어서 간호와 감독을 쉽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실이 4병상(박태환 / 서의택, 1986)으로 설계되어 있다. Torbon Geile은 1~2병상이 장기환자에게 가장 적당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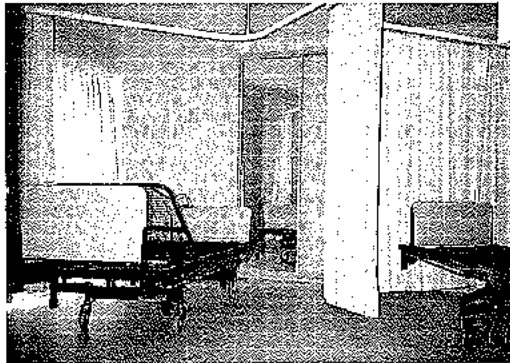
7 노인병 연구소의 내부
8 노인병 연구소의 전경



8



9



10

스웨덴, 네덜란드, 서독, 스위스, 미국에서는 1실에 1~2병상과 4병상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제약이 노인간호시설의 배치에 영향을 준다. 환자실은 보다 가정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이상적인 조건아래 1~2병상을 환자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수년동안 머물러야 할 환자를 위해서는 가정과 같은 실험을 설계하고 있다.

2) 화장실·욕실

화장실은 환자실 근처에 인접해 있어야 한다. 근접한 화장실은 무절제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이다. 인접한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의 환자들은 화장실에 갈때 복도를 횡단할 필요가 없고, 복도의 찬공기를 마시지 않아도 된다.

환자 4명에 대하여 화장실 1개의 비율이 적당하다. 작어도 하나의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 환자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게 크기가 정해져야 한다. F.H.A.의 기준은 $1.5 \times 1.83(m^2)$ 이고, 네덜란드의 기준은 $1.75 \times 2.25(m^2)$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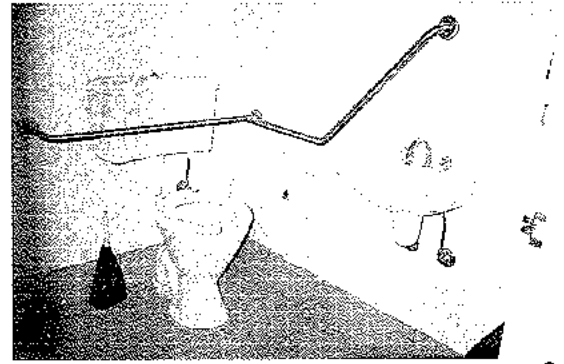
세면장을 공용으로 할 경우에는 환자 7~8명당 1개이다. 세면기 양쪽에는 반드시 핸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울, 옷걸이, 의자 또는 벤치, 소켓트,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또한 몇몇 세면기는 휠체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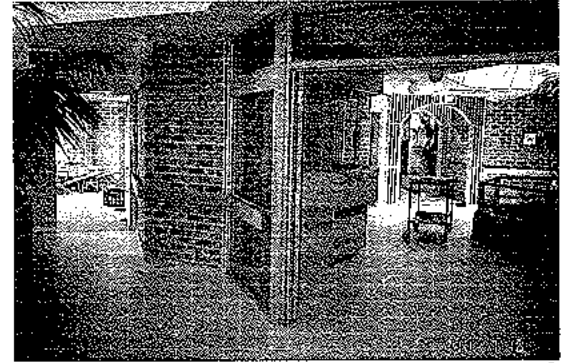
욕조나 샤워는 환자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조원에 의해서 사용된다. 욕조와 샤워의 수는 1:6~1:14이다. (박태환/서의택, 1986)

라. 환자의 사회적 공간(Patients' Social Space)

노인간호시설에서 생활하는 환자들의 사회적 공간에는 라운지, 물리치료실



11



12

등이다. (박태환/서의택, 1986)

1) 오락실, 식당, 일반실

회복되어 가는 환자를 위해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매력적인 오락실과 식당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다른 목적(흡연, 비흡연, TV시청)을 위해서 작은 크기의 자연스러운 구석방이 있어야 한다.

오락을 위한 공간은 물리치료실 또는 작업요법실의 어떤 형태를 위하여 또한 사용된다. 대부분의 표준과 계획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제한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오락과 식사를 위해서는 1명당 1~2m²가 필요하다. 단지 스웨덴의 경우 최소 병상당 3m², 작업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락실은 병상당 4m²가 있어야 한다. (박태환/서의택, 1986)

2) 물리치료실, 작업요법실

일반병원의 노인병동의 환자는 중앙물리요법과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노인양로시설에서는 그와 같이 계획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다.

치료방식이 노인들에게 알맞지 않다거나 그리고 노인병동에서 중앙물리요법과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분리된 시설이 필요하다.

노인간호시설이나 장기체류병동과 같은 곳에는 반드시 물리치료실을 두고 있다. 단순한 장비의 도움이나 단순한 운동에 의한 것이다.

어떤 형태의 물리치료실과 작업요법실은 환자실이나 복도, 또는 주간실에 설치한다. 이들의 공간은 간호단위당 한 개씩 또는 2개의 간호단위사이에 두어 공용하고 있다.

충고할만한 물리치료실의 위치는 공용실에 가까운 곳이다. 노인들은 가끔 신체적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한번에 짧은 시간에 국한된다. 이러한 시간 사이에 가까운 공용실에서 기다리게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환자의 수송이나 직원에 의해서 상당량의



13

작업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은 물리치료실 주위에서 집중시켜야 한다.

물리치료실에 있는 환자들은 특별한 노력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즐겁게 오게 해야 한다. 직원의 태도에 많이 달려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반드시 흥미롭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물리치료실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작업요법실은 노인간호시설에서는 1개 또는 2개의 실이 제공된다. 어떤 형태는 환자실안에 두거나 안에 둔다. 1개 또는 2개의 특별한 실이 유효하다. 그러나 활동은 다른 방에서는 할 수 없으며,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에 감으로서 기분전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병상당 1.1m², 스웨덴은 병상당 3m², 미국은 병상당 0.56m²이다.(박태환/서의택, 1986)

3) 예배실 감당

비록 많은 곳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배실과 강당은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1개실의 직원과 모든 거주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고 강당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더욱 휠체어 환자와 그들의 병상을 떠날 수 없는 환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박태환/서의택, 1986)

마. 관리공간(Administration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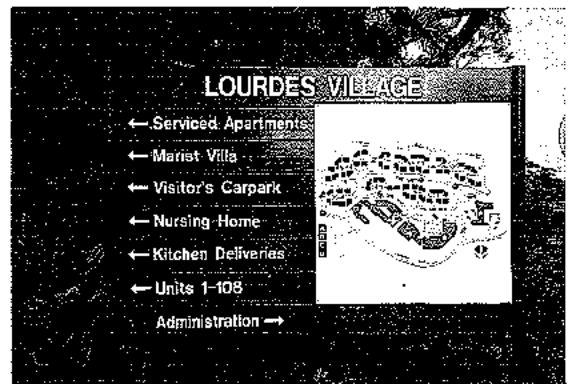
시설 및 환자의 관리를 위한 안내실, 간호원장실, 직원실, 간호원실, 직원화장실, 약품실 겸 치료실 등이 여기에 속해 있다.(박태환, 1986)

환자에 대한 직원의 비율은 각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노인병의 간호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서구의 노인병원에서 간호직원과 환자의 비율은 스웨덴 1:1.9, 노르웨이 1:2.5, 서독 1:3.4, 미국 1:

13 라운지내부 천장

14 노이주거단지 입구 표시판



15

1.5이다. 대체적으로 직원들은 노인간호시설내의 건물에서 생활하기를 원치않는다. 노인간호시설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게 한다.(박태환/서의택, 1986)

바. 기계설비 공간

기계기구의 의해서 음식물의 보관, 저장, 정리하는 부엌과 음식물의 보관창고, 세탁물의 세탁과 환자실내에서 사용한 각종 변기 등 더러운 것을 씻는 곳이다. 일반세탁물을 위한 공간의 규모는 6.5m² 이상이며 팬룸이나 부엌, 욕실, 화장실에 직접 접근되어서는 안된다. 팬룸은 1개소 이상을 두어야 하며, 그 크기는 7m²이상이다. 주로 변기류(침실용 변기: Bed Pans, Commode Pans)나 치아를 씻는 그릇(Tooth Bowls)등을 씻는 곳이다.

아. 환기·난방·안전설비

각 환자실에는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천정의 높이는 환자실은 2.5m이상, 화장실, 욕실은 2.4m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환자실, 복도, 욕실에는 적당하고 안전한 난방 방법을 채택해서 난방을 하며, 그리고 소화시설비로는 화재시 탈출수단, 설계시공의 안전예방, 화재탐지 및 소화기 설치 등으로 1층 이상 건물에는 방화구획된 승강기 설치, 복도에는 방화문으로 구획하며, 환자실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구부를 제외한 외벽은 벽돌, 콘크리트 블록으로 하고, 출입구의 폭은 1070mm, 화장실 욕실은 910mm, 복도의 폭은 1950mm이상이다.(박태환, 1986)

자. 배치 및 건물의 형태

노인간호시설의 각 실의 배치와 건물의 형태는 단층 또는 2층 이하의 중정식이다. 특히 중정식은 중복도로 각 실이 연결되어 있어서 간호나 서비스 제공에 부적 편리하여, 환자들의 외부출입을 통제하면서 내부공간의 유연성이 우수하므로 대부분이 중정식으로 되어 있다.

특히 중정 주위에는 환자들의 사회적 공간인 식사실, 라운지 등을 배치하고, 중정의 출입을 가능하게 한다. 중복도의 내측부분에 중정이 위치해 있으므로 내측부분의 채광, 통풍에도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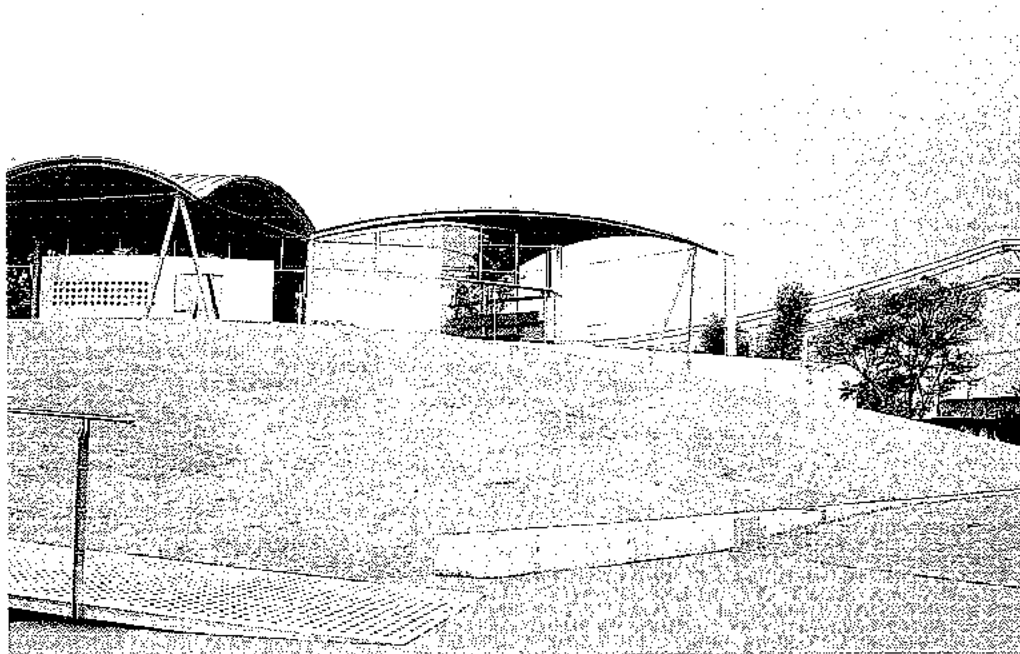
그리고 병상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대규모의 병상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층별 또는 동일층내의 공간분리 등으로 독립된 간호단위를 형성하면서 전체와의 관련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박태환, 1986)

구마모또 (熊本) 아트폴리스

Kumamoto Artpolice

金文德 / 전국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교수
by Kim, Moon-Duck

“「도시에 디자인을,
전원에
아이디어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구마모또현(縣)내
각지에서 추진되는
구마모또 아트폴리스
계획. 그것은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시설을
영원히 남는
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의욕을 갖고
디자인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전원문화권」의
창조를 목표로 하는
시도이다.”



1. 아트폴리스로서의 구마모또현

“후쿠오카에서 열차를 타고 비오는 들판을
바라보며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필자의 마음
속에는 현재 진행단계에 있는 구마모또 아트폴리스의
완성된 일부 건축물을 보고자 하는 일념으로 꽂
차있었다.

’91년 여름 일본여행의 시발점을 후쿠오카로 잡은
것은 이 구마모또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의 방문도 큰
요인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특히 이또 도요(伊東 豊雄)설계의 야즈시로
(八代)시 박물관은 큰 기대거리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아마 필자가 여행일기를 썼다면, 이런
식으로 구마모또 아트폴리스의 방문기는 시작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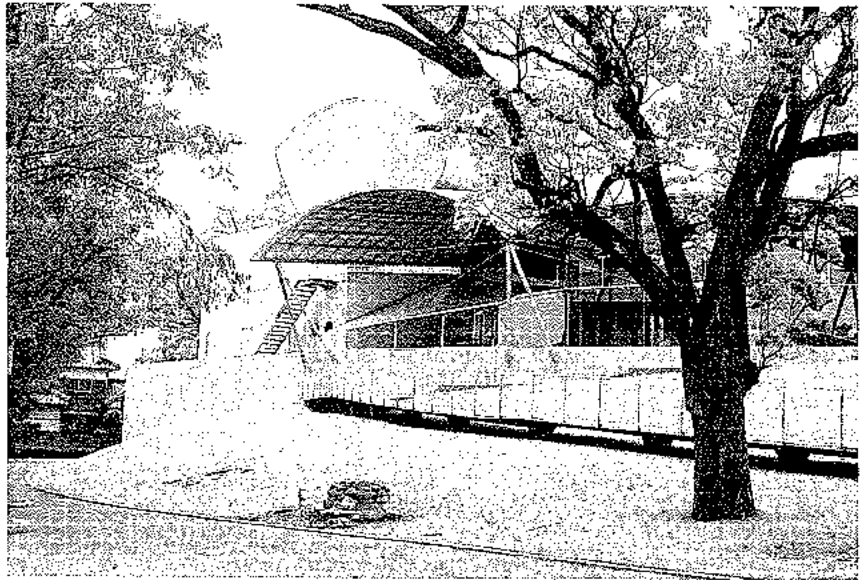
있을 것이다. 사담이지만 91년의 일본여행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다. 후쿠오카에서는 계속 비가
왔고, 또한 카메라까지 이상이 생겨서 심신이 불편한
상태였다.

아마 이 여행이 끝나도 사진자료는 카메라의
이상으로 전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계속 필자를
추적하는듯한 비내리는 흐린 날씨는 더욱 우울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구마모또시에 도착하면서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구마모또 아트폴리스라는
개념은 그 사발이 1987년 구마모또현지사인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 護熙)가 유럽시찰여행의 일환으로
베를린 IBA 국제건축전의 제 프로젝트들의 방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IBA 국제건축전에 강한 인상을 받은 호소가와 현지사는 이제부터 착수하는 구마모또현의 공공프로젝트들을 유능한 건축가들에게 일임하여 일본의 중심부에서는 비록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구마모또현을 아름답고 개성적인 공공건축물로 차있는 특색있는 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여, 그 시발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를 호소가와 현지사는 구마모또 아트폴리스라고 명명하였고 이미 IBA 건축전에도 참가했던 일본건축계의 거물인 이소자키 아라마에게 협력을 요청, 그가 커미셔너로 취임하면서 이 사업은 착수되었던 것이다.

아트폴리스라는 개념은 유럽에서는 이미 익숙한 것으로 IBA국제건축전이 개최되었던 베를린 외에도, 오히려 독일의 금융도시인 프랑크푸르트의 이미지채신을 위한 「박물관의 거리」등의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프랑크푸르트의 경우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건축전문가들은 주지하다시피 프랑크푸르트의 마인강변의 거리를 「박물관의 거리」로 조성한 이 시의 야심적인, 경제도시의 이미지에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전략은 O.M.웅거스의 건축박물관, 리차드 마이어의 공예박물관, 한스 홀라인의 근대미술관, 조셀 볼 클라이프스의 고대선사시대박물관, 헬케 보헝거의 영화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프로젝트의 완공과 헬무트 안의 견본시 사무동, O.M. 웅거스의 견본시 전시장의 완공 등에 의해 확실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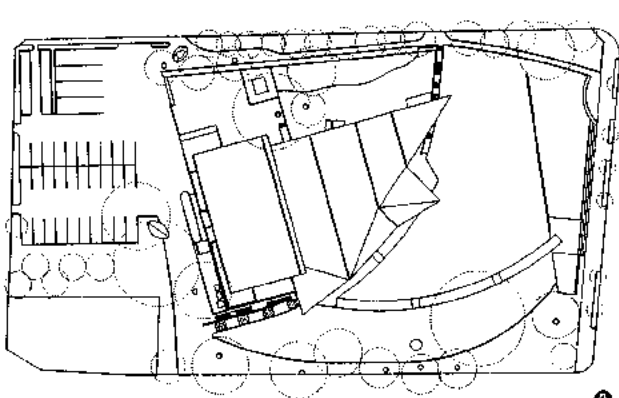
2

- ① 아츠시로시 박물관 전경
- ② 인공적인 등산위에 위치한 박물관
- ③ 아츠시로시 박물관 배치도
- ④ 하이테크한 구성의 볼트지붕과 후면의 수장고
- ⑤ 아츠시로시 박물관 1층 평면도
- ⑥ 아츠시로시 박물관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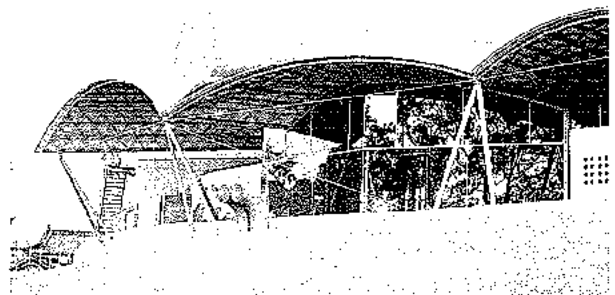
이 영향은 프랑스 파리의 그랑 프로젝트(Grand Project)나 님(Nimes)시의 역사적 거리의 활성화 프로젝트,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 올림픽에 의한 도시재건 프로젝트 등 전유럽에 속속 파급되고 있으며 그것이 동양권인 일본의 구마모또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현되었든가 혹은 예정인 구마모또 아트폴리스의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 살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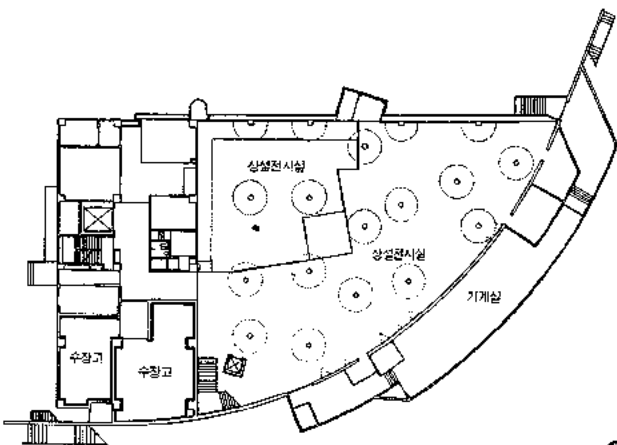
우선 구마모또시에 소재한 구마모또 거파(北)경찰서(1990 : 시노하라 가즈오), 사이슌칸(再春館) 제약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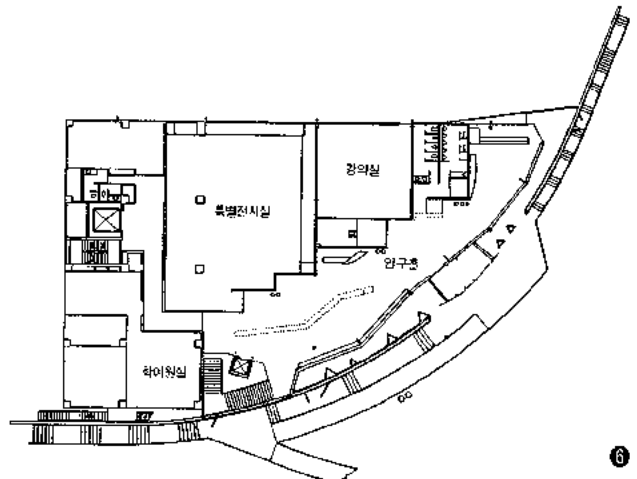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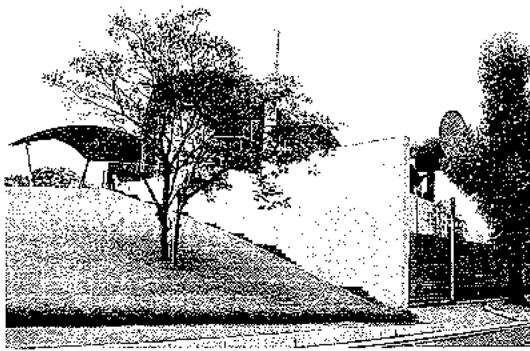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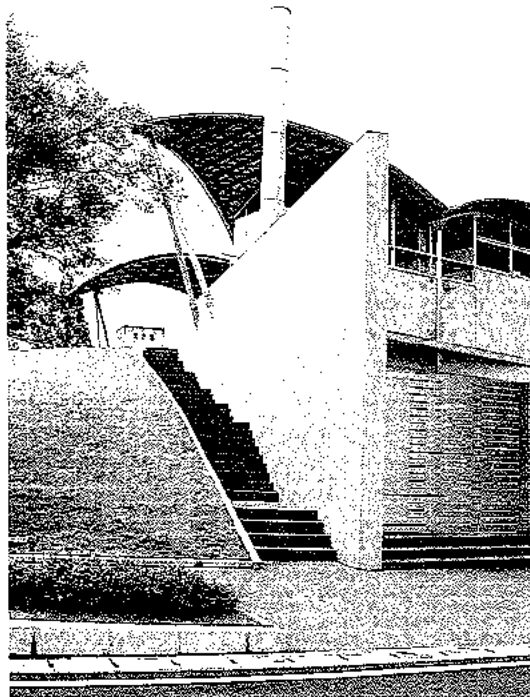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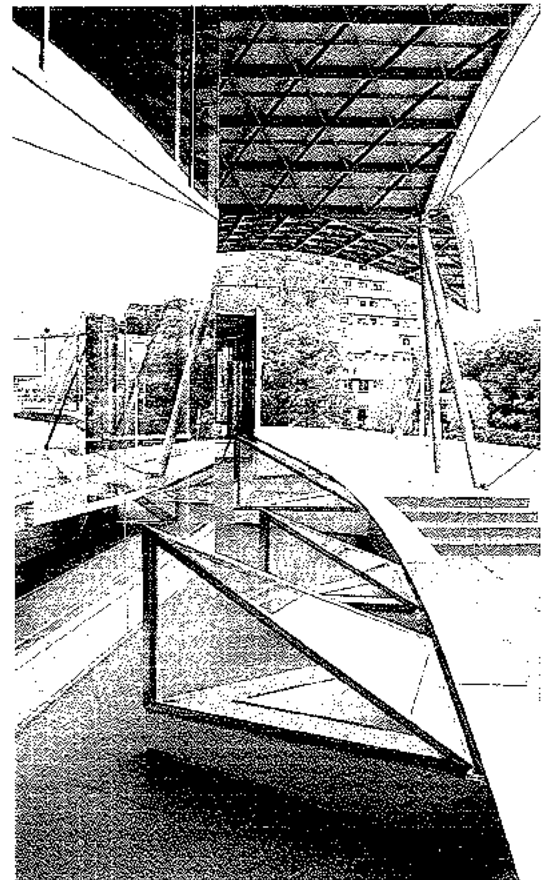
8

여자기숙사(1991 : 세지마 가즈요), 구마모또시 호다부보(保田窪)아파트 단지(1991 : 야마모또 리겐), 선찌(新地)아파트 단지(1991 : 하야가와 구니히코) 등과 야츠시로시의 야츠시로시박물관(1991 : 이토 노요), 미스미(三角港)페리 터미널(1990 : 요 쇼에이) 등의 완공된 건축물과 유노마에(湯前) 만화미술관, 현립미술관 분관, 현립 고혼 노 모리(古墳の森)자료관 등 10여개 이상의 예정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몇 개의 프로젝트는 토크헤네간이나 라베냐와 토레스, 렌조 피아노 같은 외국건축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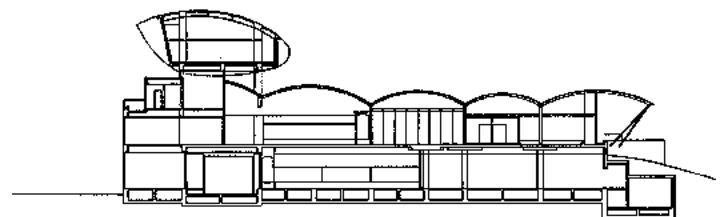
필자는 구마모또 기파경찰서와 야츠시로시 박물관을 방문했으며 이 두 건축물을 중심으로 구마모또 아트폴리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한다.

2. 야츠시로시 박물관

구마모또 아트폴리스의 중심프로젝트는 당연히 구마모또현의 중심인 구마모또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 글의 전개를 구마모또시의 프로젝트부터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9



10

- 7 측면의 진입도로에서 바라본 전경
- 8 측면에서 바라본 전경
- 9 전장다테일
- 10 야츠시로시 박물관 단면도

생각하지만 필자가 야츠시로시 박물관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91년 일본 건축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을 하나 선정하라고 한다면 서슴치않고 야츠시로시 박물관을 선택하고 싶은 까닭 때문이다.

물론 안도 다다오의 히메지(姫路)문학관이나 다니구찌 요시오(谷口 吉生)의 도쿄도 임해수족관 같은 건축물 외에도 30여개의 건축물을 방문했지만 지금까지도 뇌리에 그 선명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야츠시로시 박물관이다.

야츠시로시는 구마모또시에서 남으로 40km 떨어진 인구 12만의 구마모또현 제2의 도시이다.

공업도시이기도 한 이 시는 중심부에 야츠시로성(城)의 유적이 남아 있으며, 이 주변에 거리의 중심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즉 시민의 휴식의 장이기도 한 공원과 학교, 도서관, 시민홀이 있는 후생회관 등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주변에는 전통적인 일본가옥들이 자리잡고 있어 이 주변환경에 대한 문맥의 고려가 이 프로젝트에서 요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박물관 부지내에 서 있는 많은 수목을 될 수 있는 한 보존하면서 역사성을 내재한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또 하나 야츠시로시 박물관을 방문한 이유는 건축가 이또 도요의 건축에 대한 호기심도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이번 여행일정에 있어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를, 그것도 단 하나의 건축물을 보기위해 구테어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1941년 경성(서울)태생인 시노하라 학파의 건축가 가나가노(中野)의 주택(1976), 실버 허트(Silver Hut:1984), 레스토랑 노마드(1986) 등의 소규모프로젝트에서 대규모프로젝트로 이행하는 단계의 건축물이기 때문이었다.

야츠시로역에서 버스를 타고 도착한 야츠시로성(城)은 대부분의 일본의 오래된 도시의 고성(古城)처럼 성 주위로 인공적인 연못이 과거에서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고여 있었으며 나무사이로 들려오는 메미소리가 고막을 울리고 있었다.

또한 성에서 바로 길 건너에는 아시하라 요시노부(芦原 義信)설계의 후생회관(1962)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강당동과 집회동이 L자형으로 배치된 건축물이 이또 도요 설계의 박물관이 완공되기전까지 이 도시에서 일본의 현대건축 안내서에 나타난 유일한 건축물이었다. 이제 마치 한스 홀라안이 설계한 뮌헨그라트바흐 미술관에 의해 독일의 소도시 뮌헨그라트바흐의 존재가 알려진 것처럼 야츠시로시의 건축관계자에게는 유명도시로 부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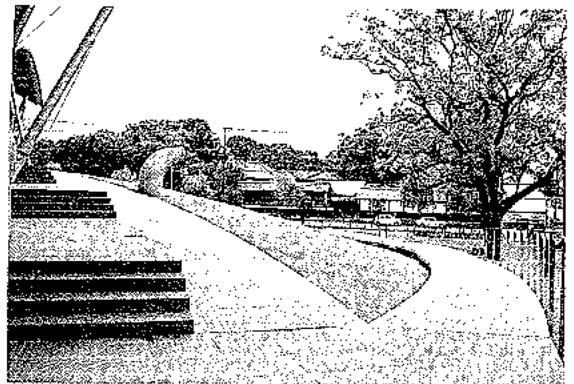
후생회관에서 좌측길로 따라 걸어가다가 보니 바로 인접한 블록에 이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었다.

잔디로 덮힌 동산위에 자리잡은, 곡선의 볼트형 지붕을 한 하이테크풍의 이 건축물을 보는 순간 묘한 감동이 필자에게 전달되어 왔다. 과연 이 건축물 하나를 방문하기 위해 이 남단의 도시로 내려온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 박물관은 약 10년전부터 구상이 시작되어 전시내용은 고고, 역사, 민속을 중심으로 한 상설전시와 시민갤러리로서의 기획전시 및 강의실이라는 미술관적 요소의 기능이 부가되었다. 또한 전시물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박물관에서 탈피해 종합적 문화시설을 목표로 한, 시민을 모으며 거리의 미래를 담는 상징적 장소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에 의해 그 기능을 ① 사람과 전시물이 교류하는 장소(상설전시 및 마쓰이문고), ②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장소(입구 기획전시, 로비, 카페, 강의실) ③ 전시물과 공간(수장고, 반입, 작업실), ④ 연구 및 관리공간(학예원실, 사무, 회의실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4개의 공간기능을 조합한 특색있는 장소의 집합체로 조성하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경쾌한 느낌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금속으로 마감된 곡선의 볼트형 지붕과 건축물이 인공의 동산에 세워지는 구성이 제안되었다. 이것은 볼트형 지붕이 구주지역의 강한 일광을 막는 쉼터의 기능도 겸하면서 부드러운 건축물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 간척지라는 인공적 토지에 세워진 야츠시로시의 지하수위가 높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열쇠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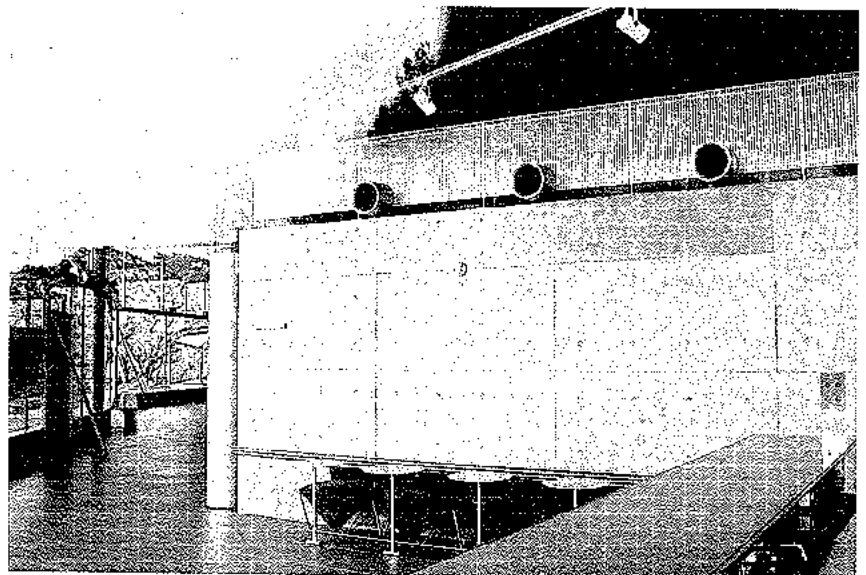


11

따라서 이 인공적인 동산은 일종의 소프트한 모뉴먼트라고 할 수 있으며 하이테크라는 인간미가 결여된 건축양식을 순환시키는 자연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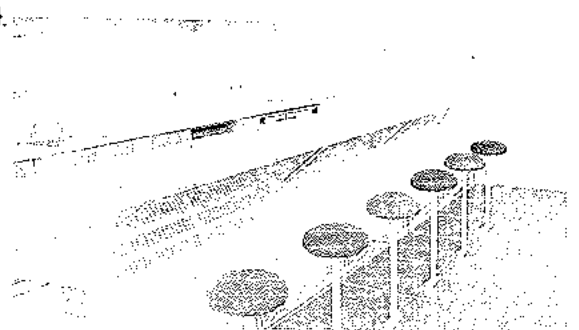
박물관에 있어서의 전시, 수장, 관리, 연구라는 각 기능들은 1.2층의 푸른 동산측으로 향한 북측면에 전시기능이, 그리고 1.2층의 남측면에 관리와 연구기능의 실들이 배치되고 오히려 3층 부분의 상징적이면서 공중에 돌출된 실린더형 구조물에 수장기능이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상기한 지하수위의 문제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볼트형 지붕의 나열과 최후의 형태의 클라이맥스에 자리잡은 실린더형 수장고에 의해 「미래의 숲 박물관」이란 별칭이 붙은 이 건축물이 마치 야츠시로시의 동산에 안착한 우주선 같은 경쾌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의



12

- ① 위에서 내려다 본 경사로
경사로는 시각적 변화장치이다.
- ② 로비 전경
- ③ 카페부분 전경
다카하시 다지인의 가구가 보인다.



13

나무구조-기둥과 나뭇잎-로 가상된 구조체의 개념화단계에서 발전된 구조계획 역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달리 구조시스템들이 랜덤한 불규칙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구조설계자인 기무라(木村 俊彦) 씨의 제안에 의한 시스템으로 이것에 의해 경쾌하고 테크노로지칼한 구조체로 표현되었다.

박물관의 건축과 전시계획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건축과 전시가 분리발주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 박물관의 경우 일괄발주를 행하여 건축과 전시가 일체감을 이루도록 의도되었다.

실내공간(카페, 안내카운터, 벤치 등)의 가구를 디자인한 다카하시(大橋 晃朗) 씨가 전시조작에 대한 모든 감수를 행하여 건축과 전시가 일체감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 야츠시로서 박물관의 동산 앞 거리에서 보면, 철골의 골조시스템이 노출된 볼트형 자봉과 실린더형 수장고가 시각적 상승감을 유발시키면서 전면에 주출입구로 오르는 원형의 경사가로 강한 시선을 끈다.

오래된 기존수목에 둘러싸인 이 박물관을 경사로를 따라 오르면 수려한 주위경관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면서 시야에 들어왔다. 주출입구 부분에는 원형으로 편칭된 스텔레스 스틸판이 입구임을 암시하고 있었고 지하층을 채광하는 삼각추 구조의 천창구조물들이 지상에 나란히 돌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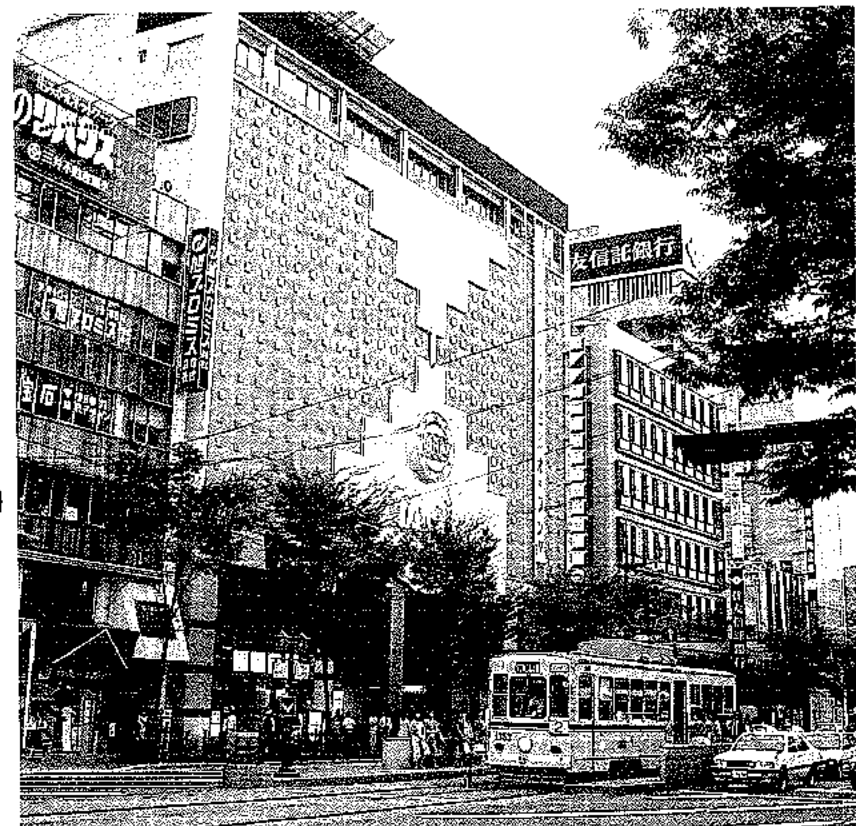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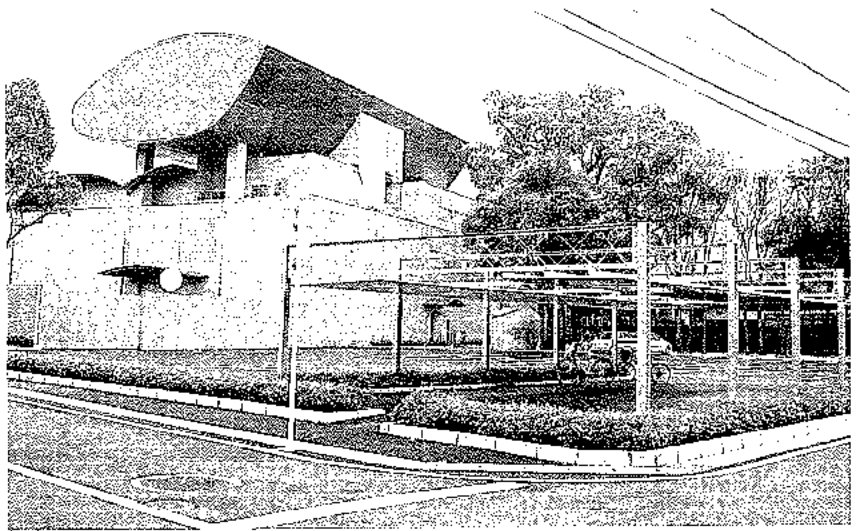
시노하라학과의 건축가답게 이 건축물의 수장고부분의 재료도 편칭메탈을 사용하여 이상한 분위기의 부유감을 유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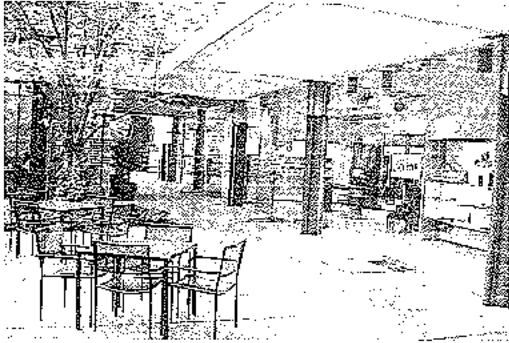
필자가 방문했을 당시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던 관계로 전시관의 실내는 볼 수 없었지만, (1991년 10월 25일 개관) 입구 홀이나 카페부분은 전면이 모두 유리로 처리된 관계로 실내를 감상할 수 있었다.

무채색의 노출콘크리트벽과 스텔레스판이나 알루미늄 그리고 유리 파티션 사이에 자리잡은 다카하시 디자인의 파스텔조의 가구들이 실내공간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좌측면에 위치한 감각적인 계단난간으로 둘러싸인 누드 엘리베이터가 에로틱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물론 제임스 스틸링설계의 스무트가르트 박물관에서도 녹색으로 프레임이 도색된 누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런 감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전체적인 형태와 구성에서 일본건축가의 냄새가 풍기는 감각성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것이 하나의 이 건축물의 매력인 것도 사실이었다. 자연과 하이테크의 묘한 대비 역시 자연스럽게 건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적 건축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건축적 의도하에서, 조작적(?)인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목표의식을 가지고 디자인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사용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의도보다는 비록 실패위험성이 높을지라도 명확한 의도에서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견해와 맞아서인지 모르지만 이토 도요의 야츠시로서 박물관은 시사해주는 바가 많았다.





17



18

현대에 있어 하이테크의 선구였던 피아노와 로저스설계의 풍피두센터가 경이로웠지만 감동은 유발시키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 야츠시로시 박물관은 하이테크 건축도 의도된 건축적 연출에 의해 감동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확인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92년에 기획이 되면 다른 구마모또 아트폴리스의 완성된 건축물도 방문할 겸해서 야츠시로시를 방문해서 동산 앞 벤치에서 그 진한 매미소리를 다시 듣고 싶은 생각이 든다.

3. 구마모또시 기따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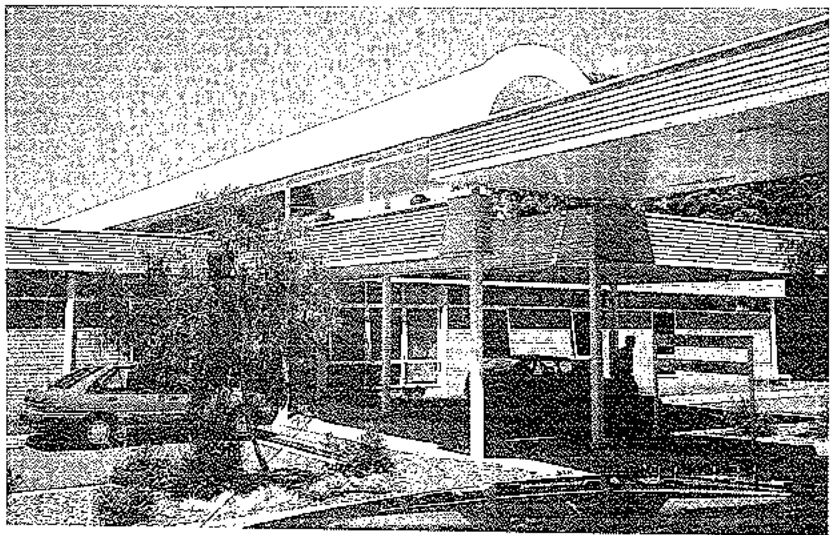
구마모또시는 구주관광의 중심지인 구마모또현의 제1도시로 구주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또한 시가지에는 일본 3대성의 하나인 구마모또성이 우뚝 솟아있어 구마모또시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구마모또성의 기와는 조선기와로 장식되어 있어 과거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암시하는 곳이다. 열차로 도착한 구마모또역은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도 진행중이어서 그런지 새롭게 외관이 단장되어 있었다.

역의 여행안내소에 들러 시노하라설계의 기따경찰서와 요 쇼에이(葉祥榮)설계의 파빌리온(1984)의 위치를 알아보았다. 다행히 파빌리온은 기따경찰서로 가는 도중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차를 타고 또리쥬(通町筋)역에서 내려 가미또리(上通り)아케이드 거리를 따라 올라가다가 좌측에 위치한 파빌리온을 발견하였다. 가미또리 아케이드는 시모또리(下通り)아케이드와 길을 사이에 두고 연결된 수백미터에 이르는 쇼핑아케이드로 상가와 상가사이를 아트리움 구성으로 연결한 일종의 쇼핑몰이었다.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파빌리온은 아트폴리스



19

프로젝트와는 별개인 상업용 건축이지만 기따경찰서를 방문하는 도중에 수집해온 자료에서 발견하고 찾아 온것이다.

계속 연결된 아케이드내에 위치한 건축물이라서 일종의 그런 튜이쥬티 하고 입구를 통과해 들어가는 순간, 수목과 물이 흘러내리는 벽면, 그리고 옥외카페가 있는 중정이 나타나고 매미소리가 고막을 진동시켰다.

무엇인가가 머리를 타격한 것 같은 멍한 기분이 들면서 주위를 살펴보니 이곳은 중정을 중심으로 몇개의 패션부띠끄와 경양식집이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왜 이 파빌리온이라는 건축물이 1984년도에 지어진 우수한 건축물리스트에 들어있는지 이해가 되면서 또한 자연의 위대함에 놀랐다.

예외된 공간으로 이어진 아케이드 사이에, 하늘로 개방되고 물이 흐르며 수목이 서있는 이 작은 중정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조그만 감동이었다. 그러나 이런 공간이 자연을 향해 개방된 공간에 위치해 있다면 그것은 담담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건축물의 구성은 단층으로, 중정을 향해 올그래스로 개방된 구성으로 단순하였지만 건축가의 의도는 의표를 찌른 예리한 시도였다고 생각되었다. “새로운 건축물은 많이 세워지고 신기한 건축물도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감동적인 건축물은 의외로 만나기 힘들다. 신기하고 새롭다고 해서 감동적인 것은 아니다.” 요 쇼에이! 이 구마모또 출신의 52세의 건축가를 이 건축물로 다시 평가하게 되었다. 그의 건축물은 후쿠오카에서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의 건축을 처음 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은 예외였다. 실내를 관찰하니 중정에 면한 경양식집의 실내천장은 랜조 피아노의 메널미술관에서 사용된 곡선형 프리패브 루바구조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아케이드를 따라 오르다가 우측 도로로 나가자 수이도쥬(水道町)거리엔 면한 기따경찰서가 보였다. 경찰서에 가까이 갔을 때, 입구 우측편에 위치한 공중변소가 보였다. 이 공중변소를 유심히 살펴 본 것은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에 이런 류의 건축물도 포함되어있던 것이 기억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 공중변소도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축된 것이

④ 후면의 권리·연구관계 출입구 주차장도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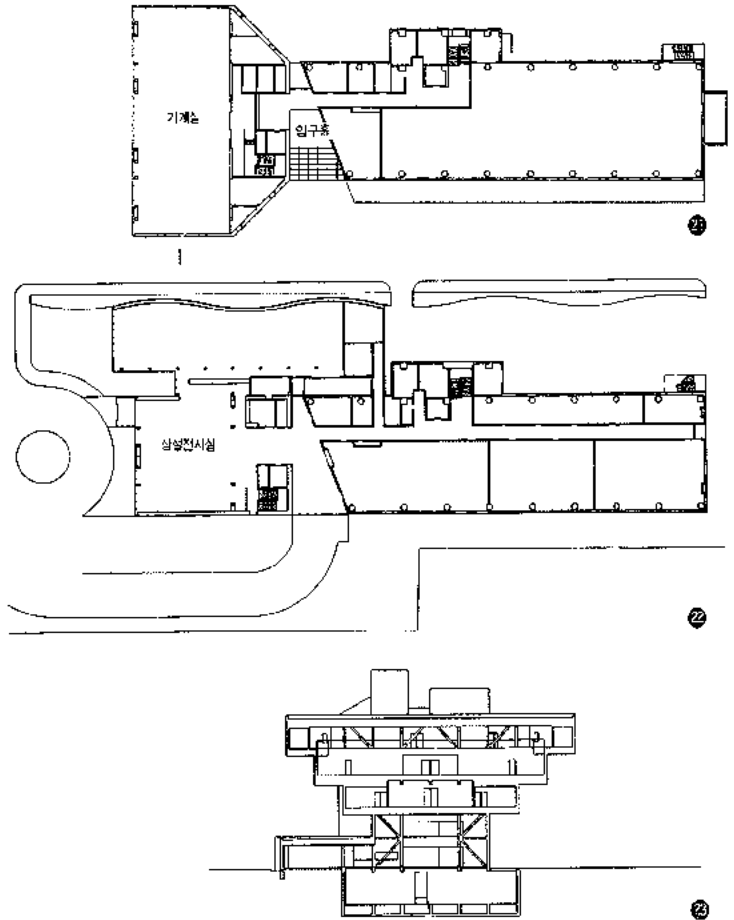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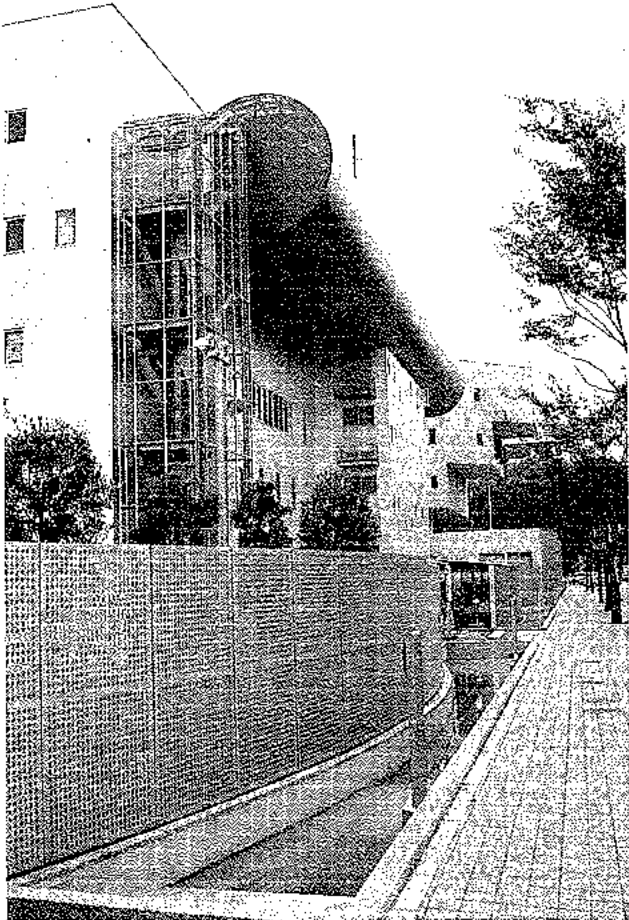
⑤ 구마모또역 전경

⑥ 구마모또시 중심가 전경

⑦ 중정에서 바라본 입구

⑧ 중정에 면한 레스토랑 실내 천장의 루바구조가 특이하다.

⑨ 구마모또 기따 경찰서 전경



틀림없었다. 화장실 상부 지붕에는 천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중전화도 있었다. 초현대식 공중변소라고나 할까?

일본의 지하철을 타면 비교적 단정한 외모를 한 일본인들이지만 과연 이들이 전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가 할 정도로 우리와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공중변소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것이다. 또 한편 지하철에서 가방을 열고 만화책을 꺼내보는 넥타이차림의 젊은이를 보면 갑자기 판단기준이 애매보호해지는 것이다.

마치 하이테크와 비틀즈 그리고 드라큐라의 섬나라 영국이 양면성을 지닌 민족인 것처럼 일본인에게서도 우리는 양면성을 발견하게 된다.

하야간 화장실 후면에 서 있는 기따경찰서는 최근 시노하라의 일련의 건축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외관에서 커튼 월로 마감된,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캔티레버로 조금씩 더 돌출된 정면은 구성주의 건축가들의 공중도시 계획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라고 생각되었다. 우선 입지조건을 살펴 보면, 건축물의 정면인 수이도쥬거리는 국도3호선이고 남측은 시민운동공원, 동측은 몇 채의 주택을 지나면 시라가와(白川)강, 북측에는 몇 채의 관청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동서방향의 가늘고 긴 부지형태에 맞게 직선형의 기능배치를 위한 다음 국도측을 향해 공공건축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칭적인 평면운곽을 채용한 것이 이 건축물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었다.

폭이 넓게 확산된 평면형식을 취하고 있는 국도에

- ㉑ 측면의 곡선형 달장과 연못
- ㉒ 구마모토 기따 경찰서 4층 평면도
- ㉓ 1층 평면도
- ㉔ 단면도
- ㉕ 시민공원측에서 바라본 정경

면한 서측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로비 및 교통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개방된 유도과 검도도장의 기능이 배치되어 있었고 동측 블록은 범죄에 대해 대응하는 경찰기능이 집중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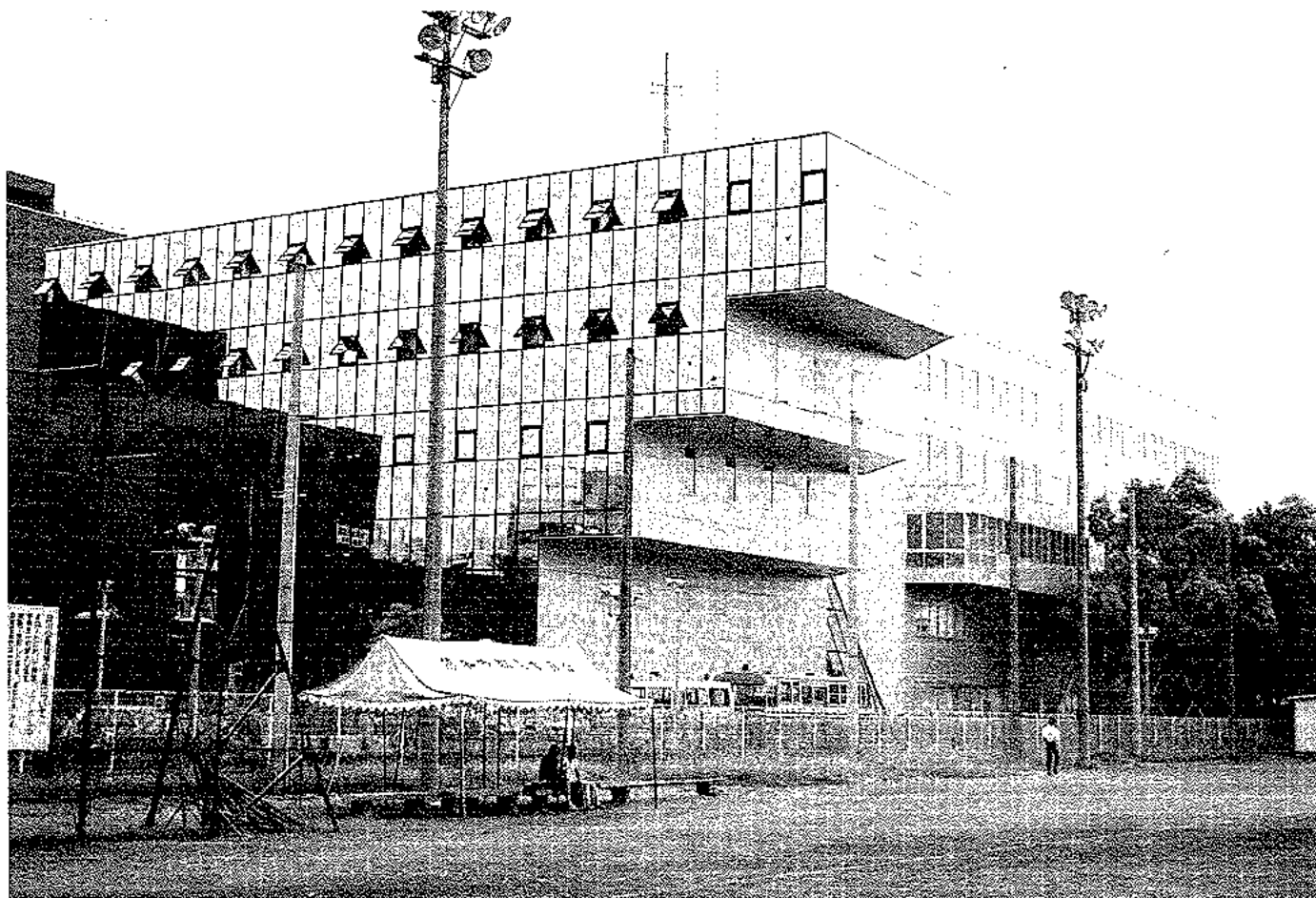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의 1차계획으로 완공된 경찰서답게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정면부는 대면기능의 공간으로 할애하고 오히려 배면부에 경찰기능을 배치한다는 탈권위주의적인 발상인 것이다.

따라서 동서 2개 블록의 내부기능을 반영하여 구조체도 다른 방식을 채용하였다. 즉 서측 블록은 철골구조, 동측 블록은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채용한 것이다.

또한 옥상을 경찰서 부원들의 옥외집회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조옥외기구를 옥상이 아닌 측면 상부 실린더형 구조에 설치하였다.

또한 측면도로에 면한 벽면을 부드러운 파도형의 금속재료로 마감해 유모어감각이 넘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도로와 벽면 사이에 작은 연못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것은 좁은 입지조건에서도 세심한 배려로 생각되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에는 의외로 시노하라 가즈오(篠原 一男) 본인은 물론 이도 도요, 하세가와 이즈코(長谷川 逸子), 사카모토 가즈나리(坂本 一成), 세지마 가즈요 같은 시노하라학파의 일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도 도요의 박물관에서도 느꼈지만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부유하는 기계에 대한 집착이 엿보이고 있다. 이 기따경찰서도 이룩하려는 기계의 이미지가



전체형태구성에 나타나고 있고 평면구성 역시 날개달린 비행기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측면에 매달린 실린더형으로 공조외기구들을 감싼 구조 역시 비행기의 배출구처럼 느껴졌다.

정면의 커튼월을 지지하는 철골구조 역시 V자의 형식을 취해 운동감있는 역동적인 느낌을 부여하고 있었다.

시노하라의 기계미학적 취미는 이미 도쿄공업대학 백주년기념관이나 K2빌딩에서 잘 나타나 있어 부연할 필요는 없지만 그의 날으는 비행기는 도쿄에서 오사카를 거쳐 이번에는 구마모토에 안착한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비행기편대를 거느린 채...

실제 시노하라의 이 관공서 건축물은 형태에 기능을 맞추는 과장적인 형태어법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었다.

오히려 교조주의적인 그에게서 보다는 그를 따르던 문학생들이 오히려 그의 장점을 더 순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노하라가 있었기에 그의 학파가 생겼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되었다.

국내에서도 건축가 김수근이라는 인물에 의해 그 영향이 사후에도 계속 새롭게 그 후대에 의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67세의 시노하라도 80년대까지 소규모주택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던 결과가 그 후대에 꽃피우는 것을 볼 때, 결코 그가 80년대까지 이룩한 작업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이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통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경찰서 실내를 들어가면서 상당히 마음을 졸였다.

대부분의 국내관공서 건축물이 내부를 촬영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고 특히 경찰서이니 상당히 위축된 기분이었지만 곧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대민봉사용 공간과 순수 경찰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구분한 것은 이런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로비부분은 휴식용 의자들이 상당히 밝은 색깔로 디자인된 가구들이었고 커튼월면에는 V자의 철골구조체가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대민을 위한 동측 블록과 순수경찰기능의 서측 블록 사이에 상부가 경사진 유리면으로 구성된 휴게공간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도 경찰서나 파출소하면 상당히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 느낌을 인식하고 있지만 90년대의 민주화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기존관념의 담부터 털어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런 기존관념을 버릴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형과 내부에 생활하는 공직자의 자세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다시 한번 기따경찰서를 돌아보고 아케이드 거리에 위치한 파빌리온으로 발길을 돌렸다.

저녁때여서 민생고도 해결해야 되었지만 매미소리가 들리는 중정을 바라보면서 한 잔의 커피를 드는 여유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가로등에 불이 하나씩 들어 오면서 구마모토의 거리는 어두워지기 시작하였고 나그네는 과연 내일은 어떤 건축물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파빌리온으로 향했다.

COMPETITION

강남구민회관 및 구의회청사 현상설계경기

서울시 강남구청은 지난 12월 대치동에 세워질 구민회관 및 구의회청사신축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명종합건축(대표 : 김명화)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총 27점의 작품이 응모된 이번 현상공모에는 당선작외에 예종합건축(대표 : 김상경)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건원국제종합건축(대표 : 이대형)안이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명종합건축(안)은 서쪽의 35m도로를 주 진입로로 하고 부지 앞쪽에 개방된 오픈 스페이스를 구성하여 출입을 자연스럽게 접근토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교육, 복지를 위한 구민회관을 저층부에 두고 고층부에는 구의회를 위치토록 분리계획하여 등선과 기능의 명확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우수작 및 가작을 게재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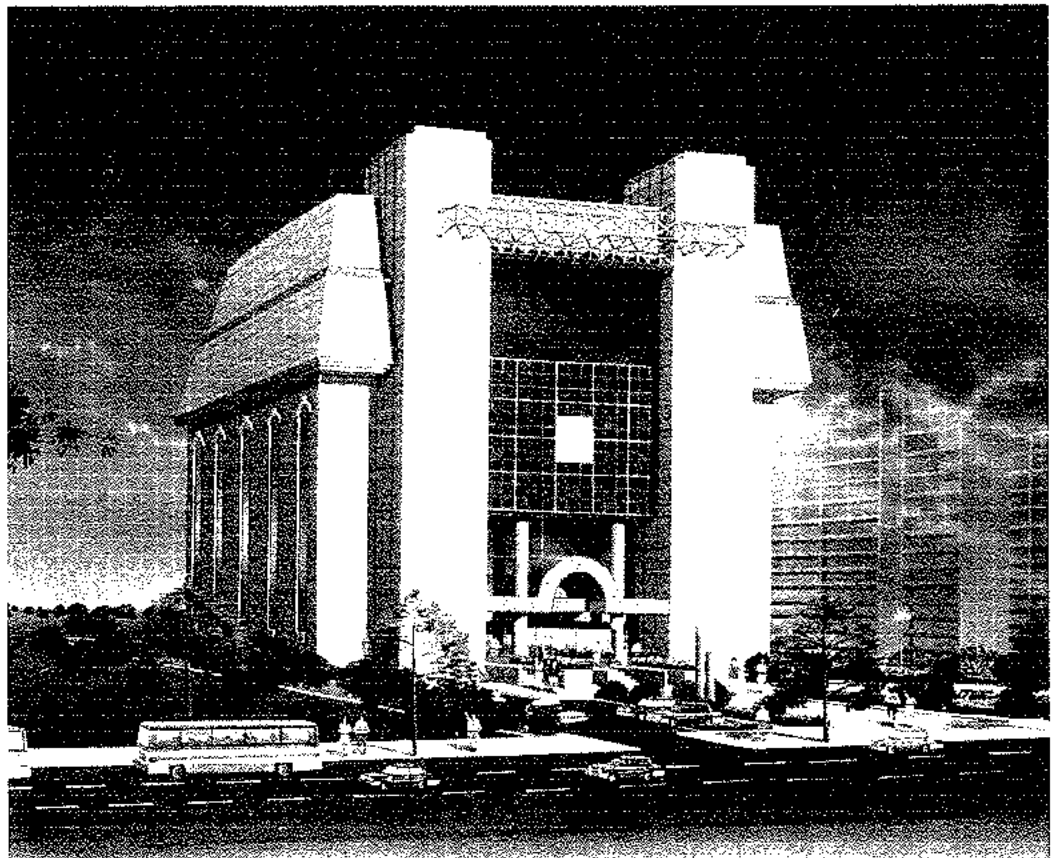
- 당선작 - 명종합건축(안)
- 우수작 - 예종합건축(안)
- 가 작 - 건원국제종합건축(안)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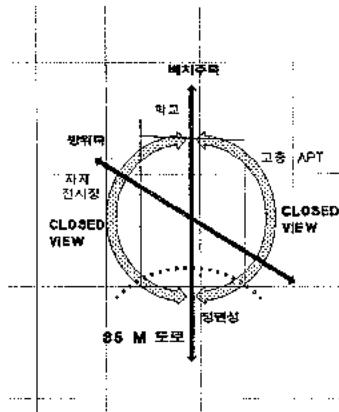
명종합건축(안)

(대표 : 박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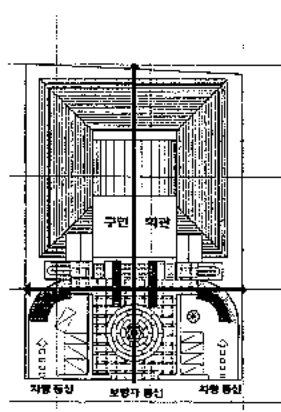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2
대지면적/ 3,035m²
건축면적/ 1,444m²
연면적/ 12,300m²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규모/ 지하 3층, 지상 6층
건폐율/ 47%
용적률/ 272%
구조/ 철근,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 화강석,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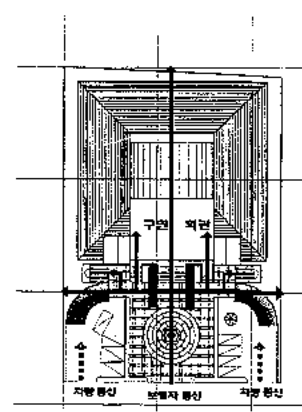
대지분석도



토지이용계획도



배치계획도



■ 배치계획

● 기본개념

- 대지분석에 따른 동선체계, 주위환경 여건, 시간적 요소 매개공간의 확보등 배치의 기본적인 요소에 따라 계획.
- 도로에서의 자연스런 접근성을 위하여 단계적 공간구성
- 진입과정 : 프라자 - 구민회관
- 구민회관 전면에 개방된 공간을 두어 충분한 휴식공간 확보
- 축의 설정
- 부지는 35M 도로가 주진입로이

고 대지가 서쪽으로 길고 조망이 좋으므로 동서를 주축으로 남북을 부축으로 설정한다.

■ 토지이용계획

- 부지이용은 대지의 서쪽과 동쪽으로 건물을 배치하여 전면도로쪽에 개방된 공간을 확보하고 또 APT 단지와 국민학교로부터 사생활 유지
- 구의회와 구민회관은 기능을 고려하여 총별 구분하여 분리시켰으며 주축을 따라서 단계적 공간구

성을 하여 시민들의 접근을 자연스롭게 하고 또한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 구민회관 전면에 선관을 설치하여서 복지시설로 직접 진입하도록 한다.

■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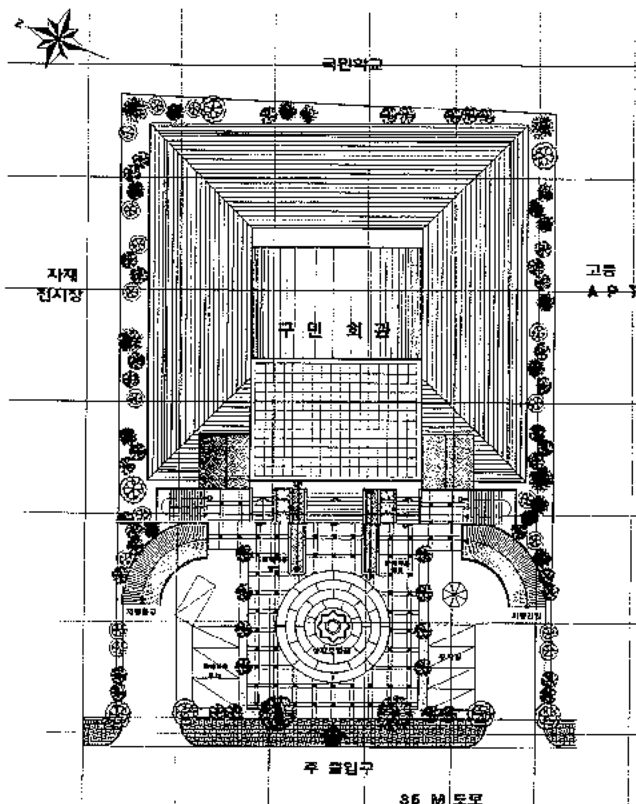
- 구민회관과 구의회의 총별 분리
- 기능의 명확화
- 사생활의 확보

● 개방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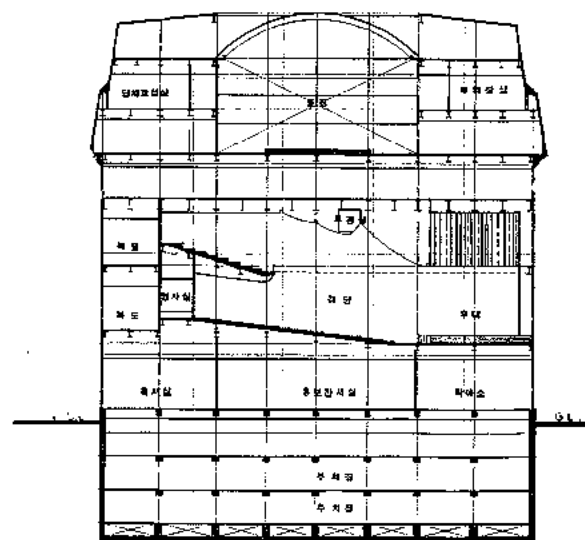
- 전면의 대칭성을 사용하므로써 친근감을 줌.
- 격자의 사용으로 경직성을 탈피.
- OPEN SPACE 확보로 개방점 표현.

● 통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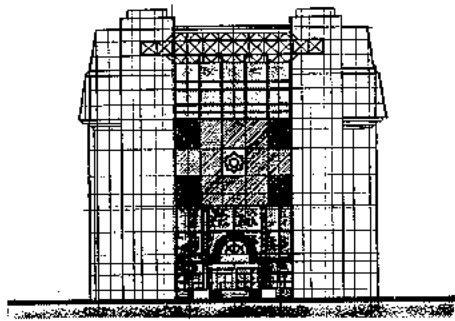
- 같은 이미지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통일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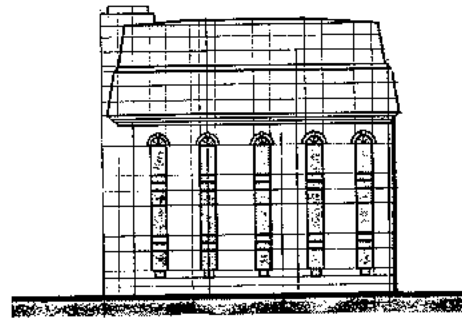
건물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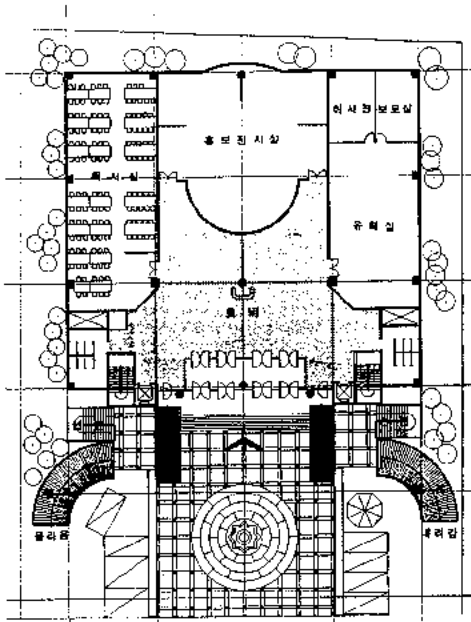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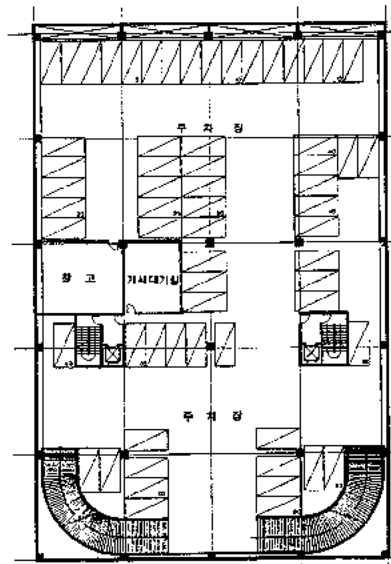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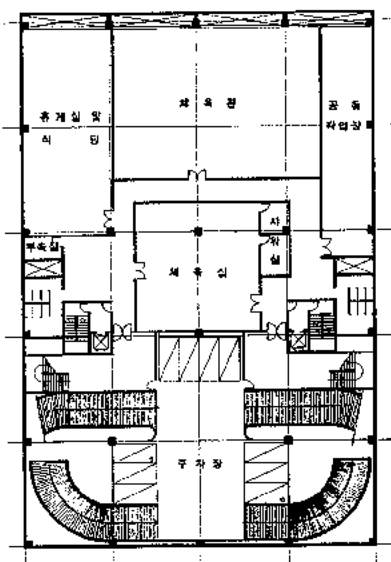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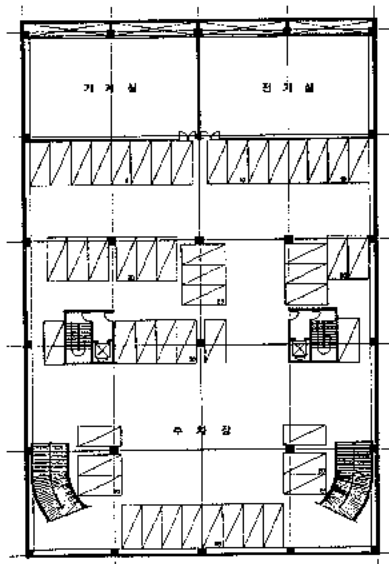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지하3층 평면도

■ 평면계획

● 지하층

-기계, 전기실, 체육실, 식당등을 배치.

● 1층

-보행자 접근이 용이한 1층 부분에 홍보전시실, 유희실 및 독서실 등을 둠.

-로비부분을 강조하여 개방감 유도

● 2층

-대강당을 배치 다목적 기능을 부여

-대강당의 홀을 커튼월로 처리하여 개방감을 강조.

● 3층

-대강당 2층 및 관리사무실 배치.

-홀 및 복도를 통한 동선분리 및 융통성을 부여.

● 4층

-휴게소 및 간이식당 취미강의실 상담실 등을 기능적으로 배치.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교육, 복지 등을 위한 복합적인 기능부여

● 5층

-국상실, 의원휴게실, 사무국, 소 의회실 등을 기능적으로 배치.

-홀 상부를 개방하여 상부에 눈을 높으로써 상징성 표출.

● 6층

-대의회실, 의장실, 관리사무실 등을 기능적으로 배치.

-복도를 통한 동선분리 및 융통성을 부여

■ 입면계획

● 재료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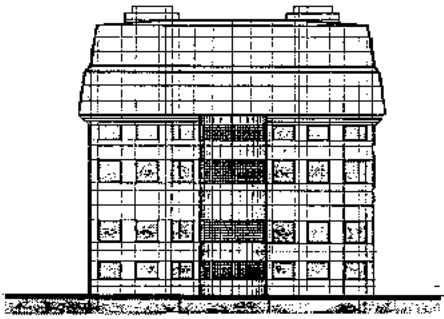
-유리와 화강석, 메탈의 대비적 재료의 사용으로 미래 지향적 외관 표현

● 건물의 흡인력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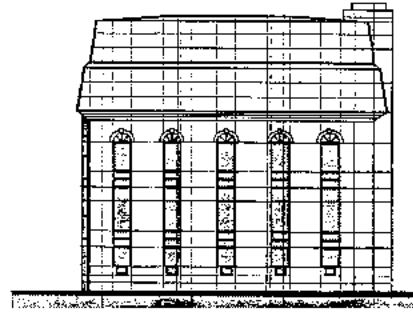
● 내부기능의 시각화

-본체 : 수평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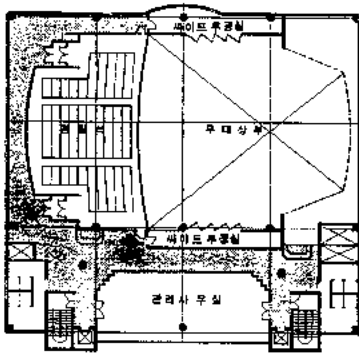
-코아 : 수직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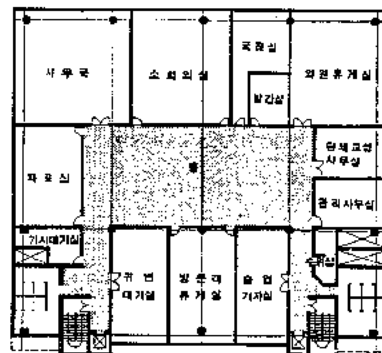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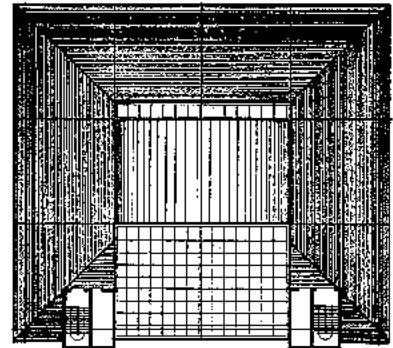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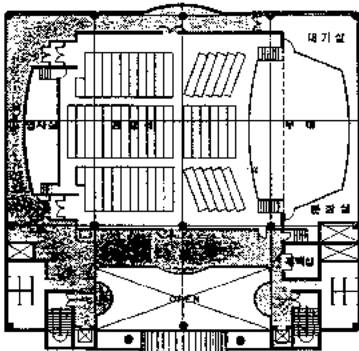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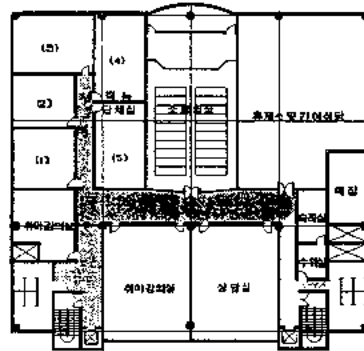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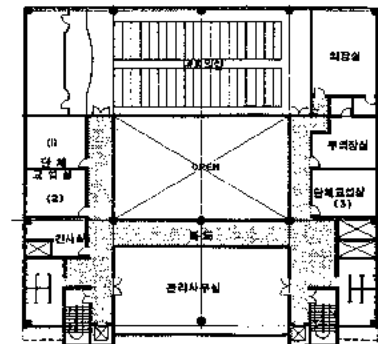
지붕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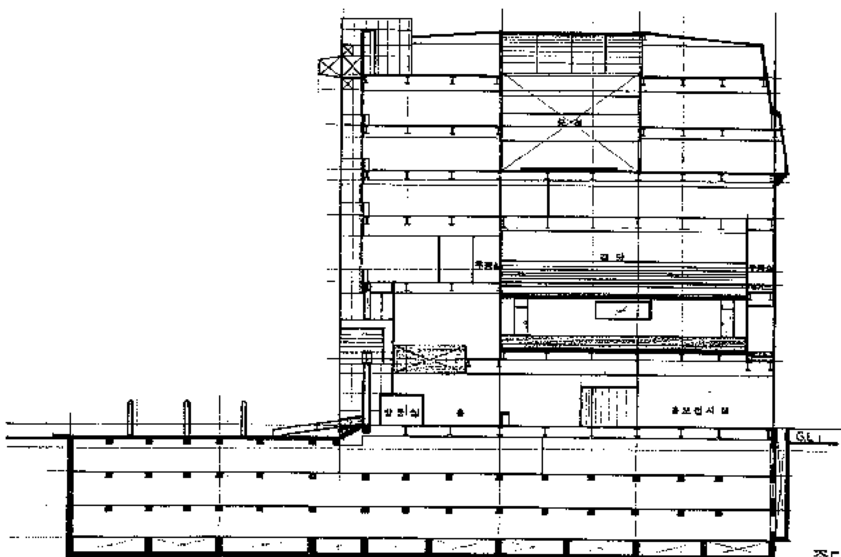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6층 평면도



종단면도

우수작 예전건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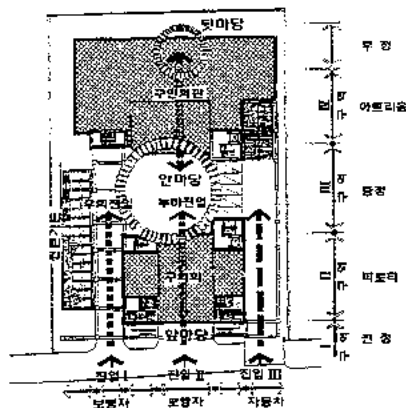
(대표 : 김성경)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2
 대지면적/ 3,035m²
 건축면적/ 1,510m²
 연면적/ 11,779.87m²
 건폐율/ 49%
 용적률/ 186%
 규모/ 지하 3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조
 주요외장/ 화강석바니구이,
 착색아연도강판 핀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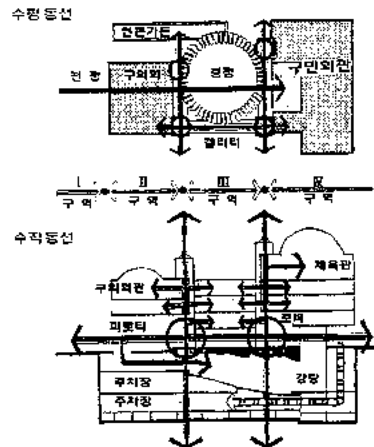
■ 배치개념

- 공간의 연속성과 전통성 추구
- 지역의 구민모임 장소(Gath Bring Place) (중정, Sunken Garden)의 창조
- 구의회와 구민회관의 병렬배치 및 피로티와 우회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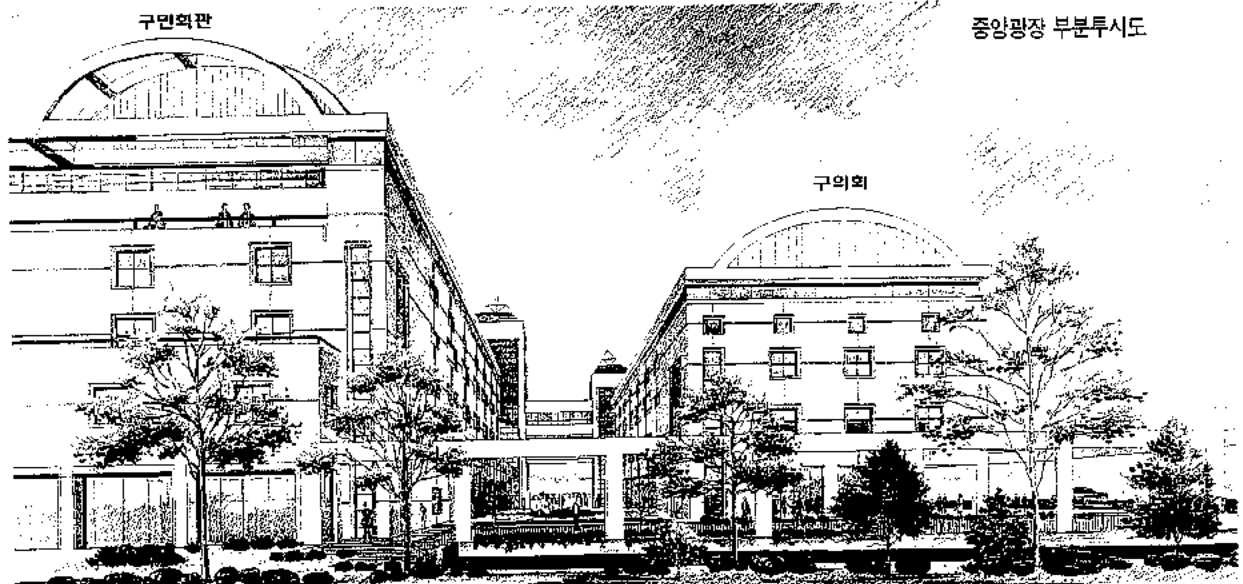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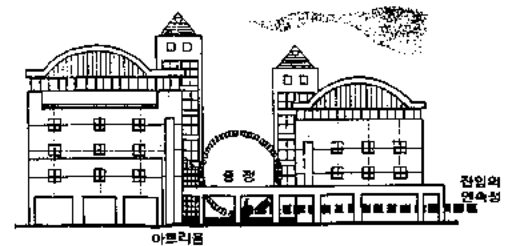
■ 동선개념

- 수평 · 수직 동선체계의 편의성
- 구의회와 구민회관 기능의 극대화 및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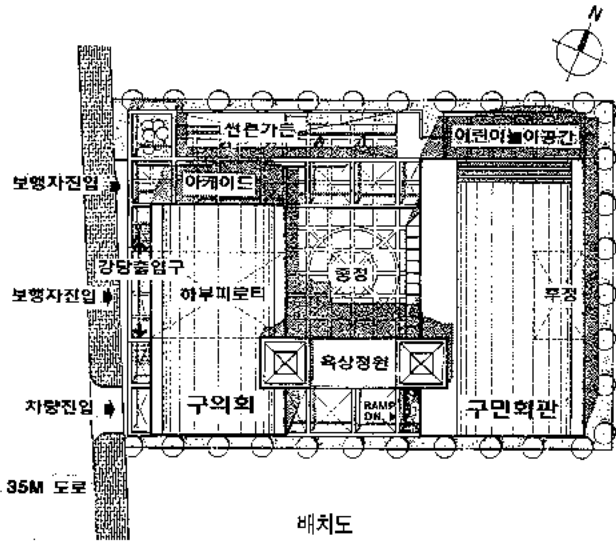


■ 형태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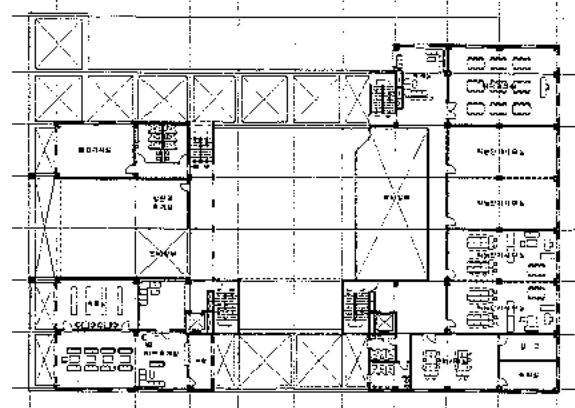
- 주변 도시환경에 적응한 도시형태(Urban Form) 추구 : 두개의 매스(Mass)와 아치형지붕, 아케이드, 수직타워, 격자형입면 등
- 내 · 외부공간 연계 및 개방성의 형평화 추구 : 피로티, 중정, 쉼튼 가든, 아트리움, 아케이드, 갤러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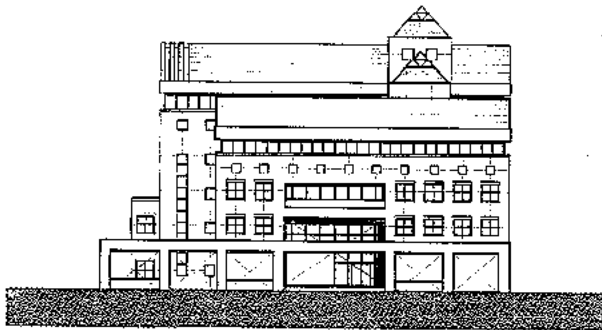
중앙광장 부분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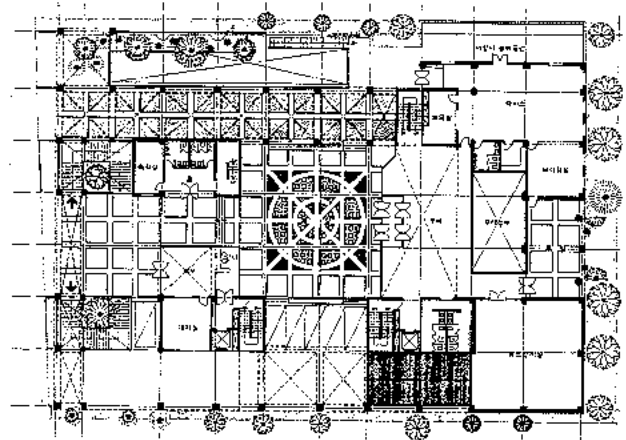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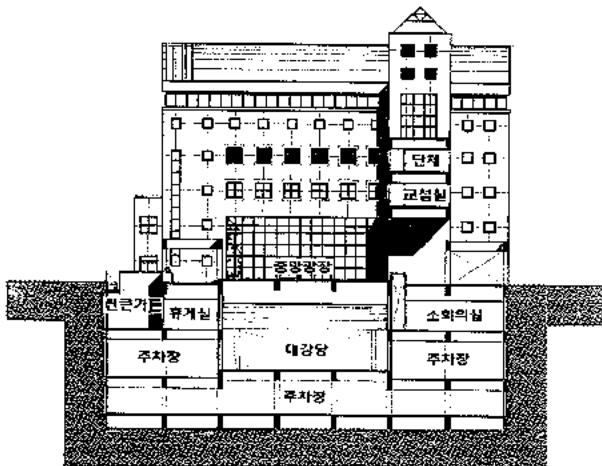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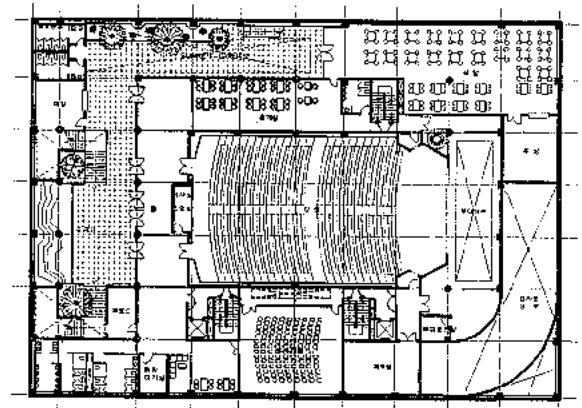
정면도(구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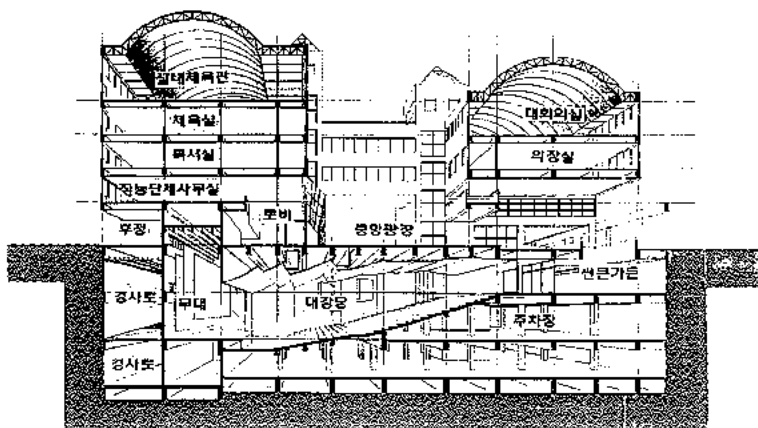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정면도(구민회관)



지하1층 평면도



단면투시도

가작 건원국제건축(안)

(대표 : 이대형)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8-2

대지면적/ 3,035m²

건축면적/ 1,467m²

연면적/ 11,699m²

규모/ 지하 3층, 지상 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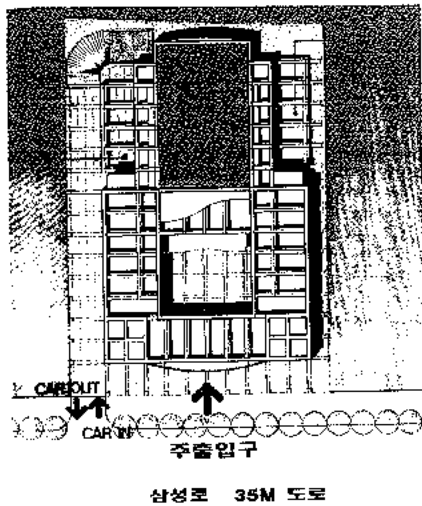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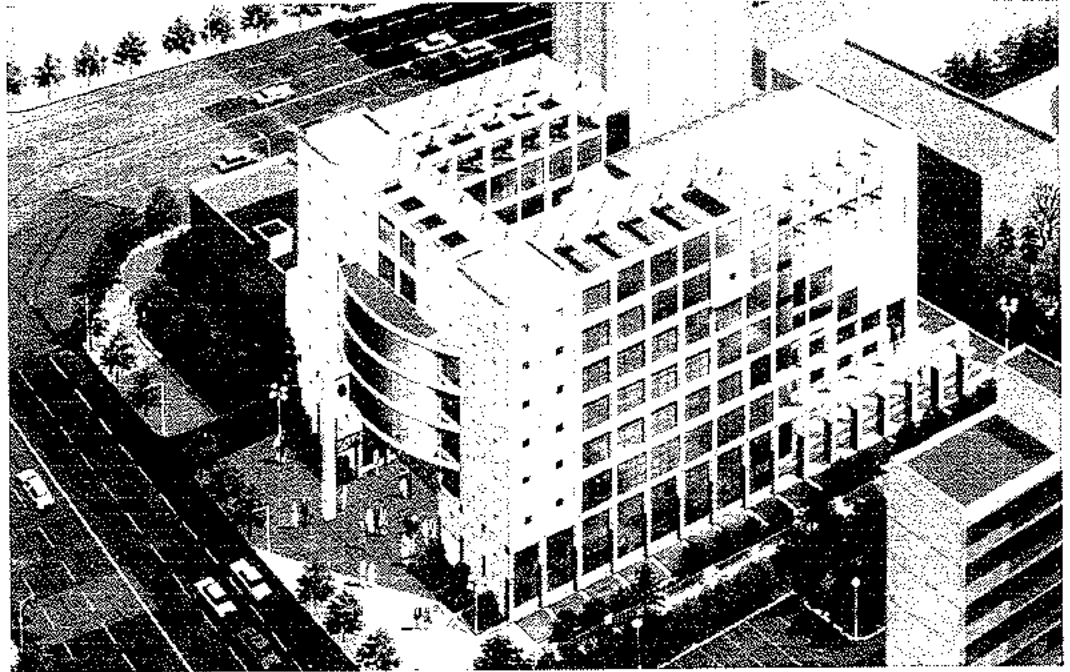
건폐율/ 48.3%

용적률/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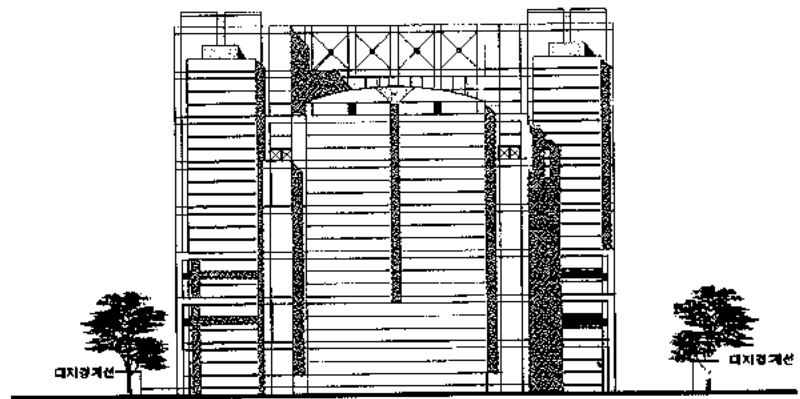
구조/ 철근,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 화강석 및 경량 P.C판넬,

THK 24mm복층 칼라유리



배치도



배면도

■배치계획

- 구민회관 및 구의회의 분리
- 기능의 명확화 및 Privacy의 보호
- 대지와 건물의 통일성 및 조화
- Urban Axis 및 Site Axis와 건물 Axis의 일치
-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유기적 연결
- 피로티 및 Sunken의 설정
- 자연환경(빛·녹지)의 활용으로 내·외부 공간의 유기적 연결 도모
- 보행자 동선의 자연스런 유입으로 동선의 연속성 유도
- 보행자 동선의 원활한 흐름 및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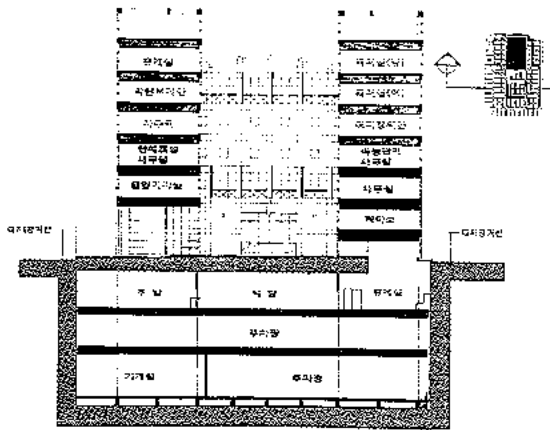
- Deck의 설정→도로에서의 자연스런 접근을 위한 단계적 공간 구성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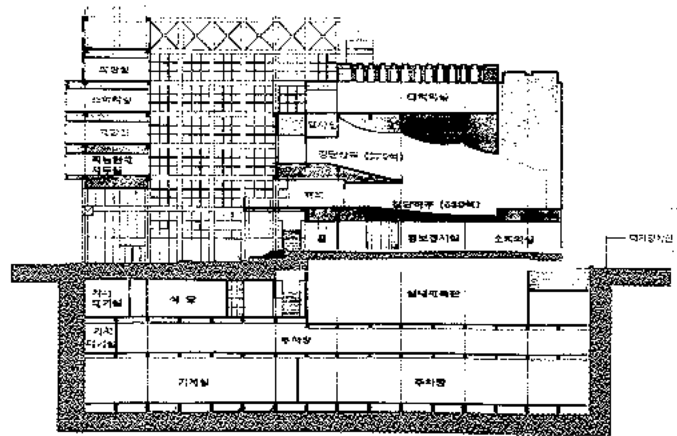
- 대지내 동선 계획
- 보행자 동선의 원활한 흐름 유도
- 전면 도로를 따라 강한 보행자축을 따라 유입되는 보행자 동선을 각 기능 군으로 독립된 성격의 주 출입구 설정으로 원활한 보행자 동선을 유도한다.
- 구민회관 이용자 : 피로티→남측 출입구→구민회관
- 구민회 이용자 : 피로티→북측 출입구→구민회관

- 강당 이용자 : 피로티→중정→Dexk→강당
-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의 체계적 분리
- 구민회관 및 구의회는 구의원, 사무원 및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차 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단순하고 명확한 도로 체계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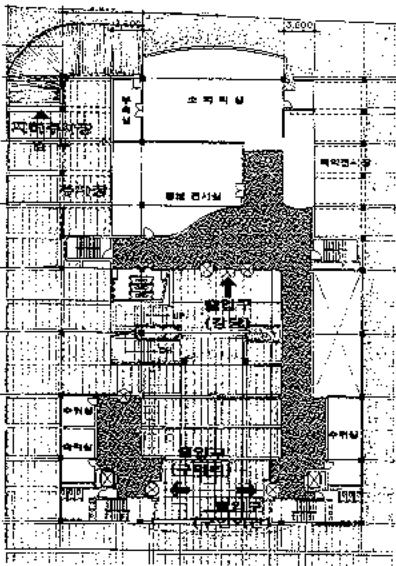
- 건물내 동선 계획
- 구민회관, 구의회 각각의 Main Core를 설치, 각 기능간 동선 분리와 강당과의 연결지점에 Sub Core를 두어 필요실과의 동선 연속성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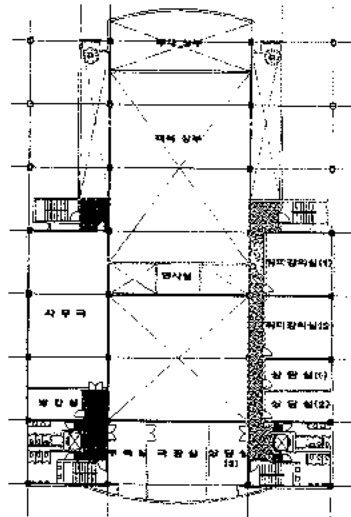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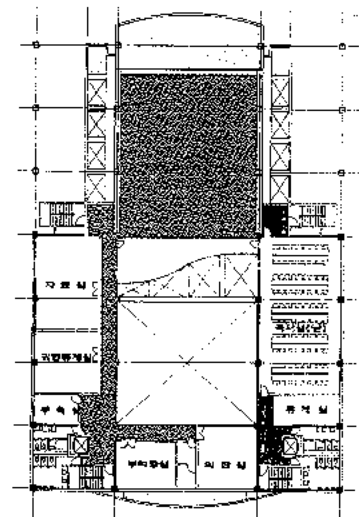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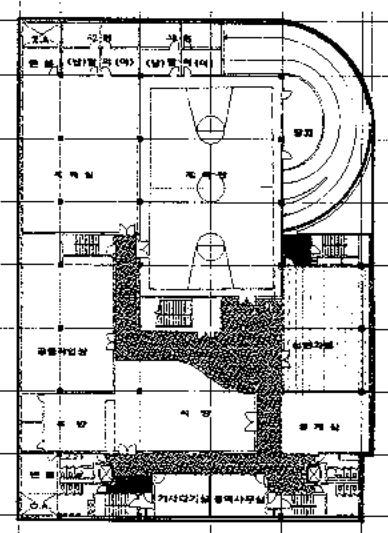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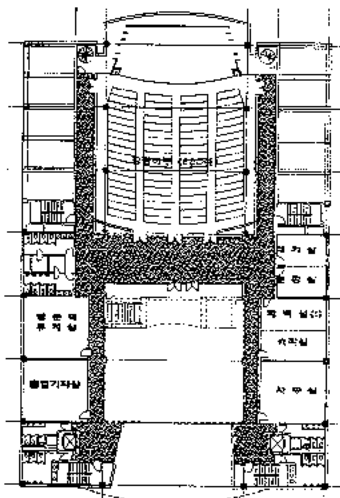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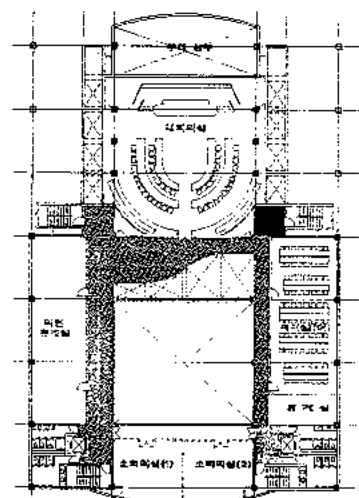
6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5층 평면도

건축사사무소의 CAD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전산위원회

1. 머리말

건축사 사무소에 있어서 컴퓨터의 이용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내에는 퍼스컴을 위주로 CAD의 이용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는 설계에 매우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유용성을 과소평가하여 현재는 CAD의 풍부한 기능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에서는 매년 건축사사무소의 CAD 이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협회도 이러한 차원에서 2년전에 건축사사무소의 CAD이용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는 1991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건축사사무소의 CAD 이용실태와 앞으로의 전산화계획을 조사함으로써 이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조사목적이 있다.

2. 조사의 개요

1. 조사대상과 조직

(1) 조사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건축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고, 설문지의 응답은 회원이 하도록 되어 있다.

(2) 조사조직

본 조사는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전산위원회를 주축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서 설문지의 구성, 배부, 회수, 분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표. 조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안영준(삼예건축사사무소)
위원: 김창선(업지건축사사무소)
김정식(양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정태(정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규태(종합건축사사무소 예일)
구준건(종합건축사사무소성도)
간사: 장영인(대한건축사협회전산실)

특히 설문조사에 있어서 설문지의 구성은 건축전산위원회 전 위원장인 김창서회원이 재임중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하였으며, 대표집필은 김정태 교수가 하였다.

2. 조사실시방법

(1) 조사기간: 1991년 6월17일~7월5일

(2) 조사방법: 본 협회 건축전산위원회에서 작성한 설문지를 본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에 우송하고, 사무소의 대표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본 협회로 우송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2.3 조사항목의 개요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사 사무소의 조직

- 사무소의 형태
- 건축사 보조원수
- 1990년의 주 설계 분야

(2) 건축사의 컴퓨터에 대한 일반 지식

-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지식
-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
- 컴퓨터 운영방법에 대한 지식
- CAD의 유용성에 대한 지식

(3) 설문지의 회수율

지역	발송수	회송수	회수율
서울	1,737	348	20%
부산	408	95	23%
대구	253	43	17%
인천	106	22	21%
광주	122	23	19%
대전	110	18	16%
경기	317	81	26%
강원	48	19	40%
충북	77	25	33%
충남	54	21	39%
전북	79	23	29%
전남	50	17	34%
경북	91	34	34%
경남	200	55	28%
제주	39	11	28%
합계	3,691	835	23%

(3) 현재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CAD 이용 현황

- 컴퓨터의 최초 설치년도
- CAD의 최초 이용년도
- 보유중인 컴퓨터 본체
- 보유중인 모니터
- 보유중인 플로터
- 컴퓨터의 사용분야
- CAD 전담요원 및 컴퓨터 이용인원
- CAD 시스템의 도입방법
- 이용중인 CAD용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이름
- CAD 시스템 도입후 CAD 교육방법
- 현재 도면의 보관 매체

- CAD 시스템에 투자한 금액
- 컴퓨터 도입시 고려한 효과
- 컴퓨터 이용시 얻어진 효과
- 컴퓨터로 업무를 차지하는 비율

(4) 현재 CAD를 활용하지 않는 건축사 사무소의 앞으로의 전산화 계획

- 향후 전산화계획 유무
- 전산화 계획년도
- 사무소 전산화의 추정비용
- 전산화시 컴퓨터의 주활용분야
- 사무소 전산화시 어려운 점
- 사무소 전산화시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 방법
- 컴퓨터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방법
- 기존 보조원 CAD 교육시 교육비 부담
- 전산화를 위한 협회차원의 지원 필요성
- 협회 지원시 필요한 사항

3. 응답한 건축사 사무소의 조직

(1) 사무소의 형태 (표1참조)

사무소의 형태는 대부분 단독사무소 (51%)와 종합사무소 (49%)로 나타났다.

(2) 건축사 보조원수

건축사 보조원수는 1~3인이 13%, 4~6인이 19%, 7~10인이 38%로서 전체의 70%가 10인이하로 나타났다. (표2참조)

(3) 1990년의 주설계분야 (표3참조)

4. 건축사의 컴퓨터에 대한 일반 지식

건축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보면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는편이 18%, 모르는 편이 82%이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아는편이 20%, 모르는 편이 80%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아는편이 18%, 모르는 편이 82%이고, CAD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는편이 44%, 모르는 편이 56%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CAD의 유용성은 잘 알고 있으나 대부분이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운용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및 그림1참조)

그림1 CAD의 유용성에 대한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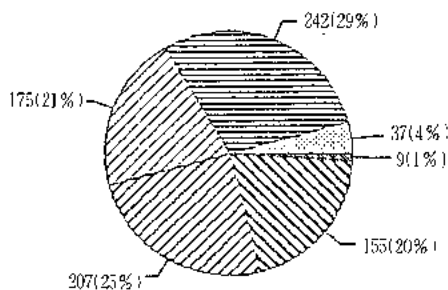


표1 사무소 형태

형 태	응 답 수	백분율 (%)
(1) 단독사무소	424	50.8
(2) 종합사무소	410	49.1
(3) 용역사무소	1	0.1
합 계	835	100

표2 건축사 보조원수

보조원수	응 답 수	백분율 (%)
(1) 1-3인 이하	106	13
(2) 4-6인 이하	321	38
(3) 7-10인 이하	160	19
(4) 11-15인 이하	70	8
(5) 16-20인 이하	24	3
(6) 21-30인 이하	18	2
(7) 31-50인 이하	24	3
(8) 51인 이상	9	1
(9) 무 응 답	103	12
합 계	835	100

표3 1990년의 주설계분야(복수응답)

설계분야	응 답 수	백분율 (%)
(1) 단독주택	506	16
(2) 종교시설	134	4
(3) 근린생활시설	677	21
(4) 공동주택	483	15
(5) 업무시설	432	13
(6) 숙박시설	171	5
(7) 교육연구시설	136	4
(8) 판매시설	153	5
(9) 의료시설	77	2
(10) 공장	344	11
(11) 기타	105	3
합 계	3,218	100

표4 건축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일반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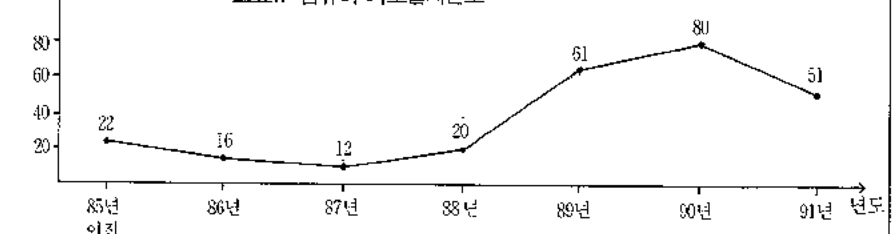
	매우 잘한다	잘 아는 편이다	그 저 그렇다	잘 모르는 편이다	전 혀 모른다	무응답	합계
(1) 하드웨어시스템	8	108	233	309	168	9	835
(2) 소프트웨어	6	121	222	311	166	9	835
(3) 컴퓨터 운용방법	11	144	196	298	177	9	835
(4) CAD의 유용성	37	242	175	207	165	9	835

5. 현재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CAD 이용현황

(1) 컴퓨터의 최초 설치년도

컴퓨터의 설치년도를 보면 1989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표1참조)

도표1. 컴퓨터 최초설치년도



(2) CAD의 최초이용년도(도표2참조)

건축사무소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CAD를 이용한 최초의 연도를 보면 컴퓨터 설치년도와 일치하게 1989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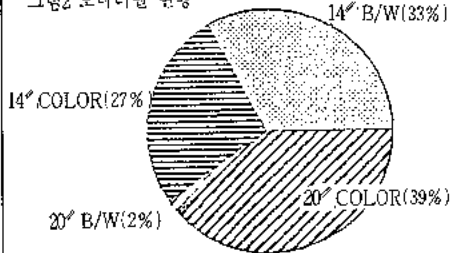
(3) 보유중인 컴퓨터본체(표5참조)

보유중인 본체는 IBM 386 PC호환이 536대, IBM PC AT호환이 280대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IBM호환기종 이용이 대부분이며 AT급에서 386으로 기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4) 보유중인 모니터(그림2참조)

대 수	14인치	20인치
(1) 흑백	133	10
1-3대 칼라	109	167
(2) 흑백	18	—
4-6대 칼라	20	23
(3) 흑백	18	—
7-9대 칼라	12	11
(4) 흑백	6	—
10대 이상 칼라	1	4

그림2 모니터별 현황



모니터는 대부분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흑백보다 칼라모니터의 보유비율이 증가하며, 또한 14인치보다 20인치를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보유중인 플로터

보유중인 플로터를 제작회사별로 보면 Hewlett Packard 제품이 49%, Mutoh 제품이 19%, Houston Instrument 제품이 9%로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표6, 그림3참조)

또한 플로터를 사이즈별로 보면 A₀가 54%, A₁이 44%, A₃가 2%로 나타났다.(그림4참조)

(6) 컴퓨터의 사용분야

컴퓨터의 주사용분야는 복수응답한 것을 백분율로 보면 실시도면 작도가 30%, 문서작성이 21%, 구조해석 14%, 사무소관리 15%, 투시도 11%등으로 나타났다.(표7, 그림5참조)

표7 컴퓨터의 사용 분야(복수응답)

(1) 실시도면 작도	229
(2) 구조해석	106
(3) 견 적	56
(4) 문서작성	158
(5) 투 시 도	83
(6) 사무소관리(경리, 인사, 도면 등)	111
(7) 기타(제책도면, 시방서 등)	14
합계	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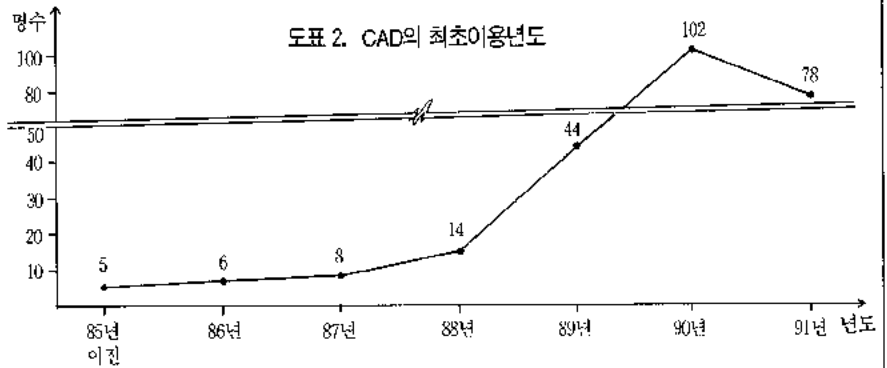


도표 2. CAD의 최초이용년도

표5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본체

보 유 기 종	1대	2대	3대	4-5대	6-7대	8-9대	10이상	회원수	총대수
(1) IBM PC/XT 호환	36	9	3	2				50	71
(2) IBM PC/AT 호환	83	28	15	9	6	2		143	280
(3) IBM 386 PC호환	87	55	29	28	5	5	5	214	536
(4) IBM 486 PC 호환	37	13	6	3				59	93
(5) 메켄토시	4	2						6	8
(6) WORK STATION	13	1	3			1	2	20	67
(7) 미니 컴퓨터	7	4						11	15
(8) 기 타	2							2	2

표6 보유중인 플러터

번 호	제작 회사명	A ₀ 사이즈	A ₁ 사이즈	A ₃ 사이즈	합 계
(1)	HEWLETT PACKARD	88	34	1	123
(2)	HOUSTON INSTRUMENT	9	13	·	22
(3)	MUTOH	13	36	·	49
(4)	ROLAND	4	8	3	15
(5)	GRAPHTEC	9	6	·	15
(6)	CALCOMP	3	5	·	8
(7)	ENCAD	2	2	1	5
(8)	OCE	3	·	·	2
(9)	기타 (무기입 포함)	6	5	1	12
	계	136	110	6	252

그림3 플로터 사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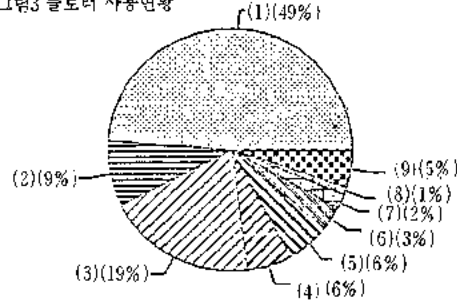


그림 컴퓨터 사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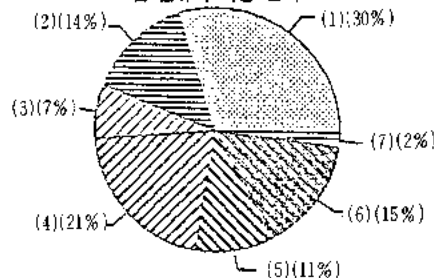


그림4 플로터 사이즈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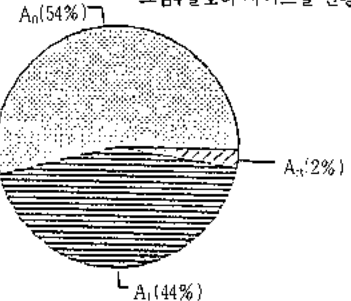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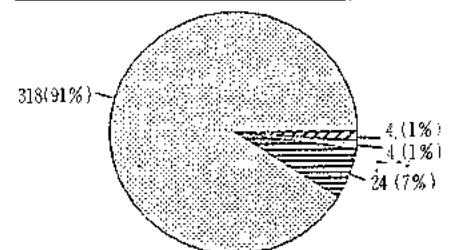


표8 CAD 전담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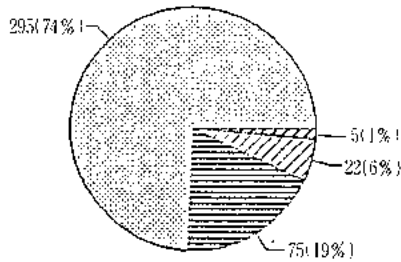
인 원	1-3인	4-6인	7-9인	10인 이상
남	179	20	4	3
여	139	4		1
합 계	318	24	4	4



(7) CAD전담요원 및 컴퓨터 이용인원
CAD전담요원은 1~3인이 전체의 91%, 컴퓨터 이용인원은 1~3인이 74%, 4~6인이 19%로 나타났다.(표7, 표8참조)

표9 컴퓨터 이용 인원

인원	1-3인	4-6인	7-9인	10인 이상
남	137	51	15	4
여	158	24	7	1
합계	295	75	22	5



(8) CAD 시스템의 도입방법

건축사 사무소의 CAD 시스템 도입방법은 전체의 83%가 처음부터 퍼스컴 CAD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참조)

(9) 이용중인 CAD용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이름

현재 이용중인 CAD용 소프트웨어는 1종류 이용이 198개사, 2종류가 87개사, 3종류가 3개사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중인 CAD용 소프트웨어를 보면 Auto CAD가 72%, Aris가 15%로 AES가 3%로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참조)

표11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이름

소프트웨어 이름	응답수	백분율(%)
(1) AUTO	202	72
(2) ARRIS	43	15
(3) AES	9	3
(4) ARC+	4	1
(5) VERSA	3	1
(6) CADAM	3	1
(7) ARCHITRON	3	1
(8) ARTIST	3	1
(9) ACROPOLIS	2	1
(10) TOPAS	1	1
(11) GDS	1	0
(12) 기타	5	2
합계	279	100

※ 238개사가 279개의 소프트웨어사용

(10) CAD시스템 도입후 CAD교육방법

CAD시스템을 도입한후 CAD의 교육방법을 보면 자사요원이 신입요원 교육시키는 경우가 39%, 소프트웨어 도입업체에 파견하여 교육시키는 경우가 38%로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표12참조)

(11) 현재 도면의 보관매체 (표13참조, 그림6·7참조)

(12) CAD 시스템에 투자한 금액

그동안 CAD시스템과 관련하여 투자한 총액을 보면 2천만원~3천만원이 24%, 1천만원~2천만원이 22%, 3천만원~4천만원이 11%등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평균 4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표14참조)

표10 CAD 시스템의 도입방법

	응답수	백분율(%)
(1) 퍼스컴 CAD시스템을 도입후, 대형 CAD시스템을 도입하였다.	10	4
(2) 대형 CAD시스템을 도입후 퍼스컴 CAD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	1
(3) 처음부터 퍼스컴 CAD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222	83
(4) 처음부터 대형 CAD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19	7
(5) 무 기 입	14	5
합계	267	100

표12 CAD시스템 도입후 CAD교육방법

교육 방법	응답수	백분율(%)
(1) 자사요원이 신입요원 교육	104	39
(2) 해당요원이 자습	28	10
(3) 소프트웨어 도입업체 파견	101	38
(4) 전문학원 파견	20	7
(5) 무 기 입	14	5
합계	267	100

표13 현재 도면의 보관매체(두 종류이상 사용시사용비율 기재)

보관매체	30% 이하	31 - 50%	51 - 80%	81 - 100%
(1) 종이	15	35	53	39
(2) 플로피디스크	66	42	31	5
(3) 하드 디스크	62	22	4	5
(4) 자기 테이프	3	9	2	3
(6) 기 타		1		2

그림6 각매체별 80%이상 사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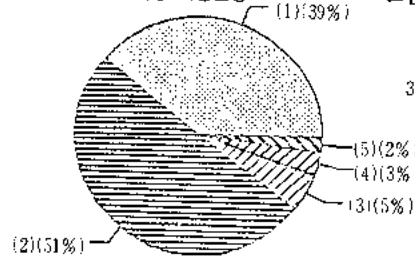


그림7 플로피디스크 사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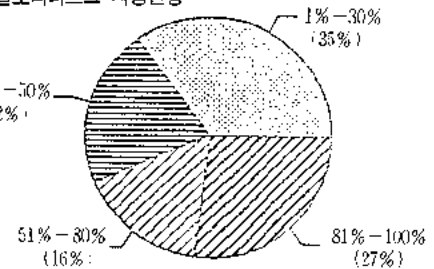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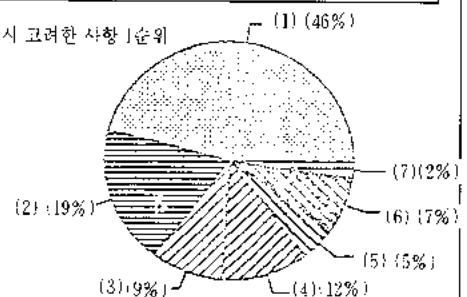
표14 CAD시스템에 투자한 금액

투자금액	응답수	백분율(%)
(1) 1천만원 이하	27	10
(2) 1천만원~2천만원 이하	59	22
(3) 2천만원~3천만원 이하	63	24
(4) 3천만원~4천만원 이하	30	11
(5) 4천만원~5천만원 이하	22	8
(6) 5천만원~8천만원 이하	23	9
(7) 8천만원~1억 이하	7	3
(8) 1억 이상	18	7
(9) 무기입	18	7
합계	267	100

그림8 컴퓨터 도입시 고려한 사항 1순위

(13) 컴퓨터 도입시 고려한 효과

컴퓨터 도입시 고려한 효과를 7개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를 기재하게 한 결과 1순위를 선택한 경우를 보면 사람이 하는 작업량의 절감이 46%, 작업내용의 신뢰성향상이 19%, 작업의 단순화, 두터화가능 12%, 작업기간의 단축 9%등으로 나타났다. (표15참조, 그림8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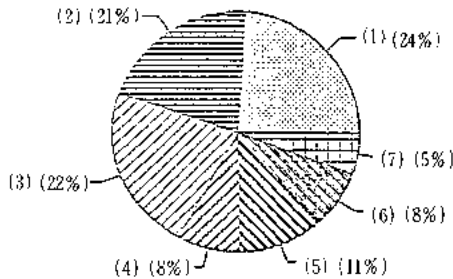


(14) 컴퓨터 이용시 얻어진 효과

컴퓨터를 도입한 후 실제 이용시 얻어진 효과를 앞 문항의 7개항목에 대해 우선순위를 기재하게 한 결과 1순위를 선택한 경우를 보면 사람이 하는 작업량의 절감 24%, 작업기간의 단축 22%, 작업내용의 신뢰성향상이 21%등으로 나타났다. (표16및 그림9참조)

이 결과를 보면 사람이 하는 작업량의 절감만이 컴퓨터 도입시 고려한 효과보다 낮았을 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용시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9 컴퓨터 이용시 얻어진 효과 1순위



(15)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는 비율 (표17참조)

6. 현재 CAD를 활용하지 않는 건축사 사무소의 앞으로의 전산화 계획

(1) 앞으로의 전산화계획 유무

앞으로의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다가 전체의 93%, 없다가 7%로서 대부분 앞으로 전산화할 예정인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부터의 응답결과는 전산화예정인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림10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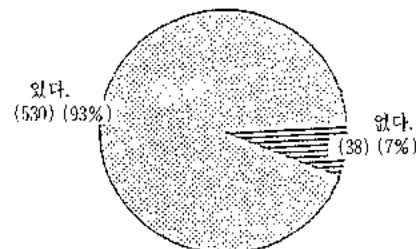


그림10 앞으로의 전산화계획

(2) 전산화 계획년도

전산화계획년도는 91년도가 17%, 92년이 44%, 93년이 28%로서 전체의 89%가 1~2년내에 전산화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그림1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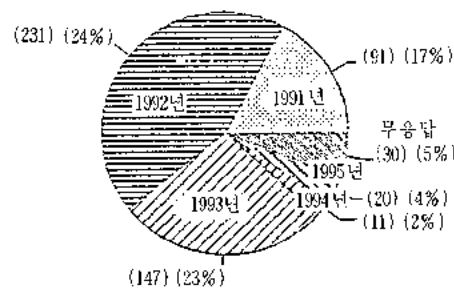


그림11 전산화계획년도

(3) 사무소 전산화의 추정비용

사무소 전산화의 추정비용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18%, 1,000~2,000만원 44%, 2,000~3,000만원 20% 등 평균 1천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표18참조)

표15 컴퓨터 도입시 고려한 효과

	컴퓨터 도입시 고려한 사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1) 사람이 하는 작업량의 절감	94	5	45	18	2	17	25
(2) 작업내용의 신뢰성 향상	38	18	68	26	6	29	18
(3) 작업기간의 단축	19	29	35	27	21	29	42
(4) 작업의 단순화, 루틴화 가능	24	44	21	32	14	37	23
(5) 사람이 하기 곤란한 작업을 실행	10	49	17	30	21	38	21
(6) 작업내용의 질적 향상	15	26	7	38	33	29	31
(7) 건축주에게 프레젠테이션 효과	4	14	5	19	84	11	42

표16 컴퓨터 이용시 얻어진 효과

	컴퓨터 도입시 고려한 사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1) 사람이 하는 작업량의 절감	49	11	56	25	11	16	20
(2) 작업내용의 신뢰성 향상	42	17	34	17	18	33	23
(3) 작업기간의 단축	45	31	19	27	16	29	35
(4) 작업의 단순화, 루틴화 가능	17	37	7	28	18	41	23
(5) 사람이 하기 곤란한 작업을 실행	23	30	23	24	14	29	25
(6) 작업내용의 질적 향상	16	23	27	38	29	19	14
(7) 건축주에게 프레젠테이션 효과	11	25	7	12	63	6	40

표17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는 비율

업 무 내 용	30%이하	31-51%	51-80%	81-100%
투시도 작성	85	13	6	4
평면, 입면, 단면도 작성	73	56	51	42
실시도면 작성	103	49	39	23
일반 문서 작성	59	18	23	69
인사, 급여, 회계관리	47	15	9	28

표18 사무소 전산화의 추정비용

금 액	응답수	백분율 (%)
(1) 1천만원 이하	98	18
(2)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227	44
(3) 2,000만원 - 3,000만원 이하	109	20
(4) 3,000만원 - 5,000만원 이하	17	3
(5) 4,000만원 - 5,000만원 이하	8	2
(6) 5,000만원 이상	21	4
(7) 무기입	50	9
합 계	530	100

(4) 전산화시 컴퓨터의 주활용분야
전산화시 컴퓨터의 주활용분야에 대한 복수 응답을 보면 실시도면작도, 구조해석, 견적, 문서작성, 투시도, 사무소관리등 전부분에 대하여 고르게 이용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표19참조)

표19 전산화시 컴퓨터의 주활용분야(복수응답)

활용분야	응답수	백분율 (%)
(1) 실시도면 작도	478	24
(2) 구조해석	362	18
(3) 견 적	276	14
(4) 문서작성	263	13
(5) 투시도	319	16
(6) 사무소 관리(경리, 인사, 도면 등)	294	15
(7) 기타(계획도면, 지방서 등)	35	2
합 계	2,027	100

(5) 사무소 전산화시 어려운 점

사무소 전산화시 어려운점(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의 과다, 시스템 기종 선정의 어려움, 소프트웨어선정의 어려움, 관련

기본자료의 부족, 전산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및 기존요원의 CAD에 대한 인식부족등 전분야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0참조)

표20 사무소 전산화시 어려운 점(복수응답)

항 목	응답수	백분율
(1) 소요 비용의 과다	313	21
(2) 시스템 기종 선정의 어려움	235	15
(3) 소프트웨어 선정의 어려움	204	13
(4) 관련 기본 자료의 부족	264	17
(5) 전산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322	22
(6) 기존요원의 CAD에 대한 인식 부족	174	11
(7) 기 타	13	1
합 계	1,525	100

(6) 사무소 전산화시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방법
사무소 전산화시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보조원을 교육시켜 운영하는 방법이 55%, 건축사 본인이 교육을 받아 운영하는 방법이 33%로서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1참조)

표21 사무소 전산화의 컴퓨터시스템의 운영방법 (%)

운 영 방 법	응답수	백분율
(1) 건축사 본인이 교육을 받아 운영	176	33
(2) 전산전담 요원 채용	54	10
(3) 기존 보조원을 교육시켜 운용	289	55
(4) 무응답	11	2
합 계	530	100

(7) 컴퓨터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방법

컴퓨터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업체 협찬교육으로 협회에서 주최하는 방법이 61%,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방법이 20%, 외부강사 초빙하여 사무소에서 교육하는 방법이 17%로서 전체의 98%를 차지하였다.(표22참조)

(8) 기존 보조원 CAD교육시 교육비 부담

컴퓨터 운영을 위해 기존 보조원의 CAD교육시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사무소에서 부담이 68%, 사무소 및 교육자에게 부담이

26%등 전체의 94%에 대해서 사무소에서 부담할 예정으로 나타났다.(표23참조)

표22 컴퓨터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방법 (%)

교육방법	응답수	백분율
(1) 컴퓨터 시스템업체 협찬 교육으로 협회에서 주최	323	61
(2)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106	20
(3) 외부강사 초빙하여 사무소에서	89	17
(4) 무기입	12	2
합 계	530	100

표23 기존 보조원(CAD)교육시 교육비 부담 (%)

항 목	응답수	백분율
(1) 사무소에서 부담	363	68
(2) 교육자에게 부담	14	3
(3) 사무소 및 교육자에게 부담	136	26
(4) 기타 (시스템도입업체, 협회)	7	1
(5) 무기입	10	2
합 계	530	100

(9) 전산화를 위한 협회차원의 지원필요성
건축사사무소의 전산화를 위해 협회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당장 필요하다고 57%, 필요하나 아직 때가 이르다가 36%로서 과반수 이상이 당장 필요함을 느끼며, 필요성에 대해서 93%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4참조)

표24 전산화를 위한 협회차원의 지원 필요성 (%)

항 목	응답수	백분율
(1) 지금 당장 필요하다	293	57
(2) 필요하나 아직은 때가 이르다	182	36
(3) 필요없다	5	1
(4) 잘 모르겠다	31	6
합 계	511	100

(10) 협회 지원시 필요한 사항(표25참조)

만일 협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할때 원하는 것을 보면 전산화에 대한 기본자료제공

표25 협회 지원시 필요한 사항

항 목	지원사항 (복수응답) 가장 필요한 사항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1) 건축사사무소에 전산화에 대한 세미나 또는 워크샵 등을 매년 개최	206	13	19	4
(2) 건축사사무소 전산화에 대한 기본 자료 제공(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선정과 구입 방법)	428	28	199	38
(3) 건축사사무소 전산화에 대한 자문(예, 협회에서 자문위원 위촉 상담실시)	166	11	27	5
(4) 건축사사무소 전산화에 대한 교육 실시	325	21	115	22
(5) 회원들이 쉽게 CAD를 운용할 수 있도록 건축 CAD에 관한 기초적인 데뉴얼등을 연차적으로 발간하여 회원에게 배포	405	26	106	20
(6) 기 타(자금지원, 단말기 설치 등)	11	1	5	1
(7) 무 응 답			59	11
합 계	1,541	100	530	100

28%, 기초메뉴얼 배포26%, 교육실시 21%, 세미나워크샵 개최 13%, 협회차원의 사무 11% 등 거의 전분야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하나씩 선택하게 한결과, 기본자료제공이 38%, 기본교육실시 22%, 기초메뉴얼 배포 20%로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맺는말

우리나라 건축사사무소의 CAD이용상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① 건축사들이 컴퓨터에 대하여 갖고있는 일반적인 지식들을 보면 CAD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컴퓨터의 최초 설치년도는 89년 부터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AD의 최초이용년도도 89년 부터 급증하여 89년이 건축사 사무소의 전산화가 본격화되는 분기점으로 나타났다.
- ③ 현재 보유중인 컴퓨터 본체는 IBM 386 PC호환기종이, 모니터는 20인치 칼라가, 또한 플로터는 HP사 제품으로서 A₀와 A₁ 사이즈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④ 컴퓨터는 실시되면 작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CAD전담요원은 1~3인이 전체의 91%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83%가 처음부터 PC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Auto CAD가 72%로 나타났다.

- ⑤ 그동안 CAD시스템에 투자한 비용은 1,000~3,000만원이 전체의 46%를 차지하였으며, 첫 CAD시스템의 도입시에는 사람이 하는 작업량의 절감에 큰 목표를 두었으나 실제 이용결과서는 여러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효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⑥ 현재 CAD 시스템이 없는 사무소 중에서 전체의 93%가 전산화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의 98%가 93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산화 추정비용은 1,000~2,000만원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

- ⑦ 현재 CAD시스템이 없는 사무소중에서 전산화시 갖는 어려움은 소요비용의 과다, 시스템기종선정의 어려움, 소프트웨어 선정의 어려움, 관련기본자료의 부족, 전산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 전분야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⑧ 전산화를 위해서는 전체의 93%가 협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산화에 대한 기본자료제공, 기초메뉴얼 배포, 관련교육실시 등에 큰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 건설부령 제 497 호 (1991. 12. 23)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에는 감리전문회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에 한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감리전문회사의 확충을 유도하고 감리전문회사의 보유장비기준중

감리시 필요한 기본장비 및 휴대용장비만을 보유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건설부 제공〉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조를 삭제한다.

제 18조 제 1 항 각호를 제외한 부분중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내에 별지 제 4 호 서식의"을 "별지 제 4 호서식의"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등록신청

일이전 1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구 분		장 비 명	기 준
시 공 및 전 면 책 임 감 리 전 문 회 사	토	전자계산기	주변기기를 갖춘 퍼스널컴퓨터 16비트(XT)급이상(보조기억장치로 하드디스크 20MB이상 내장)
		측량기	평파측정기 정도 : ($\pm 5\text{mm} + 3\text{PPM}$)L이상 최소독치 : mm
		트랜시트	감도 20"이상
		레벨	1대
	폴	전조로	자동온도조절 온도범위 : 상온~150℃ 정밀도 : $\pm 2^\circ\text{C}$ 내부크기 : 150ℓ 이상
		중량계측	· 저울(Solution Balance) : 1대 20kg, 감도 1g · 저울(Triple Beam Balance) : 1대 2610g, 감도 0.1g · 자동저울 400g, 감도 0.01g
		체가름시험기	· 잔골재 체가름 시험기 : 1대 · 표준체 #4, #8, #16, #30, #50, #100, #200, 팬 · 진동식 조골재 체가름 시험기 : 1대 · 4각 표준체(50×50×5cm) 3", 2", 1 1/2", 1", 3/4", 1/2", 3/8"
	토질시험장 장비	현장밀도 시험기	8"들밀도 콘 1세트, 12"들 밀도 콘 1세트
		평판재하 시험기	· 재하판(30cm, 40cm, 75cm). 유압잭(30Ton) · 다이알게이지(1/100mm)2개. 지지대 (3M이상)
	콘크리트 시험장비	슬럼프시험용 기구	· 슬럼프콘 : 10×20cm, H=30cm · 측정용자 · 다짐봉 및 밀판
		공기량시험기	형식 : 위성탄형 또는 수주식 용량 : 7ℓ 또는 12ℓ
		셋기분석 시험용기구	· 혼합용기 : 5ℓ 이상 · 세척표준체 : #4, #30, #170, H=10cm
		자동염분 측정기	측정범위 : 0.001~1.999%, 측정온도 0~40℃ 전원 : 전지 및 AC 100V 겸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험장비	코어 채취기	개솔린 엔진식, 동력 : 3.5HP 코어직경 : 100mm
		평탄성 시험기	장치길이 : 3.2M, 기록장치 : 약 1,000M용 실고저 기록범위 : $\pm 25\text{mm}$
		밀도시험용	· 용적 측정용 플라스크 1,000ml 이상

구 분		장	비 명	기	준	
구			기구	· 진공펌프 또는 불흡입기		
			아스팔트 함량시험기	전동식 원심분리기, 속도 : 3,600RPM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	측정범위 : 100~600kg /cm ² 측정 : 기록식		
			철근 탐지기	피복두께 : 100mm이상, 철근간격측정		
			도막 두께 측정기	측정방식 : 전자식 측정대상물 : 금속 및 비자성 금속피막, 콘크리트 피막 측정범위 : 0~2,000 μ m $\pm$ 1 μ m		
	측	건		전자계산기	주변기기를 갖춘 퍼스널컴퓨터 16비트(XT)급 이상 (보조기억장치로 하드디스크 20MB이상 내장)	
			측 량 기	트렌시트	감도 20" 이상	
				레벨	1대	
			소음 측정기	측정범위 : 40~110DB		
		골 재 시 험 장 비		건조로	자동온도조절 온도범위 : 상온~150℃ 정밀도 : $\pm$ 2℃ 내부크기 : 150ℓ 이상	
				중량계측	· 저울(Solution Balance) : 1대 20kg, 감도 1g · 저울(Triple Beam Balance) : 1대 2610g, 감도 0.1g · 자동저울 400g, 감도 0.01g	
				체가름시험기	· 잔골재 체가름 시험기 : 1대 · 표준체 #4, #8, #16, #30, #50, #100, #200, 팬 · 전동식 조골재 체가름 시험기 : 1대 · 4각 표준체(50×50×5cm) 3", 2", 1 1/2", 1", 3/4", 1/2", 3/8"	
		콘 크 리 시 험		슬럼프시험용 기구	· 슬럼프콘 : 10×20cm, H = 30cm · 측정용자 다짐봉 및 밀판	
				공기량시험기	형식 : 워싱턴형 또는 수주식 용량 : 7ℓ 또는 12ℓ	
				씻기분석 시험용 기구	· 혼합용기 : 5ℓ 이상 · 세척표준체 : #4, #30, #170, H = 10cm	
				자동염분 측정기	측정범위 : 0.001~1.999%, 측정온도 0~40℃ 전원 : 전지 및 AC 100V 겸용	
				코아채취기	형식 : 전기식, 방법 : 수직 및 수평겸용 정원 : 100V~220V 겸용, 코아직경 : 100mm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	측정범위 : 100~600kg/cm ² 측정 : 기록식	
				철근탐지기	피복두께 : 100mm이상, 철근간격측정	
				목재흡수율측정기	측정범위 : 6~30% 정밀도 : $\pm$ 0.5%	
				타일인발시험기	유압용량 : 1,500kg, 측정(Digital표시) 인발강도 : 90kg /cm ²	
				도막 두께 측정기	측정방식 : 전자식 측정대상물 : 금속 및 비자성 금속피막, 콘크리트 피막 측정범위 : 0~2,000 μ m $\pm$ 1 μ m	

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1년 1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 12월분 1천3백83만6천1백97m²보다 1.25%(17만3천6백12m²) 증가한 1천4백9천8백9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 1~12월 누계 1억3천9백63만3천8백1m²보다 2.39%(3백33만6천1백94m²) 감소한 1억3천6백29만7천6백7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 월 비 전월 11월분 7백46만4천5백73m²보다 87.68%(6백54만5천2백36m²) 감소한 1천4백9천8백9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 기준 - 전년동월비)

(단위 / m²)

구분	1990년도	1991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대구	425,132	861,042	435,910	102.54%
인천	334,626	727,824	393,198	117.50%
경기	2,139,794	3,050,538	910,744	42.56%
강원	298,216	329,419	31,203	10.46%
충북	382,400	485,801	103,401	27.04%
충남	398,045	556,533	158,488	39.82%
전북	778,490	1,172,122	393,632	50.56%
제주	139,540	187,073	47,533	34.06%
감소지역				
서울	2,290,306	1,715,580	(574,726)	-25.09%
부산	1,959,881	1,729,428	(230,453)	-11.76%
광주	465,804	337,135	(128,669)	-27.62%
대전	501,820	336,612	(165,208)	-32.92%
전남	701,295	554,668	(146,627)	-20.91%
경북	1,206,420	603,230	(603,190)	-50.00%
경남	1,814,428	1,362,804	(451,624)	-24.89%
합계	13,836,197	14,009,809	173,612	1.25%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 m²)

종별	11월분	12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341,949	492,830	150,881	44.12%
다세대주택	117,880	273,948	156,068	132.40%
연립주택	134,862	368,721	233,859	173.41%
아파트	2,991,465	6,008,281	3,016,816	100.85%
근린생활시설	1,015,172	2,097,719	1,082,547	106.64%
종교시설	78,714	105,071	26,357	33.48%
의료시설	82,642	56,308	(26,334)	-31.87%
교육연구시설	390,600	527,761	137,161	35.12%
업무시설	556,726	1,339,261	782,535	140.56%
숙박시설	126,031	113,318	(12,713)	-10.09%
공장	920,438	1,380,934	460,496	50.03%
기타	708,094	1,245,657	537,563	75.92%
계	7,464,573	14,009,809	6,545,236	87.68%

市道別 全國圖書申告 概況 (12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101	1,169	1,641,276	108	120	74,304	0	0	0	1,209	1,289	1,715,580
부산	1,193	1,462	1,637,336	156	205	51,689	71	83	40,403	1,420	1,750	1,729,428
대구	588	699	779,317	291	344	66,448	35	36	15,277	914	1,079	861,042
인천	267	382	701,397	26	28	18,480	21	21	7,947	314	431	727,824
광주	212	279	282,994	59	82	46,768	11	11	7,373	282	372	337,135
대전	376	415	298,247	46	49	21,172	70	71	17,193	492	535	336,612
경기	1,461	2,112	2,736,386	204	234	123,909	123	123	190,243	1,788	2,469	3,050,538
강원	465	570	297,620	103	125	23,626	29	29	8,173	597	724	329,419
충북	587	750	412,672	99	147	63,518	59	59	9,611	745	956	485,801
충남	550	588	461,311	134	136	62,221	30	30	33,001	714	754	556,533
전북	599	796	1,077,396	132	187	84,384	19	19	10,342	750	1,002	1,172,122
전남	546	766	481,613	148	214	62,583	39	40	10,472	733	1,020	554,668
경북	698	871	438,465	176	235	143,871	34	33	20,894	908	1,139	603,230
경남	1,287	1,647	1,246,057	235	292	90,872	50	51	25,875	1,572	1,990	1,362,804
제주	485	547	174,781	121	123	12,292	0	0	0	606	670	187,073
합계	10,415	13,053	12,666,868	2,038	2,521	946,137	591	606	396,804	13,044	16,180	14,009,809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 (1~12月 合計分)

구분 시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35,954	37,453	23,290,825	1,066	1,138	702,052	0	0	0	37,020	38,591	23,992,877
부산	16,647	20,403	10,168,944	2,289	2,919	574,791	523	595	293,899	19,459	23,917	11,037,634
대구	7,550	8,509	5,573,504	4,915	5,216	493,018	417	423	213,948	12,882	14,148	6,280,470
인천	4,416	5,671	6,836,143	306	351	212,627	238	243	110,386	4,960	6,265	7,159,156
광주	4,462	4,964	2,871,627	937	1,029	338,551	117	117	36,184	5,516	6,110	3,246,362
대전	4,003	5,003	6,389,391	483	517	239,804	1,068	1,130	187,979	5,554	6,650	6,817,174
경기	23,384	29,217	28,046,263	2,103	2,420	1,210,392	984	984	923,538	26,471	32,621	30,180,193
강원	5,735	6,648	2,743,307	1,344	1,606	431,937	238	240	68,461	7,317	8,494	3,243,705
충북	7,155	8,624	4,472,476	1,174	1,495	607,079	635	644	99,913	8,964	10,763	5,179,468
충남	6,009	6,538	4,486,893	1,465	1,478	536,300	359	363	169,949	7,833	8,379	5,193,142
전북	4,298	5,272	4,377,107	998	1,172	685,287	220	222	68,118	5,516	6,666	5,130,512
전남	6,619	8,031	3,571,862	1,541	2,088	621,323	342	387	96,307	8,502	10,506	4,289,492
경북	9,051	10,802	5,852,211	2,019	2,541	1,440,479	261	269	205,496	11,331	13,612	7,498,186
경남	14,926	18,265	14,372,394	2,520	3,012	912,329	441	479	217,247	17,887	21,756	15,501,970
제주	3,026	3,485	1,428,978	1,274	1,293	118,288	0	0	0	4,300	4,778	1,547,266
합 계	153,235	178,885	124,481,925	24,434	28,275	9,124,257	5,843	6,096	2,691,425	183,512	213,256	136,297,607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 (12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3,045	3,261	449,165	482	514	39,463	35	35	4,202	3,562	3,810	492,830
다세대주택	405	491	270,943	21	21	2,345	6	7	660	432	519	273,948
연립주택	82	133	367,932	2	2	771	1	1	18	85	136	368,721
아파트	272	1,228	5,977,406	8	32	20,166	4	4	10,709	284	1,264	6,008,281
근린생활시설	3,926	4,070	1,796,164	490	517	107,482	275	281	194,073	4,691	4,868	2,097,719
종교시설	101	118	80,895	62	69	23,371	6	6	805	169	193	105,071
의료시설	10	11	33,172	15	18	20,650	3	3	2,486	28	32	56,308
교육연구시설	93	128	348,308	88	121	160,951	39	39	18,502	220	288	527,761
업무시설	233	258	1,229,452	71	77	61,909	26	28	47,900	330	363	1,339,261
숙박시설	61	64	102,364	11	12	6,711	11	11	4,243	83	87	113,318
공장	807	1,371	1,028,374	350	556	289,735	76	80	62,825	1,233	2,007	1,380,934
기타	1,380	1,920	982,693	438	582	212,583	109	111	50,381	1,927	2,613	1,245,657
합 계	10,415	13,053	12,666,868	2,038	2,521	946,137	591	606	396,804	13,044	16,180	14,009,809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 (1~12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70,115	72,281	11,575,594	9,899	10,414	661,241	671	677	49,677	80,685	83,372	12,286,512
다세대주택	14,083	16,009	7,427,486	352	376	35,972	192	231	17,505	14,627	16,616	7,480,963
연립주택	1,321	1,844	2,766,104	35	38	14,502	9	9	1,134	1,365	1,891	2,781,740
아파트	2,686	12,958	55,823,772	134	241	333,491	53	80	84,263	2,873	13,279	56,241,526
근린생활시설	44,297	46,486	19,480,667	5,543	5,799	1,099,329	3,023	3,075	1,040,507	52,863	55,360	21,620,503
종교시설	1,087	1,290	703,052	546	623	218,634	74	77	22,715	1,707	1,990	944,401
의료시설	94	117	535,602	103	122	147,758	26	29	18,227	223	268	701,587
교육연구시설	648	921	2,358,600	751	962	1,054,694	292	303	141,390	1,691	2,186	3,554,684
업무시설	1,661	1,820	6,806,924	599	641	440,785	173	177	211,792	2,433	2,638	7,459,501
숙박시설	290	359	776,764	97	129	71,488	100	103	134,936	487	591	983,188
공장	6,199	10,730	9,367,268	2,888	4,659	3,466,647	587	650	453,603	9,674	16,039	13,287,518
기타	10,754	14,070	6,860,092	3,487	4,271	1,579,716	643	685	515,676	14,884	19,026	8,955,484
합 계	153,235	178,885	124,481,925	24,434	28,275	9,124,257	5,843	6,096	2,691,425	183,512	213,256	136,297,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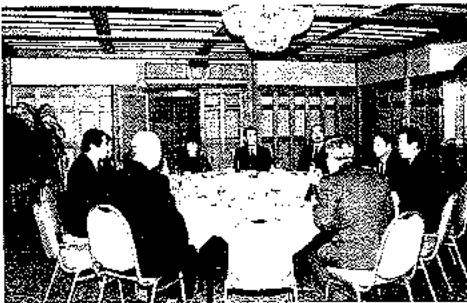


건축3단체 조찬회

본 협회는 지난 30일 롯데호텔 칸튼룸에서 건축3단체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吳雲東회장을 비롯한 윤도근 건축가협회장, 신현식건축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 협회가 지난 28일 개최한 '르코

르뷔제에 관한 특별강연회 및 영종도 신국제공항 현상공모에 대한 건축계 대책, '92한국건축전 개최계획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는등 건축계 현안문제에 대하여 의견 교환이 있었다.



조찬회 광경



르코르뷔제의 건축 강연회 전경

'르코르뷔제의 건축' 강연회

본 협회에서는 지난 28일 본 협회 강당에서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의 후원으로 '르코르뷔제의 건축'에 관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르코르뷔제와 파리: 안식의 도시, 빛의도시'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특별강연회에서는 현재 파리대학교 건축과에서 강의

하고 있는 Dr. Brian Brace Taylor를 연사로 초청하여 르코르뷔제의 '안식의 도시'를 통해서 파리 건축에 있어서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비평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자세한 강연 내용은 3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92 특별전향대책위원회 위원 변경

위원장: 김춘배
부위원장: 정진민
간사: 김기완

위원: 김형배, 김진식, 한상건,
심기섭, 김종택, 김세호

일본 건축사들과의 간담회

서울건축사회(회장李文雨)에서는 지난 1월10일 한국의 주택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縣) 건축사회의 주택연구위원 8인과 서울건축사회 국제위원(위원장 金永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시내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국간의 참석

자 소개와 아울러 양국 고건축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교환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 고건축의 변천사가 일본 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일본 구마모토현의 ART Police Project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 및 이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경기도건축사회(회장李一潤)에서는 지난 12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 2백4십5만원을 조성, 경기도청에 전달하였으며, 건축사회 주변의 도로미화원 및 신문배달원, 구두닦이 등 어려운 이웃에

게 방한복 11벌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하였다.

한편, 경기도 건축사회內 각 분회에서는 2천4십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조성하여 분회 관할 시·군 및 경찰서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알림

본 협회에서는 회원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및 자문세무사, 자문노무사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소라도 어려움 점이 있으면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문변호사

유 효 봉(유효봉 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6(성곡B/D 서관 309호)
Tel : 595 - 3727~8

◇ 자문세무사

최 수 오(오승 세무회계사무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66-7(현승B/D 402호)
Tel : 242 - 3387

◇ 자문노무사

김 용 표(평화 공인노무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1(중동B/D 603호)
Tel : 677 - 9388~9